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근로연령층 사회적 위험의 경험과 대응의 격차

김현경

이아영·함선유·이병재·정성미·양정승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병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정승	군산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경제학전공 교수

연구보고서 2022-49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근로연령층 사회적 위험의 경험과 대응의 격차

발 행 일 2022년 12월
발 행 인 이 태 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고려씨엔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ISBN 978-89-6827-913-3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2.49>

발|간|사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이 컸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코로나19는 삶의 방식, 산업수요,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거나 변화의 속도를 높였고,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과제를 남겼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고용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소득과 소비의 변화를 낳았다.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도 재정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 전방위적인 정책적 대응을 시급하게 요구했고, 대응의 규모 역시 전례 없이 컸다. 따라서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을 엄밀하게 이해하는 것은 코로나19로 변화할 미래에 대비하고 다시금 닥쳐올 미래 위기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한 수 많은 시도 중의 하나다.

연구책임자인 김현경 연구위원, 코로나19의 영향을 한국 데이터로 정량화하기 위해 수요충격지수와 재택근무가능지수를 개발하는 첫 시도를 해준 군산대 양정승 교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성미 연구위원, 지역별고용조사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취약성 변화를 분석한 본원 이아영 부연구위원, 가계동향조사로 고용·소득·소비 변화를 광범위하게 스케치해 준 함선유 부연구위원, 연구의 전 과정을 도와준 이병재 전문연구원에 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 연구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고 정책의 방향을 찾는 데 밑받침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14
제2장 코로나19 영향 지수	17
제1절 들어가며	19
제2절 코로나19의 수요 충격	20
제3절 재택가능성 지수	29
제3장 코로나19와 고용취약성	55
제1절 들어가며	57
제2절 분석 방법	61
제3절 분석결과	65
제4절 소결	94
제4장 코로나19와 노동시장 위험	99
제1절 들어가며	101
제2절 분석 방법	103
제3절 분석결과	107
제4절 소결	126

제5장 코로나19와 소득·소비 변화	131
제1절 들어가며	133
제2절 분석방법	137
제3절 분석결과	141
제4절 소결	175
 제6장 코로나19로 인한 가구경제활동 변화와 정책 대응	 179
제1절 서론	181
제2절 분석 방법	182
제3절 분석 결과	185
제4절 소결	205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09
제1절 요약	211
제2절 정책적 제언	214
 참고문헌	 219
 부 록	 225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2-1〉 코로나19의 수요충격 선행연구	22
〈표 2-2〉 산업대분류별 수요충격 추정결과	27
〈표 2-3〉 직업대분류별 수요충격 추정결과	28
〈표 2-4〉 Dingel & Neiman(2020)에서 활용한 O-NET의 질문영역	31
〈표 2-5〉 직업정보시스템(KNOW) 조사 항목 중 업무환경 및 업무활동에서 활용한 질문	34
〈표 2-6〉 직업별 분석결과	36
〈표 2-7〉 산업과 직업 교차 분석결과	37
〈표 2-8〉 직업 2자리 분석결과	38
〈표 2-9〉 직업 3자리 분석결과	39
〈표 2-10〉 미국의 직업군별 재택근무가능 수준	41
〈표 2-11〉 산업별 재택가능 일자리비중 분석결과	42
〈표 2-12〉 Dingel & Neiman(2020)의 재택근무 가능한 산업별 취업자 비중	42
〈표 2-13〉 직업정보시스템(KNOW)의 업무환경 질문	44
〈표 2-14〉 직업정보시스템(KNOW)의 업무수행능력 질문	46
〈표 2-15〉 직업정보시스템(KNOW)을 이용한 측정 방법	48
〈표 2-16〉 우리나라의 직업별 재택근무 가능 분석결과	49
〈표 2-17〉 직업 2자리 분석결과	50
〈표 2-18〉 재택가능성이 있는 직업 3자리 분석결과	51
〈표 2-19〉 직업 2자리 분석결과 비교	53
〈표 3-1〉 Occupation Rankings by Inability to work-from-home & Physical- proximity	62
〈표 3-2〉 재택가능성 측정	63
〈표 3-3〉 재택근무가능지수, 필수직 여부, 대면접촉지수	66
〈표 3-4〉 산업별 재택근무가능 특성	67
〈표 3-5〉 산업별 대면접촉 특성	68
〈표 3-6〉 산업별 필수직	70
〈표 3-7〉 직종별 재택근무가능 특성	71

〈표 3-8〉 직종별 대면접촉 특성	72
〈표 3-9〉 직종별 필수직	73
〈표 3-10〉 재택근무 가능성과 귀속적 지위 특성	74
〈표 3-11〉 대면접촉지수와 귀속적 지위 특성	75
〈표 3-12〉 필수직 여부와 귀속적 지위 특성	76
〈표 3-13〉 재택근무 가능성과 획득적 지위 특성	77
〈표 3-14〉 대면접촉지수와 획득적 지위 특성	78
〈표 3-15〉 필수직 여부와 획득적 지위 특성	79
〈표 3-16〉 선행회귀분석 결과	80
〈표 3-17〉 전염병 취약일자리 특성별 저임금 분포	85
〈표 3-18〉 전염병 취약일자리 특성별 저임금 분포	87
〈표 3-19〉 제2사분면 대표 산업의 고용형태 비율	91
〈표 3-20〉 제4사분면 대표 산업의 고용형태 비율	91
〈표 3-21〉 제1사분면, 제3사분면 대표산업의 고용형태 비율	92
〈표 4-1〉 성별, 자녀유무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근무형태 변화	110
〈표 4-2〉 종사상지위별, 사업체규모별 근무형태 변화	111
〈표 4-3〉 직무·산업특성별 근무형태 변화	113
〈표 4-4〉 가구소득분위별, 월취업소득분위별 근무형태 변화	114
〈표 4-5〉 선행회귀모형: 이직	117
〈표 4-6〉 선행회귀모형: 유급휴가휴직	119
〈표 4-7〉 선행회귀모형: 무급휴가휴직	121
〈표 4-8〉 선행회귀모형: 근로시간 증감	123
〈표 4-9〉 선행회귀모형: 개인소득 감소 경험	125
〈표 5-1〉 소득분위별 가구주 특성(2019~2022통합)	138
〈표 5-2〉 분석대상 사례 수와 비중	139
〈표 5-3〉 가구형태별 가구주 특성(2019~2022통합)	140
〈표 5-4〉 가구형태별 가구주 취업률	142



〈표 5-5〉 가구형태별 맞벌이 비율	143
〈표 5-6〉 가구형태별 가구주 부부의 평균 취업자 수	145
〈표 5-7〉 가구소득분위별 가구주 취업률	146
〈표 5-8〉 가구소득분위별 맞벌이 비율	147
〈표 5-9〉 가구소득분위별 가구주 부부의 평균 취업자 수	148
〈표 5-10〉 가구형태별 평균 취업소득	149
〈표 5-11〉 가구형태별 평균 시장소득	152
〈표 5-12〉 가구형태별 평균 가처분소득	153
〈표 5-13〉 가구형태별 평균 가처분소득 빈곤율	155
〈표 5-14〉 가구소득분위별 취업소득(근로·사업소득)	156
〈표 5-15〉 가구소득분위별 시장소득	157
〈표 5-16〉 가구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159
〈표 5-17〉 가구소득분위별 평균 가처분소득 빈곤율	160
〈표 5-18〉 가구형태별 소비지출	161
〈표 5-19〉 가구소득분위별 소비지출	171
〈표 6-1〉 분석대상 사례 수	184
〈표 6-2〉 가구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 수급자 평균 수급액	197
〈표 6-3〉 가구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 평균 수급률	197
〈표 6-4〉 가구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 평균 수급액	198
〈표 6-5〉 2020년 코로나19 정부지원금 수급률과 수급액	200
〈표 6-6〉 가구유형별 공적이전소득 수급자 평균 수급액	202
〈표 6-7〉 가구유형별 공적이전소득 평균 수급률	203
〈표 6-8〉 가구유형별 공적이전소득 평균 수급액	203
〈표 6-9〉 2020년 코로나19 정부지원금 수급률과 수급액	204
〈부표 1〉 소비지출과 산업연계표	225
〈부표 2〉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항목과 품목별 항목 구분	232

그림 목차

[그림 2-1] 코로나-19의 수요충격 추정 절차	26
[그림 3-1]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감률	59
[그림 3-2] 취업자 수 및 일시휴직자 수 증감률(2019년 동기 대비)	83
[그림 3-3] 취업자 수 증감 분해(2019년 동기 대비)	83
[그림 3-4] 일시휴직자 수 증감 분해(2019년 동기 대비)	83
[그림 3-5] 저임금 근로자 비율 변화(2019년 동기 대비)	86
[그림 3-6] 고용형태 비율 변화(2019년 동기 대비)	88
[그림 3-7] 전염병 취약일자리 특성에 따른 대표 산업	89
[그림 3-8] 제2사분면 저임금, 고용형태 비율 변화(2019년 동기 대비)	92
[그림 3-9] 제4, 1사분면 저임금, 고용형태 비율 변화(2019년 동기 대비)	93
[그림 3-10] 제3사분면 저임금, 고용형태 비율 변화(2019년 동기 대비)	93
[그림 4-1] 소득분위별 재택근무가능성, 대면성, 수요충격	115
[그림 5-1] 가구형태별 가구주 취업률 변화(2019년 동기 대비)	142
[그림 5-2] 가구형태별 맞벌이 비율 변화(2019년 동기 대비)	144
[그림 5-3] 가구형태별 가구주 부부의 평균 취업자 수 변화(2019년 동기 대비)	145
[그림 5-4] 가구소득분위별 가구주 취업률 비율 변화(2019년 동기 대비)	146
[그림 5-5] 가구소득분위별 맞벌이 비율 변화(2019년 동기 대비)	147
[그림 5-6] 가구소득분위별 가구주 부부의 평균 취업자 수 변화(2019년 동기 대비)	148
[그림 5-7] 가구형태별 평균 취업소득 변화(2019년 동기 대비)	150
[그림 5-8] 모자가구의 고용률과 취업(근로·사업)소득 변화(2019년 동기 대비)	151
[그림 5-9] 가구형태별 평균 시장소득 변화(2019년 동기 대비)	152
[그림 5-10] 가구형태별 평균 가처분소득 변화(2019년 동기 대비)	153
[그림 5-11] 모자가구의 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의 변화(2019년 동기 대비)	154
[그림 5-12] 가구형태별 가처분소득 빈곤율 변화(2019년 동기 대비)	155
[그림 5-13] 가구소득분위별 취업(근로·사업)소득 변화(2019년 동기 대비)	157
[그림 5-14] 가구소득분위별 시장소득 변화(2019년 동기 대비)	158
[그림 5-15] 가구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변화(2019년 동기 대비)	159



[그림 5-16] 가구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빈곤율 변화(2019년 동기 대비)	160
[그림 5-17] 가구형태별 소비지출 변화(2019년 동기 대비)	162
[그림 5-18] 모자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변화(2019년 동기 대비)	163
[그림 5-19] 가구형태별 소비지출 변화(2019년 동기 대비)	164
[그림 5-20] 가구형태별 소비지출 변화(2019년 동기 대비)	165
[그림 5-21] 가구형태별 소비지출 변화(2019년 동기 대비)	166
[그림 5-22] 가구형태별 소비지출 변화(2019년 동기 대비)	168
[그림 5-23] 가구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변화(2019년 동기 대비)	172
[그림 5-24] 가구소득의 불평등지표 변화(2019년 동기 대비)	173
[그림 5-25] 가구소득의 불평등지표 변화(2019년 동기 대비)	174
[그림 6-1] 소득분위별 가구유형 분포	185
[그림 6-2] 가구유형·소득분위별 취업 가구주 고용변화(2020년 3월)	187
[그림 6-3] 가구유형·소득분위별 취업 가구주 고용 변화 (2021년 1월)	188
[그림 6-4] 가구유형·소득분위별 단독·맞벌이 취업자 가구 고용변화(2020년 3월)	189
[그림 6-5] 가구유형·소득분위별 단독·맞벌이 취업자 가구 고용변화(2021년 1월)	190
[그림 6-6] 가구유형·소득분위별 홀벌이·맞벌이 취업자 가구 고용변화(2020년 3월)	191
[그림 6-7] 가구유형·소득분위별 홀벌이·맞벌이 취업자 가구 고용 변화(2021년 1월)	192
[그림 6-8] 가구유형·소득분위별 가구소득 증감률 (2019→2020년)	193
[그림 6-9] 경상소득분위·가구유형별 소득 대비 소득과 소비지출의 갭 비율	194
[부그림 1] 가구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변화(2019년 동기 대비)	235
[부그림 2] 가구형태별 소비지출 변화(2019년 동기 대비)	237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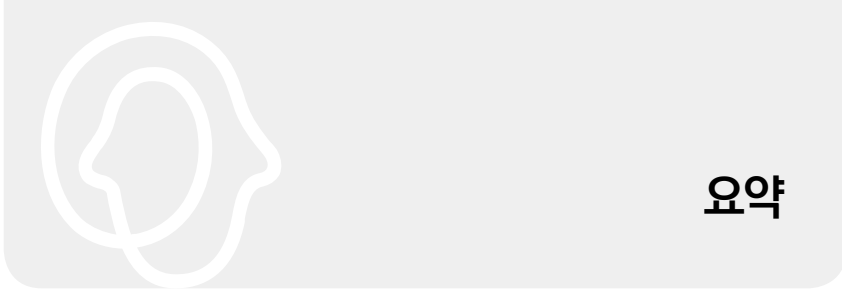
Gaps in working-age social risk experience and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Project Head: Kim, Hyeon-Kyeo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labor market risk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and the differences in income, consumption, and policy effects using the Korean Labor Panel Survey, the Regional Employment Survey, and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non-essential jobs, jobs that can't work from home, and face-to-face jobs have experienced a large decline in employment since COVID-19. It is necessary to develop new criteria for employment vulnerability due to the epidemic. Second, women with children are at greater risk of quitting jobs or reducing labor supply through paid leave and furloughs due to childcare burde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ocial care system during epidemics. Third, there is a need for a proactive government response to mitigate economic shocks of sectors affected by government quarantine measures. Fourth, flexible work options can be a buffer against the risk of job loss, so governments can proactively prepar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Keyword : COVID-19, employment vulnerability, telework, furloughs, child care, Korean Labor Panel Survey

Co-Researchers: Lee, Ayoung · Ham, Sunyu · Lee, Byongjae · Jung, Sungmi · Yang, Jung-seung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코로나19가 근로연령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과 가구의 특성이 고용감소(실직, 근로시간 감소, 휴가·휴직)라는 팬데믹 시기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위험 발생률과 소득 및 소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주된 대상인 취약계층을 식별하는 이론적·정책적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미래의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고 경제위기에서 안정화 장치로서 사회 및 노동정책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자 한다.

2. 주요 연구결과

코로나19는 이전의 경제위기와 다른 모습을 가졌다. 이전의 경제위기가 주로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업종에 영향을 미쳤다면, 감염병 위기는 대면접촉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 업종과 직종에 영향을 미쳤고, 자녀돌봄부담이 있는 가구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위기가 근로연령층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산업과 직업의 특성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 미치는지 새로운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2장에서 가계동향조사의 소비 변화를 이용해 한국의 수요충격지수를 개발하였고, Dingel and Neiman(2020)의 재택근무지수 등의 방법론을 한국의 KNOW 데이터에 적용하여 한국의 재택근무가능도 지수 개발을 시도하였다.

4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근로연령층 사회적 위험의 경험과 대응의 격차

3장과 4장에서는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해 코로나19 전후 고용변화를 추적하였다. 3장의 분석 결과, 대면접촉도가 높고 재택근무 가능성이 낮은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고 저임금 비율도 높았으며, 이 일자리에 여성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취업자 수 감소의 대부분이 비필수직 일자리, 재택이 어려운 일자리, 고대면 접촉 일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 한국노동패널 분석 결과 여성, 특히 유자녀 여성이 일자리를 그만둘 위험은 컸고, 일자리를 그만두지 않더라도 유급휴가·휴직 등을 통해 노동공급을 줄이는 선택 아닌 선택을 하게 될 위험이 컸다. 그리고 감염병 위기에서 노동시장의 고용감소는 대면접촉도가 큰 서비스업과 대면직에서 크게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대면접촉도와 필수직 여부를 사용한 수요측 요인은 주로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고, 수요충격지수는 이직위험과 유급휴가휴직 사용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여성, 청년, 임시·일용직, 영세사업장 종사자가 다양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점은 기존의 이중노동시장의 주변부 여건들이 감염병 위기에서도 그 취약성을 더 증폭시킨다는 점도 드러났다.

5장에서는 가계동향조사로 가구유형별, 소득계층별 고용, 소득, 소비 변화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가 있는 가구와 저소득 분위에서 고용 충격이 컸다. 취학연령의 아동이 있는 부부가구, 특히 한부모가족 등이 고용감소와 취업소득의 감소가 큰 폭으로 관측되었다. 소비는 취업소득이 감소한 집단의 소비지출 감소가 컸는데, 가구 형태별로는 취학연령 아동이 있는 부부가구와 기타 아동가구(한부모 가족 등)의 소비지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6장은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해 가구유형별·소득계층별 고용, 소득, 소득과 소비의 차이(gap) 변화를 요약하고 공적이전소득과 코로나19 지원

금의 수급률과 수급액 등 성과를 분석하였다. 저소득층에서 고용감소는 더욱 컸고, 특히 가구 내 취업자가 단독인 경우 고용충격은 더욱 커서 취약성이 큰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한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영향이 취약연령 아동 있는 가구와 한부모가족 등에게 컸고, 코로나19에 대응한 아동 있는 가구 대상 현금 지원금이 이 충격 완화에 기능했음을 확인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감염병 확산으로 자녀의 돌봄부담이 커져 주로 돌봄의 책임을 지는 유자녀 여성이 노동시장 위험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졌다. 따라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현금 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돌봄 체계를 작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있다. 둘째, 한부모가족과 같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취약 집단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셋째,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한 업종에 대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보상하는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넷째, 노동시장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우선적인 안전망이 되는 것은 고용유지정책이므로 위기의 임시적 대응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임시적 소득지원 정책을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 포괄성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유연한 근무방식에 대한 선택지는 일자리를 그만두는 위험의 완충장치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유연한 근무형태가 확산됨에 따른 다양한 이슈에 선제적으로 법·제도 등의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주요 용어 : 코로나19, 고용취약성, 재택근무, 대면접촉도, 필수직, 유급휴가, 자녀돌봄, 코로
나지원금, 한국노동패널, 지역별고용조사, 가계동향조사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근로연령층 경제활동상태와 경제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사회정책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즉, 경제적·인적 특성이 고용감소라는 팬데믹 시기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위험 발생률과 소득 및 소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주된 대상인 취약계층을 식별하는 이론적·정책적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 형태 및 주요 일자리 속성과 함께 취약성 격차를 만드는 주요 인구·사회적 특성을 찾아 근로연령대에서 ‘누가’ 취약하며(자격),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정책수단) 해법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다음의 위기를 대비하고 비단 감염병 위기가 아닌 경제위기에서도 안정화 장치로서 사회 및 노동정책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자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노령, 실업, 질병, 산업재해,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해도 개인이나 가구가 기본적인 욕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사회적위험(old social risks)은 탈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으로 확대되었다. 탈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이 유발한 새로운 사회

적 위험은 가족의 변화 및 성역할의 변화와 함께 돌봄의 책임을 주로 부담하는 여성노동자가 안정적인 일과 소득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위험, 노동시장 변화로 적절한 보수와 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 얻기가 어려워짐으로 인한 근로빈곤의 위험(Taylor-Gooby et al., 2004; 김철주, 박보영, 2006에서 재인용)이 가장 대표적이다. 구사회적위험에서 신사회적위험으로의 논의의 확장은 1980년대 탈산업사회에서 경제성장은 더딘 반면 사회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국가재정의 위기 속에서 신복지국가(new welfare state)가 복지지출을 재배치하고 복지국가를 지속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험을 이해해야 하는 필요에서 비롯되었다(Huber & Stephens, 2004).

1980년 탈산업사회에서 시작된 신사회적위험은 한층 가팔라진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변화로 인해 노동의 불안정성과 근로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여성과 청년을 비롯한 취약집단에게 그 위험의 크기는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의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이러한 위험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누구에게 가장 심대한 타격을 입힐지,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즉,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환경 변화에 더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위험의 지형을 이해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현상을 엄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근로연령층에게 닥치는 사회적 위험이 주로 소득활동의 중단과 감소라는 모습으로 노동시장을 통해 나타남에 주목하여 노동시장 위험을 겪는 취약집단의 특성과 이로 인한 소득과 소비의 변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2. 선행연구와 차별점

사회적 위험의 원인 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다.

손연정(2018)은 1~19차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사회적 위험(실직, 건강악화, 출산, 은퇴)이 '소득의 급격한 감소(=1)'와 '빈곤진입(=1)'에 미치는 효과를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생애주기적 위험은 소득감소와 빈곤을 유발하며 실직의 영향이 가장 컸다. 종사상 지위별로 분석했을 때 실직을 제외한 모든 위험의 경우 임시/일용직이 빈곤진입 확률을 크게 높였고, 사회보험 가입여부의 영향을 보면 여성가주주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감소의 위험이 커졌다.

황선웅(2020)은 2020년 4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이용해 코로나19가 국내 정규직과 비정규직(비전형, 시간제, 임시직)의 노동조건에 미친 차별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두 배 높은 확률로 비자발적 실직, 무급휴업 강요, 소득감소를 경험했고, 비정규직 중에서는 파견·용역·사내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를 포함한 비전형 노동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일자리 상실과 무급휴업을 겪지 않은 일자리 유지자 가운데서도 비정규직의 소득감소 확률이 정규직보다 높은 것으로부터 실직 외에도 업무량 및 노동시간 감소, 임금 및 수당 삭감 등의 조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과 소득 보호에 중점을 둔 위기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성미, 김종숙, 심혜빈, 김현경(2021)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여성 취업자 감소폭이 남성보다 상당히 컸고,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여성 취업자 중에서도 일시휴직자 규모가 남

성에 비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높았으며,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자녀돌봄 영향을 받는 기혼여성, 미혼, 50대까지 여성 노동시장에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30~44세 기혼여성이 동일한 연령대의 미혼여성 및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 이탈확률이 1.1% 증가했고, 막내자녀 만나이가 낮을수록 노동시장 이탈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권혁진, 김성희, 신우진, 황선웅(2022)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성, 연령, 종사상지위, 근로시간대별 취업자 수 증감과 DID 분석한 결과,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소득분위별 소득 및 지출 변화, 불평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손연정(2018)의 연구는 실직, 건강악화와 출산, 은퇴라는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위험의 영향을 검토하고, 종사상지위 및 사회보험 가입 여부의 영향을 추가하여 사회적 위험이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정책의 영향을 통해 어떻게 빈곤으로 귀결되는지 이해함으로써 어느 지점에서 정책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황선웅(2020), 정성미 외(2021), 권혁진 외(2022)의 연구는 코로나19 초기의 영향이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성별, 각종 개인 및 가구의 특성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사회적 위험과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는 시기적 한계로 인해 일자리 특성, 가구특성, 사회보장제도 및 코로나19 지원제도의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코로나19 이후의 노동시장, 소득과 소비 정보를 담은 서베이 조사 자료를 이용해 코로나19의 영향과 대응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이 연구의 차별점이 있다.

이 연구의 또 다른 차별점은 기존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계급 또는 계층적 구분이 생겨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출발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로버트 라이히(Robert Reich)는 새로운 계급(New classes)이 등장하였음을 소개했다.¹⁾ 그는 The Remotes(35%, 전문가, 경영인, 기술자 등 비대면 근무가 가능하고 위기 전과 임금이 동일한 집단), The Essentials(30%, 간호사, 돌봄종사자, 트럭운전사, 청소노동자, 경찰, 군인 등 필수 인력), The Unpaid(휴업·휴직 등, 원격 근무가 불가능한 대면서비스 업종 종사자), The Forgotten(거리두기가 불가능, 감옥, 노숙인 쉼터, 요양원 인력 등) 구분이 위험의 경험과 대응의 차이를 만드는 새로운 계층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다양한 고용형태나 종사상지위와 같이 논의의 발전을 거듭하며 명확하게 정의되고 배타적으로 정립된 구분 기준은 아니지만 감염병 특성으로 인한 직무와 지위에 따라 주목할 만한 구분임은 틀림없다. 원격근무 가능성, 필수직 여부, 비대면성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의 변화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이는 재택근무와 같은 근무형태의 변화를 통해 노동시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노동시장 위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특성과 고용지위 등 기존의 취약계층 식별기준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다. 코로나19가 낳은 변화에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어떻게 조응해야 할지에 대해 답을 구할 때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1) Robert Reich. (2020. 4. 28). The Remotes. The Essentials. The Unpaid. The Forgotten: Divided, but intertwined. <https://blogs.berkeley.edu/2020/04/28/the-remotes-the-essentials-the-unpaid-the-forgotten-divided-but-intertwined/>에서 2022.3.15. 인출.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연구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을 논의한다.

2장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하는 수요충격 지수와 재택근무가능성 지수를 새롭게 개발한다. 새로운 계층 논의의 맥락에서 이후 노동시장 위험의 요인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한 이 지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의 토대로 삼을 것이다. 2절의 수요충격 지수는 4장에서 노동시장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용되었다. 3절의 재택근무가능지수는 이 연구의 이후 분석에서는 활용되지 못했지만 이후 전문가 논의와 발전을 거쳐 한국의 재택근무가능성 지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과제로 남길 것이다.

3장과 4장은 각각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해 코로나19 이후 고용변화와 노동시장의 위험 요인을 분석한다. 대표성을 갖는 횡단면 자료와 개인 종단자료 각각의 장점을 살리고자 유사한 문제의식을 각기 다른 자료로 접근했다.

3장에서는 지역별고용조사를 이용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고용변화를 심층분석한다. 특히 재택가능성 지수와 대면접촉도, 필수직 여부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취약성 분석에서 새롭게 지표로 사용된 업종과 직종 구분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추세의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고 코로나 이후의 노동시장 변화를 가늠하는 데 근거로 삼고자 한다.

4장에서는 개인 종단자료를 이용해 개인의 고용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위험의 다양한 모습을 파악하고 위험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해 개인과 가구의 특성과 코로나19 이전 그들의 일자리 특성별로 코로나19 이후 경험하는 고용변화를 파악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종사상지위, 사업체규모와 같이 노동시장 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 고전적 요인과 더불어 감염병 상황에서 부각된 자녀 있는 취업자의 돌봄부담이 낳는 노동공급측 요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정책과 같은 방역대책과 이로 인한 대면성 감소와 같은 수요측 요인을 포함한다. 수요측 요인은 3장에서와 같은 대면접촉도와 필수직 여부, 또는 2장 2절에서 추정한 수요충격 지수를 사용해 그 영향을 추정한다. 각 요인의 크기와 방향, 중요도에 따라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요구되는 경제 및 사회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5장과 6장은 각각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해 코로나19 이후 가구의 고용변화, 소득 및 소비 변화를 분석한다. 가구 경제활동의 대표성을 갖는 횡단면 자료와 대표적인 개인 및 가구패널 조사 각각의 장점을 살려 가구의 고용, 소득, 소비 변화를 가구유형 및 소득계층별로 살펴본다. 6장에서 코로나19 전후의 공적이전소득과 코로나19 지원금 실태를 추가적으로 살펴본다는 차이점이 있다.

5장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가구유형별, 소득계층별 고용변화와 이에 따른 소득과 소비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2019년 상반기와 하반기 대비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상·하반기, 코로나19 진행 후기인 2021년 상·하반기, 회복기인 2022년 상반기까지 포함하여 가구 경제활동의 전반적인 변화를 탐색한다.

6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가구소득과 유형별 고용·소득·소비 양태에서 오는 취약한 가구의 특성을 요약하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즉 2019년과 2020년의 공적이전소득과 코로나19 주요 지원제도의 성과를 실증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책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7장에서 이 연구를 요약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3~6장까지 다양한 실증자료로 분석한 결과와 이에 대한 정책대응을 비교하여 정책효과를 논하고 향후의 정책적 함의를 얻는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코로나19 영향 지수

제1절 서론

제2절 코로나19의 수요 충격

제3절 재택가능성 지수

제2장 코로나19 영향 지수

제1절 들어가며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교수업의 비대면 전환, 자발적인 거리두기, 대면서비스 기피에 따른 플랫폼 경제의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 전례없는 감염병의 유행으로 사회적으로 이동이 감소하고, 외출을 자제하며, 재택근무의 활성화, 비대면 온라인수업, 배달주문의 증가 등 생활패턴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경제 전체적으로 매우 크고 지속적인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교의 비대면수업 시행에 따라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종 및 직업의 경우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사람들의 대면접촉 기피에 따른 대면서비스 이용이 감소함에 따라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경우 이러한 수요측면에서의 또 다른 변화에 직면해야만 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영향은 수요와 공급측의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의 활성화 등이 노동공급측면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충격요인이라면, 사람들의 대면서비스 기피에 따른 자발적인 변화는 수요로부터 발생하는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강제적인 사업장의 폐쇄나 지역 폐쇄 등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지는 않은 만큼 봉쇄수준의 거리두기를 경험한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공급측 영

향 못지않게 상대적으로 크게 수요측 요인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코로나19 발생이 노동시장에 미친 충격을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으로 분해하여 이해하기 위해 이를 양적으로 지표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2절에서 수요 충격, 3절에서 공급 측면의 재택근무가능성 지수 개발 방식을 설명한다.

제2절 코로나19의 수요 충격

1. 수요충격 관련 선행연구

Muellbauer(2020)는 소비의 변동성은 소득의 변동성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충격은 소비 자체의 붕괴 뿐만 아니라, 전례없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불안정성, 자산가격의 하락과 신용 축소로 인해 오히려 소득감소보다 소비가 더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Duca and Muellbauer(2013) 연구에서 추정된 소비함수를 근거로 코로나19로 예측되는 시나리오 하에서의 미국의 소비변화를 추정하여 소비충격을 예측하였다. 시나리오는 현재의 노동소득, 항상노동소득(permanent labour income), 순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주택유동화지수(housing liquidity index), 주택가격, 신용조건, 실업률에 있어서 추정된 변화를 근거로 작성하였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하에서 소득이 16% 감소한다면 가구의 소비지출은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였다.

del Rio-Chanona et al. (2020)은 Muellbauer(2020)와 OECD(20

20), Keogh-Brown, Wren-Lewis, Edmunds, Beutels & Smith(2010)과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2006)의 추정치들이 대체로 유사하고, 최근의 트랙잭션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2006)의 추정치가 질적으로 정확하다 결론 짓고 이를 연구의 수요충격으로 사용하였다. CBO의 연구는 인플루엔자 팬데믹의 잠재적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수요충격으로 사용하였는데, 시나리오에는 1918-1919년 스페인 독감 당시의 상황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9천만 명이 감염되고 2백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Keogh-Brown et al.(2010)은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영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는데, 대유행 시나리오를 영국의 거시경제를 예측하는 COMPACT라는 구조모형에 적용하여 분석 결과를 추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시나리오에는 1918-1919년 스페인 독감, 1957년과 1968-1969년의 세 차례 대유행 사례를 참조로 하여 발병률(Clinical Attack Rate; CAR)과 사망률(Case Fatality Rate; CFR), 치료기간 및 환자돌봄, 예방적인 목적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등에 대한 가정을 수립하고, 2003년 베이징에서의 SARS 발병 시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Beutels, Edmunds, Smith(2008)의 연구결과에 근거한 소비감소를 수요충격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OECD(2020) 또한 일정한 가정하에 코로나19 억제정책이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였는데, 이를 산업별 GDP에 미친 영향과 지출항목에 미친 영향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의 방법이나 별도의 가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2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근로연령층 사회적 위험의 경험과 대응의 격차

〈표 2-1〉 코로나19의 수요충격 선행연구

		(단위: %)
분류		충격(%)
CBO(2006)의 최대 시나리오(Severe scenario)	농업	-10
	광업	-10
	전기, 가스 등 공급업(Utilities)	0
	건설업	-10
	제조업	-10
	도매업	-10
	소매업	-10
	운수 및 창고업(항공, 철도, 육상 운송 포함)	-67
	정보(출판, 방송)	0
	금융	0
	전문가 및 사업지원 서비스	0
	교육	0
	보건	15
	예술 및 여가	-80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	-80
	기타서비스(정부서비스 제외)	-5
	정부서비스	0
OECD(2020)의 산업별(ISIC.Rev4) 충격	운송장비 제조(29-30)	-100
	건설(VF)	-50
	도매업 및 소매업(VG)	-75
	항공 운송(V51)	-75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VI)	-75
	부동산 및 임대업(VL-V68A)	-75
	전문가 서비스(VM)	-50
	예술, 오락 및 여가(VR)	-75
	기타 서비스(VS)	-100
OECD(2020)의 소비항목별(COICOP) 충격	의복 및 신발(3)	-100
	가구 및 가정용 기구(5)	-100
	자동차 구입(7.1)	-100
	자동차 유지 및 보수(7.2)	-50
	운송 서비스(7.3)	-50
	여가 및 문화(9.1-9.5)	-75
	여행패키지(9.6)	-100
	숙박 및 음식(11)	-75
	개인돌봄서비스(12.1)	-100
Muellbauer(2020) 의 소비 충격	숙박 및 음식점	-71
	운송서비스	-70
	여가 서비스	-63
	가정에서 식사준비(Food at home)	43
	보건	18

분류		충격(%)
Keogh-Brown et al. (2010)의 소비충격	식음료, 주류 및 담배	0
	의복 및 신발	-50
	주거, 난방 등	0
	상품과 서비스(가구 등)	-80
	자동차 구입	-100
	운송 서비스 및 자동차 이용	-50
	여가 및 문화-내구재	-100
	여가 및 문화-사냥과 애완동물	0
	여가 및 문화-스포츠 및 문화활동	-100
	여가 및 문화-신문 및 서적	0
	음식업 및 여행업	-100
	기타(보건, 통신, 교육 포함)	0

자료: del Rio-Chanona, R. M., Mealy, P., Pichler, A., Lafond, F., & Farmer, J. D. (2020). Supply and demand shocks in the COVID-19 pandemic: an industry and occupation perspective 재인용.

Brinca, Duarte & Faria-e-Castro(2021), 박창현, 유민정(2020)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Baumeister and Hmilton(2015, 2019)의 연구 방법인 베이지언 벡터자기회귀모형(Structural Vector Auto Regression)을 이용하여 각각 미국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가져온 수요와 공급 충격을 산업별로 추정하여 식별하였다. 다만 전자의 경우 공급충격이 지배적이었다는 결론을 도출한 반면, 후자는 오히려 수요충격이 지배적이었다는 상이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Patnaik(2022)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인도의 산출물 시장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Brinca et al.(202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수요충격이 지배적이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수요와 공급이 가격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수요와 공급 변화의 중요성을 추정하였다. 수요변화에 대한 대리변수는 기업의 주문기록(order backlog)을 사용하였고 공급변화에 대한 대리변수는 중간재 및 최종재의 공급부족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회귀분

석을 통해 각각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수요측 요인이 코로나 19의 지배적인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수요충격과 공급 충격을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각각 추정한 연구들(del Rio-Chanona et al., 2020; Muellbauer, 2020; OECD, 2020)과 구조모형을 통하여 수요충격과 공급충격을 식별한 연구들(Brinca et al., 2021; Patnaik, 2022; 박창현, 유민정, 2020)로 나눌 수 있다. 해외의 주요 연구들이 공급측 요인이 지배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반면 독일을 대상으로 한 Baller et al.(2020)의 연구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박창현, 유민정 (2020)의 연구는 수요측 요인이 보다 지배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여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이 국가별로 차별적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코로나19 초기 우리나라의 감염자 수가 해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통제되는 상황이었던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초기대응이 폐쇄(lockdown)보다는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 조치에 집중되었던 점에서 해외사례와는 다른 독자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2. 수요충격 추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인 수요충격을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비지출의 감소 비율로 정의하였다. 소비지출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2019년도 2분기와 2020년도 2분기 자료를 사용하여 전년 동기대비 변화율로 수요충격을 추정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초기의 수요충격은 3월과 4월에 집중되었다(Brinca et al., 2021; 박창현 · 유민정, 2020). 그러나 통계청의 해당자료는 분기 단위

로만 공개되어 있어 소비월을 식별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사분기와 2사분기 자료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선행연구에서 3월보다는 4월에 수요충격이 보다 컸고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해외의 사례보다 비교적 양호했던 점을 고려하여 1사분기 보다는 2사분기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Brinca et al.(2021)에 따르면 5월부터는 코로나19 충격의 반등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황이 이와 같다면, 본 연구의 수요충격 추정치는 초기의 수요충격을 과소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초기수요충격의 하한(lower bound)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분기라는 기간이 수요충격으로 인한 고용감소 및 임금하락이 가구의 소득하락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소비하락을 가져오는 2차적인 효과까지 발생하기 충분한 기간이라 한다면, 이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초기의 수요충격을 과대추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정의 1단계는 가구의 소비지출 세부항목과 산업을 연계시키는 작업이다. 연구자가 아는 한 이에 대한 선행연구나 연계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자의 수작업을 통해 표준산업분류 및 국세청(2019) 자료를 참조하여 산업소분류 수준에서 각 소비지출항목과 연계하였다.²⁾ 산업소분류와 소비지출항목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 복수의 항목을 연계하기 위한 가중치는 소비지출액을 가중치로 하여 연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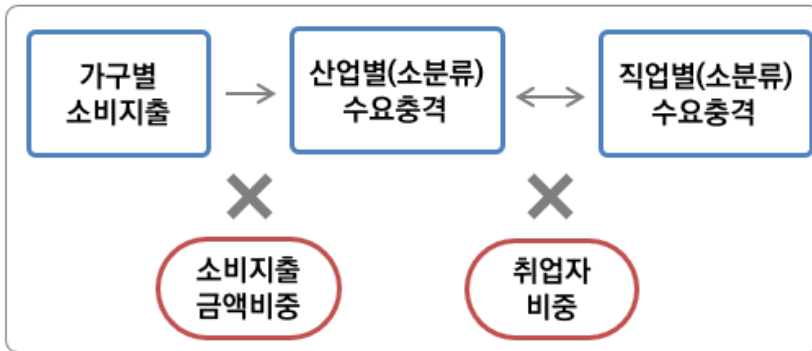
2단계는 산업소분류와 소비지출항목의 연계 결과를 근거로 산업소분류별 소비지출의 변화율을 추정하였다. 가구별 소비지출 항목과 연계되지 않는 산업은 수요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3단계는 산업소분류별 자료를 직업소분류와 연계하여 직업소분류별 소비변화율을 추정하는 작업이다. 산업소분류별 자료를 직업소분류별로

2) 본 연구에서 작성한 연계표는 〈부표 1〉에 수록하였다.

전환하기 위한 가중치는 직업별로 산업별 취업자 비중을 사용하였다. 산업별·직업별 취업자 가중치는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B형 2019년도 하반기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의 주기가 반기이고 2020년도 상반기 자료를 사용할 경우 수요충격으로 인한 고용변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수요충격의 효과와 이로 인한 결과인 고용조정 효과의 섞이기 때문에 수요충격의 영향을 받기 직전인 2019년도 하반기 취업자 비중을 사용하였다. 또한 산업과 직업의 소분류 수준이 아닌 그 이상의 수준으로 총계할 때 또한 이 취업자 비중을 사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한 후 총계하였다. 이상과 같은 절차를 요약하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코로나-19의 수요충격 추정 절차



자료: 저자 작성

3. 수요충격 추정 결과

먼저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 자료를 사용하여 수요충격을 산업별로 추정한 결과를 대분류별로 제시하면 <표 2-2>와 같다. 분석 결과 코로나 19의 수요충격은 교육서비스업의 수요가 45.24%가 감소하여 가장 컸으며,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3.5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

비스업 -15.90%, 금융 및 보험업 -11.48%, 숙박 및 음식점업 -3.45% 순이었다. 주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코로나19의 수요충격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보다 교육서비스업이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업종의 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숙박 및 음식점의 경우 일정 정도 필수적인 소비를 구성하는 반면 교육서비스업이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소비의 필수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소비지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2〉 산업대분류별 수요충격 추정결과

(단위: %)

산업대분류	수요변화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17.11
광업(05~08)	0.00
제조업(10~34)	13.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7.7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7.25
건설업(41~42)	8.16
도매 및 소매업(45~47)	6.88
운수 및 창고업(49~52)	1.33
숙박 및 음식점업(55~56)	-3.45
정보통신업(58~63)	2.68
금융 및 보험업(64~66)	-11.48
부동산업(68)	1.4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0.0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8.9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0.00
교육 서비스업(85)	-45.2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15.9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33.5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2.37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0.00
국제 및 외국기관(99)	0.00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2019년 2분기, 2020년 2분기 원자료; 통계청. (2019) 지역별고용조사 2019년 하반기 원자료.

산업별로 작성한 수요충격을 직업별로 전환하여 대분류 수준에서 집계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직업별로 가장 코로나19의 수요충격이 크게 발생한 분야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서 12.8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의 상당수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종사자가 -10.47%로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큰 수요충격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사무종사자와 단순노무자도 각각 -1.85%, -1.61%의 수요충격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2-3> 직업대분류별 수요충격 추정결과

(단위: %)

직업대분류	수요변화
관리자	-6.5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2.85
사무 종사자	-1.85
서비스 종사자	-10.47
판매 종사자	6.7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6.2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9.8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70
단순노무 종사자	-1.61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2019년 2분기, 2020년 2분기 원자료; 통계청. (2019) 지역별고용조사 2019년 하반기 원자료.

4. 소결

본 절에서는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가져온 수요충격을 추정하였다. 먼저 가계의 소비지출 자료를 산업 소분류 수준에서 그 변화를 측정하여 산업별 수요변화를 계산하였다. 이를 다시 직업 소분류 수준으로 전환하여 직업별 수요변화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산업별로는 교육서비스업의 수요충격이 가장 컸으며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의 충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사무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순으로 코로나19에 수요측면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재택가능성 지수

재택근무가 빠르게 확산되며 직업의 재택가능성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직업별 재택가능성을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인 Dingel & Neiman(2020)의 연구는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의 경제적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재택근무 가능성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세부 직업별 재택근무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세부 직업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다룬 O-NET(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 이하 O-NET)을 이용하여 업무(일)의 재택가능성을 측정하고, 미국 전체 노동시장에 적용해 미국 노동시장 일자리의 재택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일자리의 37%가 재택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유연근무 중 재택근무가 빠르게 증가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임금근로자 중 재택 및 원격근무 활용자는 2019년 0.8%에 불과했으나 2020년 4.4%, 2021년 9.9%까지 증가해 재택근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저자분석). 따라서 우리나라도 직업별 재택근무 가능성 연구가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직업의 재택가능성 지수를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인 Dingel & Neiman(2020)의 방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서 재택근무 가능한 일자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세부 직업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다룬 O-NET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직업정보시스템(KNOW)을 이용해 분석하도록 한다.

1. 미국의 재택가능성 지수

미국의 직업사전을 이어받은 O-NET은 미국 경제에 적용되는 약 1,100여 개의 직업에 관한 수백 개의 표준화된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각 직업에 대하여 직업의 작업특성, 직업에 입문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그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knowledge), 능력(ability), 기술(skill),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정보, 그리고 임금과 고용과 같은 노동시장의 정보 등을 총체적으로 제공한다. O-NET은 근로자 특성(능력, 흥미, 근로 가치관 등), 근로자 요건(교육, 지식, 기초 기술, 범용 기능의 기술 등), 경험 요건(훈련, 경험, 자격 등), 직업 요건(일반 근로 활동, 업무 환경, 조직 환경 등), 직업-특수요건(과제, 임무, 직업적 기술과 지식, 기계, 도구 및 장비 등), 직업특성(노동 시장 정보, 직업 전망, 임금 등) 등 6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정성미, 2020, pp. 22-23). 세부 직업별로 약 25~30명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응답자는 각 질문에 대하여 본인의 직업에서 요구되는 중요성과 필요 능력 수준이 어느정도 요구되는지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Dingel & Neiman(2020)은 O-NET의 직업에 관한 정보 중 신체 및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일의 영역인 “업무환경(Work Context)”과 정보입력,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정신적 과정 및 작업 결과와 연관된 “업무활동(Generalized Work Activities)”을 이용하였다. 각 영역에서

활용한 질문은 <표 2-4>에 요약되어 있다. 업무환경과 관련하여 개별 직업별 이메일 사용 정도, 폭력적인 사람을 상대하는 정도, 근무환경이 야외이거나 질병 및 감염병, 상처 등에 노출 정도, 걷거나 뛰는 활동여부, 안전장비 착용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활동 관련하여 일반적 신체활동 정도, 물건을 다루거나 옮기는 정도, 기계를 다루고 프로세스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서비스 등 사람을 상대하는 능력, 기계 및 전자장비의 수리, 유지 등의 능력, 장비의 검사능력 등에 관한 중요성을 묻고 있다.

Dingel & Neiman은 각 직업에 대해 응답한 25~30명의 응답값의 중위값을 이용했으며, 중위 응답값이 <표 2-6>에 해당하는 경우 집에서 업무(일)을 수행할 수 없다고 정의했다. 즉, 각 직업의 중위 응답값이 질문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해 ‘0=재택가능’, ‘1=재택불가’ 값을 설정하였다.

<표 2-4> Dingel & Neiman(2020)에서 활용한 O-NET의 질문영역

영역	활용한 질문
업무환경 (Work Context)	한달에 한번 미만으로 이메일 사용
	폭력적인 사람을 주 1회 이상 상대
	매일 야외에서 일함
	주1회 이상 질병이나 감염에 노출
	최소 주1회 가벼운 화상, 베인상처, 물림 또는 찰에 노출
	걷거나 뛰는 데 대부분 시간을 씀
	특수보호장비 또는 안전장비 착용
업무활동 (Generalized Work Activities)	일반적 신체활동이 매우 중요함
	물건을 다루고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함
	제어기계 및 프로세스(컴퓨터나 차량이 아님) 능력이 매우 중요함
	차량, 기계화 장치 또는 장비를 작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대중을 위해 공연하거나 대중과 직접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식당, 상점의 고객 포함)
	기계 장비의 수리·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함
	전자 장비의 수리·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함
	장비, 구조 또는 검사가 매우 중요함

자료: O*NET 홈페이지, O-NET 질문. <https://www.onetonline.org/find/descriptor/browse/4.A/4.A.1>에서 2022년 9월 10일 인출하여 재구성.

이렇게 작업한 세부 직업별 재택가능여부는 미국 전체 노동시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약1,100개의 직업의 재택가능여부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O-NET으로 분석한 재택가능여부 분석결과를 미국 전체 노동시장을 대표하는 미국통계국(BLS)의 노동시장 정보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O-NET 직업 코드(8자리)와 BLS 직업 코드(6자리) 매칭을 위해 O-NET 직업 코드 8자리를 6자리로 변환해야 하는데, O-NET 직업별 응답 값을 응답자 수로 가중평균하여 재택가능성 지수로 계산하였고 이를 통해 직업 6자리로 변환하였다. 이렇게 되면 특정 직업의 재택가능성 값은 0과 1이 아닌 0~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이들은 이러한 분석 결과의 민감성을 확인하기 위해 직업 5자리 기준으로 재택가능성 값을 0, 0.5, 1로 수동할당한 후 평균 값을 이용해 O-NET 결과를 5자리 수준에서 비교한 결과 85%에서 일치했으며, 일치하지 않은 직업에서도 0.5보다 큰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인들의 분석결과에 안정성을 검증했다. 이후 Dingel & Neiman은 6자리로 변환된 O-NET과 BLS의 고용자료와 결합해 각 직업의 취업자 수를 가중치로 이용하여 각 직업의 재택가능성에 따른 취업자 비중을 계산하였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 미국 노동시장 전체 일자리의 약 37%가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우리나라의 재택가능성 지수-미국의 방식을 적용

본 절에서는 Dingel & Neiman(2020)의 분석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우리나라 직업정보시스템(Korea Network for Occupations and Workers: 이하 KNOW)을 이용하여 재택가능성 지수를 생성해보도록 한다.

KNOW는 O-NET을 벤치마킹해 만들었다. 2001년 직업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직업 중 100개 직업을 대상으로 6,000명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최근 약 600개 이상 직업의 상세 업무 및 특성, 숙련 요구조사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각 직업당 약 30명 정도에게 배포해 업무의 특성과 숙련요구를 조사한다. 조사영역은 크게 업무수행능력 및 가치관(A), 지식 및 성격(B), 업무환경 및 흥미(C), 업무활동(D)으로 네 부분으로 나뉜다(정성미, 오은진, 노우리, 2020, 30).

KNOW는 세부 직업에 대해 시의성 있는 조사를 통해 직업별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O-NET과 마찬가지로 다루는 직업의 범위와 대표성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든 단점이 있다. 또한 O-NET은 표준직업분류를 바탕으로 8자리까지 조사하는데 비해 KNOW는 6자리까지의 직업을 조사해 연계가능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4자리 수준을 제공하고 있어 다른 자료와의 연계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 KNOW가 O-NET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조사영역을 일부 통폐합하고 부분적으로 조사하는 등의 차이를 두어 엄밀하게 O-NET의 조사와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부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 등의 직무정보를 세세하게 담고 있는 자료는 KNOW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KNOW를 활용하여 재택근무가능성 지수를 미국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추정해보고자 한다.

먼저, KNOW의 영역 중 O-NET의 업무환경(Work Context)과 업무활동(Generalized Work Activities) 영역과 동일한 영역의 동일한 질문을 활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2-5>와 같다. 업무환경 영역의 질문은 문구의 차이가 있을 뿐 O-NET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하게 매칭되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업무활동 영역의 질문에는 차이가 있으며 O-NET의 질문과 동

일하지 않아 최대한 유사한 질문으로 대체하였다. 먼저 일반적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은 신체의 중요성과 가장 유사한 ‘신체적 강인성’ 질문을 활용하였다. 또 물건을 다루고 옮기는 것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은 ‘움직임 통제’ 질문으로 대체하였다. 또 제어기계 및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묻는 항목은 직업정보시스템에 없으며, 기계 및 전자장비의 수리의 중요성을 각각 묻는 질문이 있지 않아 ‘조작 및 통제 능력의 중요성’으로 대체했다. 기계 및 전자장비의 수리·유지의 중요성도 나누어져 있는 질문이 없어서 ‘장비의 유지능력의 중요성’ 질문으로 대체했다. 마지막으로 장비 구조 검사의 중요성 질문도 동일한 질문이 없어서 ‘고장의 발견·수리 능력의 중요성’ 문항으로 대체하여 활용하였다.

〈표 2-5〉 직업정보시스템(KNOW) 조사 항목 중 업무환경 및 업무활동에서 활용한 질문

영역	활용한 질문
업무환경	【이메일 이용하기】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이메일을 이용하십니까?
	【불쾌하거나 무례한 사람 상대】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쾌하거나, 화나거나 혹은 무례한 사람을 얼마나 자주 상대하십니까?
	【실외 근무】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실외에서 근무하십니까?
	【질병 혹은 감염 위험 노출】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질병 혹은 감염 위험이 있는 환경(환자 돌봄, 실험실 근무, 위생관리 등)에서 근무하십니까?
	【경미한 화상, 자상, 찢림 등 노출】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경미한 화상, 자상 혹은 찢림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십니까?
	【걷거나 뛰기】귀하는 업무 중 얼마나 걷거나 뛰면서 근무하십니까?
업무활동	【보호장비 착용】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호장비(안전화, 보안경, 장갑, 귀마개, 안전모, 구명조끼, 전신보호복 등)를 얼마나 자주 착용하십니까?
	귀하의 업무를 수행하려면【신체적 강인성】능력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하의 업무를 수행하려면【움직임 통제】능력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하의 업무를 수행하려면【조작 및 통제】능력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하의 업무를 수행하려면【서비스지향】능력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하의 업무를 수행하려면【장비의 유지】능력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하의 업무를 수행하려면【고장의 발견·수리】능력은 얼마나 중요합니까?비의 수리·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제공자료(직업정보시스템(KNOW) 조사 항목)

완전하게 동일한 질문으로 대체가 어려웠지만, 직업정보시스템(KNOW)의 유사한 질문으로 Dingel & Neiman이 적용한 질문을 선정하였다. 직업정보시스템(KNOW)의 질문도 각 직업당 30명 안팎의 응답자가 응답을 하는데,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응답값의 중위값을 이용해 각 질문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해 ‘0=재택가능’, ‘1=재택불가’ 값을 설정하였다. 이때, KNOW 직업 코드(4자리)와 지역별고용조사 코드(3자리) 매칭을 위해 지역별고용조사 직업 코드에 맞게 KNOW 응답자 수를 가중평균하여 매칭하였다. 이렇게 하면 각 직업별 재택가능성 점수가 0~1 값으로 할당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비중이 35.1%로 추정되어 미국과 유사한 수준(37%)으로 나타났다³⁾. 재택가능지수가 0.5 이상인 경우로 좁혀보면 28.3%의 일자리가 재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완전 재택이 가능한 경우는 14.2%로 추정되었다. 사무직에서 재택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전문직과 관리직이 잇는다. 그 외 직업에서는 재택근무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본 분석결과는 KNOW 자료의 한계, 지역별고용조사와 연계과정에서 자료손실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재택가능 일자리 비중 35%라는 수치에 대하여 제한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표 2-6〉 직업별 분석결과

(단위: %)

구분	재택불가 (home=0)	낮은 재택가능 (0<home<0.5)	재택가능 (0.5≤home<1)	완전재택가능 (home=1)
관리직	44.3	25.1	30.6	15.2
전문직	28.9	28.8	42.3	4.5
사무직	2.2	0.0	97.8	74.5
서비스직	94.0	0.0	6.0	0.0
판매직	100.0	0.0	0.0	0.0
농림어업숙련	100.0	0.0	0.0	0.0
기능직	94.4	5.6	0.0	0.0
기계조립	98.4	0.0	1.6	0.0
단순노무	91.6	0.0	8.4	0.0
전체	64.9	6.8	28.3	14.2

주: 지역별고용조사와 직업정보시스템(KNOW) 매칭 자료를 저자가 분석
 자료: 통계청. (2021).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제공자료(직업정보시스템(KNOW) 조사 항목)

산업과 직종을 교차분석해보면, 숙박음식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여가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사무직의 재택근무가 가능한 취업자 비중은 9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관리직은 교육서비스업에서 재택가능성이 높고, 과학기술서비스업, 여가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에서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산업별 관리직의 상대수는 재택가능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직은 상대적으로 관리직 보다는 재택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가서비스업, 부동산업에서 거의 100%로 나타났고, 그 외 산업별 차이가 있지만 50~7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판매직, 농림어업숙련업, 기능직에서는 재택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산업과 직업 교차 분석결과

(단위: %)

구분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숙련	기능직	기계조립	단순노무
농림어업	0.0	12.7	100.0	0.0				0.0	0.1
광업	0.0	63.4	97.7	0.0				0.0	6.0
제조업	30.2	40.1	99.9	1.6				2.8	2.0
전기가스	14.5	32.3	98.1	0.0				0.0	11.3
수도, 폐기물	28.8	70.7	99.5	0.0				0.0	2.9
건설업	6.2	75.2	99.6	0.0				0.0	1.0
도소매	9.4	66.0	99.4	2.9				0.6	0.4
운수창고	6.7	17.8	97.7	0.4				0.0	0.9
숙박음식	1.8	7.5	75.1	0.0				0.0	0.3
정보통신	45.0	39.2	99.2	0.0				24.2	5.0
금융보험	3.1	77.1	99.6	0.0				0.0	9.6
부동산	3.3	99.0	99.6	0.0				0.0	61.1
과학기술	51.3	58.1	99.4	0.0				36.6	7.0
사업서비스	14.6	53.1	91.5	0.1				0.3	20.9
공공행정	42.9	25.9	99.3	85.2				0.0	1.2
교육	98.5	53.8	97.8	1.0				0.0	15.9
보건사회복지	8.2	1.2	83.9	0.0				0.0	0.9
여가서비스	50.2	94.8	83.9	0.0				0.0	13.4
협회등	22.7	8.1	95.6	0.0				0.0	4.0
가구내고용	0.0	0.0	0.0	0.0				0.0	0.6
국제기관	0.0	54.2	98.2	14.4				0.0	0.0

주: 지역별고용조사와 직업정보시스템(KNOW) 매칭 자료를 저자가 분석

자료: 통계청, (2021).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제공자료(직업정보시스템(KNOW) 조사 항목)

재택가능($0.5 \leq \text{home} \leq 1$) 일자리의 직종 2자리로 비중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아래 Dingel & Neiman의 직종 2자리 분석 결과와 정확하게 동일하지는 않지만, 직종 2자리 수준에서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다.

38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근로연령층 사회적 위험의 경험과 대응의 격차

〈표 2-8〉 직업 2자리 분석결과

(단위: %)

구분	직종 2자리	재택가능한 일자리 비중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00.0
32	금융 사무직	100.0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100.0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99.6
12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89.1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85.3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72.9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68.4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61.0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51.9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45.5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44.2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32.4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20.6
2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8.9
11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0.0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0.0
15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0.0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0.0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0.0
42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0.0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0.0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0.0
51	영업직	0.0
5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0.0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0.0
61	농·축산 숙련직	0.0
62	임업 숙련직	0.0
63	어업 숙련직	0.0
71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0.0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0.0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0.0
74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0.0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0.0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0.0
77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0.0

구분	직종 2자리	재택가능한 일자리 비중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0.0
79	기타 기능 관련직	0.0
8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0.0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0.0
83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0.0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0.0
85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0.0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0.0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0.0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0.0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0.0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0.0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0.0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0.0

주: 지역별고용조사와 직업정보시스템(KNOW) 매칭 자료를 저자가 분석
 자료: 통계청, (2021).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제공자료(직업정보시스템(KNOW)
 조사 항목)

재택가능($0.5 \leq \text{home} \leq 1$) 일자리를 직종 3자리까지 확인해 세부 직업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주로 사무직, 교사, 전문직 등 특정 직업이 주로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9〉 직업 3자리 분석결과

(단위: %)

직종 3자리	재택가능한 일자리 비중
전체	28.3
경영 관련 사무원	8.6
회계 및 경리 사무원	3.0
행정 사무원	2.0
학교 교사	1.5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1.3
비서 및 사무 보조원	1.2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1.1
금융 사무 종사자	1.1

40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근로연령층 사회적 위험의 경험과 대응의 격차

직종 3자리	재택가능한 일자리 비중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1.0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0
디자이너	0.9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0.5
대학교수 및 강사	0.5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0.4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4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0.3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0.3
시각 및 공연 예술가	0.3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0.3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0.2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자	0.2
유치원 교사	0.2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0.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0.2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0.2
인쇄 및 사진 현상 관련 기계 조작원	0.2
기타 교육 전문가	0.2
환경공학·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시험원	0.1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0.1
통계 관련 사무원	0.1
문화·예술 관련 기획자 및 매니저	0.1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0
문화·예술 관련 관리자	0.0

주: 지역별고용조사와 직업정보시스템(KNOW) 매칭 자료를 저자가 분석
 자료: 통계청, (2021).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제공자료(직업정보시스템(KNOW) 조사 항목)

〈표 2-10〉 미국의 직업군별 재택근무가능 수준

Occupation		O'NET -derived baseline	Manual assignment
15	Computer and Mathematical Occupations	1.00	1.00
25	Education, Training, and Library Occupations	0.98	0.85
23	Legal Occupations	0.97	0.84
13	Business and Financial Operations Occupations	0.98	0.92
11	Management Occupations	0.97	0.84
27	Arts, Design, Entertainment, Sports, and Media Occupations	0.76	0.57
43	Office and Administrative Support Occupations	0.65	0.51
17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Occupations	0.61	0.88
19	Life, Physical, and Social Science Occupations	0.54	0.36
21	Community and Social Service Occupations	0.37	0.50
41	Sales and Related Occupations	0.28	0.21
39	Personal Care and Service Occupations	0.26	0.00
33	Protective Service Occupations	0.06	0.00
29	Healthcare Practitioners and Technical Occupations	0.05	0.06
53	Transportation and Material Moving Occupations	0.03	0.00
31	Healthcare Support Occupations	0.02	0.00
45	Farming, Fishing, and Forestry Occupations	0.01	0.00
51	Production Occupations	0.01	0.00
49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ccupations	0.01	0.00
47	Construction and Extraction Occupations	0.00	0.00
35	Food Preparation and Serving Related Occupations	0.00	0.00
37	Building and Grounds Cleaning and Maintenance Occupations	0.00	0.00

자료: Dingel, J. I., & Neiman, B. (2020). How many jobs can be done at home?, 3 재인용.

참고로 재택가능($0.5 \leq \text{home} \leq 1$) 일자리를 산업 대분류 확인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Dingel & Neiman의 결과와 비교한 결과, 재택이 가능한 일자리 비중과 관련 산업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근로연령층 사회적 위험의 경험과 대응의 격차

〈표 2-11〉 산업별 재택가능 일자리비중 분석결과

(단위: %)

산업	비율
부동산업	76.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7.6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1.6
금융 및 보험업	54.2
교육 서비스업	5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9.4
정보통신업	48.3
국제 및 외국기관	43.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9.6
제조업	31.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0.9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0.4
광업	23.0
도매 및 소매업	22.3
건설업	20.8
운수 및 창고업	15.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4.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1
숙박 및 음식점업	1.2
농업, 임업 및 어업	0.7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0.5

주: 지역별고용조사와 직업정보시스템(KNOW) 매칭 자료를 저자가 분석
자료: 통계청, (2021).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제공자료(직업정보 시스템(KNOW) 조사 항목)

〈표 2-12〉 Dingel & Neiman(2020)의 재택근무 가능한 산업별 취업자 비중

(단위: %)

구분	가중치 적용×	가중치 적용○
Educational Services	0.83	0.71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0.80	0.86
Management of Companies and Enterprises	0.79	0.86
Finance and Insurance	0.76	0.85
Information	0.72	0.8
Wholesale Trade	0.52	0.67
Real Estate and Rental and Leasing	0.42	0.54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0.41	0.47
Utilities	0.37	0.41
Other Services (except Public Administration)	0.31	0.43

구분	가중치 적용×	가중치 적용○
Administrative and Support and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Services	0.31	0.43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0.30	0.36
Mining, Quarrying, and Oil and Gas Extraction	0.25	0.37
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0.25	0.24
Manufacturing	0.22	0.36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0.19	0.25
Construction	0.19	0.22
Retail Trade	0.14	0.22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and Hunting	0.08	0.13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0.04	0.07

주: O'NET에서 추출한 재택근무 가능한 직업 분류, BLS에서 추출한 직업 구성을 활용
 자료: Dingel, J. I., & Neiman, B. (2020). How many jobs can be done at home? 4, 재인용.

3. 우리나라의 재택가능성 지수-KNOW의 질문을 적용

그런데 Dingel & Neiman(2020)이 선택한 업무환경 영역과 업무활동 영역의 수많은 문항 중 선택한 질문(17개)의 선정 기준이나 선택 이유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해당 질문을 선택한 근거나 관련 문헌 없이 바로 O-NET의 17개의 질문을 사용하고 있다. 저자가 선택한 질문을 바로 우리나라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재택가능성 지수 계산이 될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방법론은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직업정보시스템(KNOW)의 업무환경 영역과 업무활동영역의 질문들을 검토해 새롭게 적용해보는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직업정보시스템(KNOW)의 업무환경영역의 질문은 총 49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Dingel & Neiman(2020)이 선택한 질문과 유사하지만 우리나라의 재택근무여부와 더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질문 13개를 선택했고, 업무수행영역은 총 44개 질문 중 7개의 질문을 택해 재택가능성지수를 추정해보도록 한다.

44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근로연령층 사회적 위험의 경험과 대응의 격차

〈표 2-13〉 직업정보시스템(KNOW)의 업무환경 질문

구분	업무환경-5점 척도
대인 관계	1. 【사람들과 직접 접촉】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십니까?
	2. 【연설, 발표, 회의하기】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연설(발표, 회의 등의 상황)을 하십니까?
	3. 【전화 대화하기】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전화로 대화하십니까?
	4. 【이메일 이용하기】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이메일을 이용하십니까?
	5. 【공문, 문서 주고받기】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공문이나 문서를 주고받습니까?
	6. 【다른 사람과의 접촉】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과 얼마나 자주 접촉하니까(전화, 대면, 메신저 등)?
	7.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귀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팀이나 집단으로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8. 【외부 고객 대하기】귀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고객 혹은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9. 【다른 사람들을 조율하거나 이끌기】귀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자 혹은 팀장으로서가 아니라 업무 특성상) 다른 사람들을 조율하거나 이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10.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책임】귀하는 함께 근무하는 사람의 건강 및 안전에 얼마나 책임이 있습니까?
	11. 【결과에 대한 책임】귀하는 직장 동료의 업무 성과와 결과에 얼마나 책임이 있습니까?
	12. 【갈등 상황】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됩니까?
	13. 【불쾌하거나 무례한 사람 상대】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쾌하거나, 화나거나 혹은 무례한 사람을 얼마나 자주 상대하십니까?
물리적 환경	14. 【실내 근무】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실내에서 근무하십니까?
	15. 【실외 근무】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실외에서 근무하십니까?
	16. 【움직이는 기계】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움직이는 기계(자동차, 트랙터 등)에서 근무하십니까?
	17.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신체적으로 얼마나 가까이에서 근무 하십니까?
	18. 【소음 노출】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산만하거나 불안할 정도의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근무 하십니까?
	19. 【매우 춥거나 더운 기온】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매우 덥거나(섭씨 32도 이상) 추운(섭씨 0도 이하) 온도에서 근무하십니까?
	20. 【극단적으로 밝거나 부적절한 조명】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극단적으로 밝거나 부적절한 조명에서 근무하십니까?
	21. 【오염물질 노출】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오염물질(가스, 먼지, 악취 등)이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십니까?

구분	업무환경-5점 척도
	22. 【비좁은 업무 공간】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불편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비좁은 공간에서 근무하십니까?
	23. 【온몸 진동 노출】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온몸으로 진동을 느끼는 환경(예, 수동 드릴이나 혹은 착압기 작동)에서 근무하십니까?
	24. 【질병 혹은 감염 위험 노출】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질병 혹은 감염 위험이 있는 환경(환자 돌봄, 실험실 근무, 위생관리 등)에서 근무하십니까?
	25. 【고지대 작업】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지대(높은 기둥, 건축공사 때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장치, 건물 밖이나 다리 등에 만들어져 있는 좁은 보행자용 통로, 2.5미터 이상의 사다리 등)에서 얼마나 자주 근무하십니까?
	26. 【위험한 상태 노출】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위험한 환경(고압 전류, 가연성 물질, 폭발물, 화학물 등)에서 근무하십니까?
	27. 【위험한 장비 노출】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위험한 장비(톱, 움직이는 기계나 장비)가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십니까?
	28. 【경미한 화상, 자상, 찢림 등 노출】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경미한 화상, 자상 혹은 찢릴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십니까?
	29. 【앉아서 근무】귀하는 업무 중 얼마나 앉아서 근무하십니까?
	30. 【서서 근무】귀하는 업무 중 얼마나 서서 근무하십니까?
	31. 【걷거나 뛰기】귀하는 업무 중 얼마나 걷거나 뛰면서 근무하십니까?
	32. 【균형을 유지하기】귀하는 업무 중 얼마나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근무하십니까?
	33. 【몸을 구부리거나 비틀기】귀하는 업무 중 얼마나 몸을 구부리거나 비틀면서 근무하십니까?
	34. 【사물, 도구, 조종 장치를 다루기 위해 손사용】귀하는 업무 중 물건, 도구 혹은 조절 장치를 얼마나 손으로 만지고 다루십니까?
	35. 【보호장비 착용】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호장비(안전화, 보안경, 장갑, 귀마개, 안전모, 구명조끼, 전신보호복 등)를 얼마나 자주 착용하십니까?
업무 특성	36. 【실수의 심각성】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수를 한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37. 【이미지/평판/재정에 미치는 강도】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나 근무하는 회사의 이미지/평판/재정에 어느 정도의 결과를 초래합니까?
	38. 【이미지/평판/재정에 미치는 영향력】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나 근무 하는 회사의 이미지/평판/재정에 얼마나 자주 영향을 미칩니까?
	39. 【의사결정 가능성】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자나 감독자(상사)의 개입 없이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까?
	40. 【자동화 정도】귀하의 현재 업무는 어느 정도 자동화(기계적 자동화 혹은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41. 【정확성, 정밀성 유지】귀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확도나 정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46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근로연령층 사회적 위험의 경험과 대응의 격차

구분	업무환경-5점 척도
	42. 【반복적인 신체행동, 정신적 활동】귀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체적 행동(예, 컴퓨터 자료 입력)이나 정신적 활동(예, 거래 내역 원장의 확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43. 【의사결정 권한】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야 할 일, 일의 우선순위, 목표를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까?
	44. 【치열한 경쟁】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료 혹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경쟁을 해야 합니까?
	45. 【장비 속도에 보조 맞추기】귀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 혹은 기계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46. 【마감시간】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마감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까?
	47. 【규칙적인 근무】귀하의 업무는 근무 일정이 규칙적입니까?
	48. 【재택근무】현재 상황에서, 귀하의 업무는 재택근무가 가능합니까?
	49. 【주말 및 공휴일 근무】귀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자주 주말 및 공휴일에 출근하십니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제공자료(직업정보시스템(KNOW) 조사 항목)

〈표 2-14〉 직업정보시스템(KNOW)의 업무수행능력 질문

업무수행능력-중요성 5점 척도
1. 【읽고이해하기】업무와 관련된 문서/글을 읽고 이해한다
2. 【듣고이해하기】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한다
3. 【글쓰기】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4. 【말하기】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조리있게 말한다
5. 【수리력】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을 사용한다
6. 【논리적분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혹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낸다
7. 【창의력】주어진 주제나 상황에 대하여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8. 【법주화】기준이나 법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사물이나 행위를 구분하고 나눈다
9. 【기억력】단어, 수, 그림 그리고 절차와 같은 정보를 기억한다
10. 【공간지각력】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다른 대상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어디에 있는지 안다
11. 【추리력】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을 위해 새로운 정보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한다
12. 【학습전략】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가르칠 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한다
13. 【선택적집중력】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자극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일에 집중한다
14. 【모니터링】다른 사람 혹은 조직의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15. 【사람파악】다른 사람의 반응을 파악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한다
16. 【행동조정】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한다

업무수행능력-중요성 5점 척도
17. 【설득】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해시키고 설득한다
18. 【협상】다른 사람과의 의견차이를 좁혀 합의점을 찾는다
19. 【가르치기】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20. 【서비스지향】동료나 고객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1. 【문제해결】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해결방법을 찾고 이를 시행한다
22. 【판단과 의사결정】이득과 손실을 평가해서 결정을 내린다
23. 【시간관리】자신의 시간과 다른 사람의 시간을 관리한다
24. 【재정관리】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파악하고 구체적 소요내역을 산출한다
25. 【물적자원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 시설, 자재 등을 구매하고 관리한다
26. 【인적자원관리】직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능력을 개발하며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한다
27. 【기술분석】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고 기존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되는 도구와 기술을 분석한다
28. 【기술설계】사용자의 요구에 맞도록 장비와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29. 【장비선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나 장비를 결정한다
30. 【설치】작업지시서에 따라 장비, 도구, 배선,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31. 【전산】다양한 목적을 위해 소프트웨어나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32. 【품질관리분석】품질 또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품, 서비스, 공정을 검사하거나 조사한다
33. 【조작및통제】장비 혹은 시스템을 조작하고 통제한다
34. 【장비의 유지】장비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하고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 언제 어떤 종류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를 안다
35. 【고장의 발견,수리】오작동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한다
36. 【작동점검】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시판이나 계기판 등을 살펴본다
37. 【조직체계의 분석 및 평가】조직 내·외부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가 조직의 체계, 구성,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38. 【정교한 동작】손이나 손가락을 이용하여 복잡한 부품을 조립하거나 정교한 작업을 한다
39. 【움직임 통제】신체를 사용하여 기계나 기구를 정확한 위치로 빠르게 움직인다
40. 【반응시간과 속도】신호에 빠르게 반응하거나 신체를 신속히 움직인다
41. 【신체적 강인성】물건을 들어 올리고, 밀고, 당기고, 운반하기 위해 힘을 사용한다
42. 【유연성 및 균형】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각 부위를 구부리고 편다
43. 【시력】먼 곳이나 가까운 것을 보기 위해 눈을 사용한다
44. 【청력】소리의 높낮이와 크기의 차이를 구분한다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제공자료(직업정보시스템(KNOW) 조사 항목)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재택근무지수를 위해 활용한 KNOW의 질문은 아래의 표와 같다. Dingel & Neiman(2020)의 분석방법론을 동일하

게 적용하였다. 선정한 총 20개의 질문에 대해 각 직업별 응답자 약 25~30명의 응답 중 중위값을 이용했으며, 측정값이 <표 2-15>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집에서 업무(일)을 수행할 수 없다고 정의했다. 즉, 각 직업의 중위 응답값이 질문의 기준 점수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해 '0=재택가능', '1=재택불가' 값을 설정하였다.

<표 2-15> 직업정보시스템(KNOW)을 이용한 측정 방법

영역	활용한 질문
업무환경-5점 척도	한달에 한번 미만으로 이메일 사용(2점 이하)
	외부고객 및 민원인 대하기 중요성(4.5점 이상)
	주1회 이상 야외에서 일함(4점 이상)
	자동차 등 운행업무 주1회 이상(4점 이상)
	타인과 신체접촉이 있는 곳에서 근무(4점 이상)
	주1회 이상 질병이나 감염에 노출(4점 이상)
	주1회 이상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4점 이상)
	주1회 이상 위험한 장비에 노출(4점 이상)
	업무시간의 절반이상 서서 근무(4점 이상)
	업무시간의 절반이상 걷거나 뛰기(4점 이상)
	주1회 이상 특수보호장비 또는 안전장비 착용(4점 이상)
	자동화(전산화)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음(2점 이하)
	업무의 의사결정권한의 중요성(4점 이상)
업무수행능력-중요성 5점 척도	장비 혹은 시스템 조작 및 통제의 중요성(4점 이상)
	장비에 대한 일상적 유지보수의 중요성(4점 이상)
	기계의 정상 작동 확인의 중요성(4점 이상)
	손을 이용해 정교한 조립 및 작업의 중요성(4점 이상)
	신체를 사용하여 기계기구 움직임의 중요성(4점 이상)
	신호등에 반응 및 신속히 움직이는 것의 중요성(4점 이상)
	물건을 움직이는 신체적 강인성의 중요성(4점 이상)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제공자료(직업정보시스템(KNOW) 조사 항목)

또 KNOW 직업 코드(4자리)와 지역별고용조사 코드(3자리) 매칭을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 직업 코드에 맞게 KNOW 응답자 수를 가중평균하여 매칭하였다. 이렇게 하면 각 직업별 재택가능성 점수가 0~1 값으로 할당된다⁴⁾.

분석 결과 우리나라 재택이 불가능한 일자리 비중은 58.9%, 완전 재택이 가능한 비중은 10.7%로 나타났다. 재택가능지수가 0.5 이상인 경우로 좁혀보면 23.7%의 일자리가 재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Dingel & Neiman(2020) 분석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3절의 분석 결과 재택가능성 일자리 비중이 약 35%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재택가능한 일자리 비중은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⁵⁾. 그러나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중심으로 재택가능성이 높으며 사무직의 80.8%가 재택가능 한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표 2-16〉 우리나라의 직업별 재택근무 가능 분석결과

(단위: %)

	재택불가 (home=0)	낮은 재택가능 (0<home<0.5)	재택가능 (0.5≤home<1)	완전재택가능 (home=1)	재택가능 (home)≥0.5)
관리직	62.5	0.0	17.4	20.1	37.5
전문직	24.2	36.9	34.7		38.9
사무직	2.2	17.0	26.0	54.8	80.8
서비스직	99.4	0.6			
판매직	28.7	61.9	9.4		
농림어업숙련	100.0	0.0			
기능직	94.4	5.6			
기계조립	100.0	0.0			
단순노무	100.0	0.0			
전체	58.9	17.4	12.9	10.7	23.7

주: 지역별고용조사와 직업정보시스템(KNOW) 매칭 자료를 저자가 분석
 자료: 통계청, (2021).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제공자료(직업정보시스템(KNOW) 조사 항목)

4)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함.

5) 3절의 분석결과 재택 불가능 비중 64.9%, 가능비중 35.1%, 재택가능지수 0.5이상인 경우 28.3%, 완전가능(=1)이 14.2%였음.

재택가능($0.5 \leq \text{home} \leq 1$) 일자리의 직종 2자리 및 3자리 비중을 분석한 결과는 <표 2-17>, <표 2-18>에 요약되어 있다. 주로 전문사무직 중심의 일자리 중심으로 재택근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7> 직업 2자리 분석결과

(단위: 천 명, %)

구분	직종 2자리	취업자	재택가능 취업자	재택가능한 일자리 비중
12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65	65	100.0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61	61	100.0
32	금융 사무직	294	294	100.0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80	80	100.0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110	97	87.5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968	3,163	79.7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391	285	72.9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365	256	70.0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737	400	54.3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147	64	43.2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932	400	42.9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220	453	37.2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545	196	36.0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559	522	33.5
15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71	13	17.8
2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544	48	8.9

주: 1)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은 전부 통신관련판매직(531)임.
 2) 지역별고용조사와 직업정보시스템(KNOW) 매칭 자료를 저자가 분석
 자료: 통계청. (2021).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제공자료(직업정보시스템(KNOW) 조사 항목)

〈표 2-18〉 재택가능성이 있는 직업 3자리 분석결과

(단위: %)

구분	직종 3자리	취업자 대비 비중
312	경영 관련 사무원	8.6
311	행정 사무원	2.0
247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1.8
252	학교 교사	1.5
314	비서 및 사무 보조원	1.2
320	금융 사무 종사자	1.1
399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1.0
231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0
285	디자이너	0.9
531	통신 관련 판매직	0.9
239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4
271	인사 및 경영 전문가	0.3
330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0.3
211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0.3
273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0.2
121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자	0.2
131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0.2
2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0.2
223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0.2
259	기타 교육 전문가	0.2
242	약사 및 한약사	0.1
237	환경공학·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시험원	0.1
282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 관리자	0.1
261	법률 전문가	0.1
262	행정 전문가	0.1
212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가	0.1
391	통계 관련 사무원	0.1
288	문화·예술 관련 기획자 및 매니저	0.1
152	고객 서비스 관리자	0.0
122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0.0
135	정보 통신 관련 관리자	0.0
134	문화·예술 관련 관리자	0.0

주: 1)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은 전부 통신관련판매직(531)임.

2) 지역별고용조사와 직업정보시스템(KNOW) 매칭 자료를 저자가 분석

자료: 통계청. (2021).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제공자료(직업정보시스템(KNOW) 조사 항목)

4. 소결

본 절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가 노동시장 전체 일자리의 어느정도 수준이 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일자리의 재택가능성을 연구한 Dingel & Neiman(2020)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세부직업의 업무환경 및 업무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직업정보시스템(KNOW)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Dingel & Neiman(2020)이 적용한 O-NET 질문을 선택하여 우리나라의 재택이 가능한 일자리 비중을 추정한 결과 약 35.1%로 나타났고, 이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37%)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직업정보시스템(KNOW)의 업무환경 및 업무활동 질문 중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더 맞을 것으로 보이는 총 20개의 질문을 이용하여 재택가능성 일자리 비중을 분석한 결과 23.7%로 추정되어 더 적게 나타났다. 선택된 직업은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중심으로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직업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 2-19〉는 Dingel & Neiman 방식과 KNOW의 질문을 적용한 방식으로 재택근무가능 비중을 분석한 것이다. 직종 2자리 수준에서 유사하거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중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경영 및 회계, 금융, 법률 관련 사무직(31, 32, 33, 12)을 비롯하여 경영지원 마케팅(12)과 상담, 안내, 통계관련 사무직(39)은 재택가능성이 높으며 두 방식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전문서비스관리직(13), 공학전문가 및 기술직(23)은 약 40% 수준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28),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27),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21),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25)은 적

용 질문에 따라 재택가능성에 차이가 컸다.

〈표 2-19〉 직업 2자리 분석결과 비교

(단위 : 천 명, %)

구분	직종 2자리	Dingel & Neiman 방식 적용	KNOW의 질문을 적용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00.0	79.7
32	금융 사무직	100.0	100.0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100.0	100.0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99.6	54.3
12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89.1	100.0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85.3	36.0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72.9	72.9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68.4	87.5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61.0	-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51.9	37.2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45.5	43.2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44.2	42.9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32.4	-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20.6	-
2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8.9	8.9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	100.0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	70.0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33.5
15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	17.8

주: 1)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은 전부 통신관련판매직(531)임.

2) 지역별고용조사와 직업정보시스템(KNOW) 매칭 자료를 저자가 분석

자료: 통계청, (2021).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제공자료(직업정보시스템(KNOW) 조사 항목)

한편 Dingel & Neiman의 방식을 적용하면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41),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89),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94)에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KNOW의 질문을 적용하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다. 또 KNOW의 질

문을 적용했을 경우 재택근무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법률 및 행정전문직(26),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53)을 비롯하여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24),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15)은 Dingel & Neiman의 방식에서는 재택근무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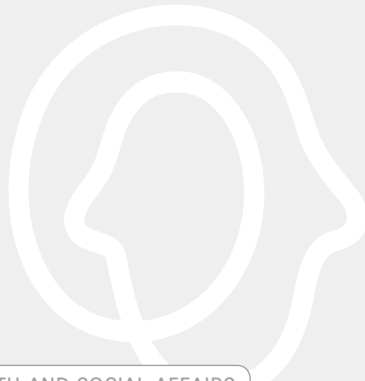
또한 두 방식으로 분석된 재택근무가능성이 있는 직업 중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41),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89),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94)을 비롯하여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53),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24),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15)은 현실적으로 재택근무가 어렵고,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직업에 재택근무 가능한 일자리 비중이 50% 이상 나타난 것은 이상하다.

두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면 직업별 재택근무가능성에 오차가 상당하며 특정 직업의 재택근무가능성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오차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데, 세부직업의 재택가능성을 직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수준으로 추정치를 제시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KNOW의 질문을 적용했을 경우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53)이 포함되었는데 소분류 직업을 확인한 결과 전부 다 통신관련판매직(531)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에서 온라인판매를 하는 직업이 포착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특정 직업의 대표성이 과다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택근무 가능 일자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련 질문 검토를 비롯하여 데이터 적용방법 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상당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연구로 남겨둔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코로나19와 고용취약성

제1절 서론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3장 코로나19와 고용취약성

제1절 들어가며

O’Keefe, Westgate & Wisner(1976)는 “Taking the naturalness out of natural disasters”에서 재해는 자연적 요인(natural factors)보다는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결과라고 주장한다. 실제 여러 경험적 연구들에서는 재해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다르게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Thomas, Phillips, Fothergill, & Blinn-Pike, 2009; Wisner, Blaikie, Cannon, & Davis, 2014; ILO, 2020). 즉 사회경제적 계층, 성별(여성), 연령(아동, 노인), 민족, 장애여부 및 기타 요인에 따라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여 재해 영향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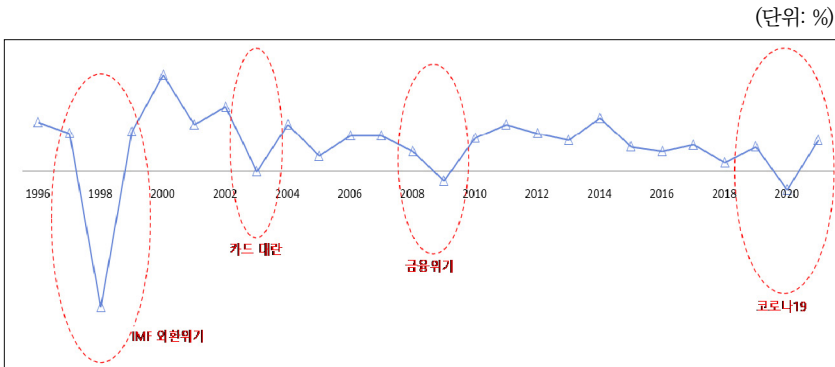
2019년 12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감염(Contagion)과 봉쇄(Containment)로 설명할 수 있다(Miller & Blumstein, 2020). 이 바이러스는 2020년 1월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하여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global pandemic’을 선언했다(Glover, Heathcote, Krueger & Ríos-Rull, 2020). 감염 및 전파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물리적 조치의 국가적 개입이 시작되었고, 이는 필수적인 영업을 제외한 비필수적 영업, 사적 모임 금지 등 시민들의 일상을 단절시켰다. 이는 결국 실업, 고립, 돌봄 공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다. 현재까지도 종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진

코로나19 전염병은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변화(배달증가,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문화활성화)시켰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고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회변화에 사회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수 있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새 위험사회’라는 말이 나오며, 새로운 계층화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불확실성, 불안정성, 비가시성 등은 위험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적 특성으로(Beck, 2019), 불안정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에서의 집단 격차 확대는 새로운 계층화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회안전망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나, 급격한 사회변화에 사회제도가 함께 따라가지 못할 경우 취약계층의 위험도가 훨씬 증가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코로나19 전염병이 노동시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다. 취업자 수 증감률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외환위기 다음으로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ILO(2020)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위기 때 4배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고, 이러한 현상이 여성과 청년에게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Eurofound(2020)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실직자 및 일시 휴직자 비중 증가, 근무시간 감소, 원격근무자 비중 확대, 경제적 양극화 심화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재해는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결과라는 O’Keefe, Westgate & Wisner(1976)처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될수록 그 폐해는 고스란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전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림 3-1]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감률



자료: 통계청. (각 연도). 1996~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작성.

전염병이라는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일자리 종사자들이 받은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Mongey, Pilossoph & Weinberg(2021)의 연구에서는 재택근무 가능성이 낮으며 대면접촉 정도가 높은 직업일수록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더 많이 노출됨에 따라 전염병에 취약한 일자리로 가정, 이러한 코로나19에 취약한 일자리에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즉,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사람들의 분포가 높음을 발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삼일, 이상아(2020)는 비필수 일자리, 비재택근무 일자리, 고대면접촉 일자리를 전염병에 취약한 일자리로 평가, 이러한 취약한 일자리에 저소득, 저학력, 청년, 여성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높음을 확인했다. Cetrulo, Guarascio & Virgillito(2022)는 재택근무 가능 여부가 ICT 사용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직 내부의 노동 분업과 계층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 주목, 실제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의 위험과 성별, 교육수준 등 인적특성이 위험 계층화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은 개인은 실업과 저임금, 질병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여성, 임시계약직은 위험계층화(risk stratification)를 증폭(amplify)시킴을

확인했다.

코로나19로 노동시장에서 민첩하게 대응이 어려웠던 일자리 특성과 그러한 일자리에 속한 사람들 특성을 조망함에 따라 새로운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의 미래에 대한 논의와 대비를 위해 현상 분석이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재해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다르게 영향을 준다는 담론에 주목하여, 코로나19 위기에 민첩하게 대응이 어려웠던 일자리 특성으로 재택근무 가능성, 사람들과의 대면 정도, 필수직 일자리 정보를 활용해 전염병 취약일자리 특성을 우선 살펴본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분절된 중층적 이중구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중구조는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련성이 높다. 새로운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염병 취약일자리와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 인해 전염병 취약일자리가 기존 노동시장 이중구조 조건이 투영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전후의 노동시장에서의 위험 발생(고용감소: 취업자 수, 일시휴직자 수; 소득 감소: 저임금 비율)과 전염병 취약일자리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그로 인해 야기되는 소득 저하는 개인에게 큰 위험으로 작용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노동시장의 악화 과정에서 전염병 취약일자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관련 산업 내에서의 노동시장 구조 변화(고용형태 변동)도 함께 살펴본다. 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전염병 취약일자리라는 특성으로 인해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가 증폭 또는 확대재생산 될 가능성에 대해 추측해보고자 한다.

제2절 분석 방법

코로나19에 민첩 대응이 어려운, 즉 전염병에 취약한 일자리 특성은 산업별·직업별 재택근무 가능성 정도, 대면접촉도, 필수직 여부를 활용해 정의한다. 필수직 여부는 Sanchez, Parra, Ozden & Rijkers(2020), 재택근무 가능 정도는 Dingel & Neiman(2020), 대면접촉도는 Mongey et al.(2021)의 연구결과에서 활용한 방식을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⁶⁾. 한국의 고유 지표를 개발하는 것과 해외 사례 지표를 준용하는 것에 있어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나, 직업 및 산업이라는 것은 국가에 따라 산업화 등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하는 업무 특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참고하는 미국 등 선진국이라면 더욱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해외 문헌들에서도 취약성 지수(index)를 개발하여 다양한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제비교를 수행하고 있다.

Mongey et al.(2021)의 지수 산출 방식을 활용한 대면접촉 지수는 미국 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 서베이에 기반하여 고객 혹은 동료와 일을 하는 물리적 거리 및 질병 노출 위험 정도로 대면접촉 지수를 산출하였다. 직업별 대면접촉 지수 랭킹은 아래 표와 같다.

Dingel & Neiman(2020)의 재택 가능 지수는 미국 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 서베이에 기반하여 이메일 활용 정도, 육체적 활동의 중요성 등 작업 상황에 관한 조사(Work context survey)와 일반 업무 활동 조사(Generalized work activities survey)를 통해 재택가능

6) 오삼일, 이상아(2020)은 Dingel & Neiman(2020), Mongey et al.(2021), Sanchez et al.(2020)의 지수 산출 방식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을 살펴봤다. 분석에 있어 미국표준직업(산업)분류-국제표준직업(산업)분류-한국표준직업(산업)분류 매칭을 통해 한국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오삼일, 이상아(2020)의 직업·산업 분류 방식을 준용하여 살펴본다.

지수를 산출했다. Mongey et al.(2021) 또한 본 보고서 직업분류를 변형해서 재택불가능 지수를 적용했다.

필수직 여부와 관련 활용한 Sanchez et al.(2020)은 산업 특성을 활용하여 실제 행정명령으로 영업제한 혹은 클로징 제한한 산업들을 식별하여,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폐쇄 명령을 받지 않은 산업을 필수직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 3-1〉 Occupation Rankings by Inability to work-from-home & Physical-proximity

Occupation	Rank. Inability to work-from-home	Rank. Physical-proximity
Install/Maintenance/Repair	1	10
Construction/Extraction	2	7
Healthcare supp.	3	1
Production	4	13
Material moving	5	11
Protection services	6	5
Building maintenance	7	16
Transport	8	12
Food prep.	9	4
Farm/Fish/Forest	10	22
Healthcare tech.	11	2
Personal care	12	3
Sales	13	8
Science	14	20
Community/Social	15	9
Office/Admin	16	15
Entertainment/Media	17	14
Management	18	19
Architecture/Engineering	19	18
Business/Financial	20	21
Computer/Math	21	17
Legal	22	23
Education	23	6

자료: Mongey, S., Pilossoph, L., & Weinberg, A. (2021). Which workers bear the burden of social distancing? - APPENDIX, 26.

〈표 3-2〉 재택가능성 측정

Work context survey	Generalized work activities survey
• average respondent says they use email less than once per month • average respondent says they deal with violent people at least once a week • majority of respondents say they work outdoors every day • average respondent says they are exposed to diseases or infection at least once a week • average respondent says they are exposed to minor burns, cuts, bites, or stings at least once a week • average respondent says they spent majority of time waling or running • average respondent says they spent majority of time wearing common or specialized protective or safety equipment	• performing general physical activities if very important • handling and moving objects is very important • controlling machines and processed (not computers nor vehicles) is very important • operating vehicles, mechanized devices, or equipment is very important • performing for or working directly with the public is very important • repairing and maintaining mechanical equipment is very important • repairing and maintaining electronic equipment is very important • inspecting equipment, structures, or materials is very important

자료: Dingel, J. I., & Neiman, B. (2020). How many jobs can be done at home?, 2.

전염병 취약일자리 특성 분류 후 전염병 취약일자리와 성별, 연령, 학력 등 개인 인적, 종사상 지위 등 개인 특성 분포 분석을 살펴본다.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쉬운 직업 중심으로 완전한 형태의 재택근무 실현이 가능하다. 재택근무 활용 및 경험이 고학력, 여성, 사무직 및 전문직이라는 소위 화이트칼라 중심으로 높다는 연구결과 또한 제기되고 있다(오삼일, 이상아, 2020; Mongey et al., 2020).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분절된 중층적 이중구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중구조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 즉 사회계층화 현상의 단면이라고 보는 이중노동시장이론의 관점을 지지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에 있어 귀속적(ascribed) 지위로서의 성, 연령 등과 획득적(achieved) 지위로서의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소득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염병 취약일자리 속성 및 특

성분포에 있어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함에 따라 새로운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염병 취약일자리가 기존 노동시장 이중 구조 조건이 투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전염병 취약일자리 특징들과 노동시장에서의 위험(고용감소: 취업자 수, 일시휴직자 수; 소득 감소: 저임금 비율)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그로 인해 야기되는 소득 저하는 개인에게 큰 위험으로 작용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노동시장의 악화 과정에서 전염병 취약일자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관련 산업 내에서의 노동시장 구조 변화(종사상지위 변동)도 함께 살펴본다. 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전염병 취약일자리라는 특성으로 인해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가 증폭 또는 확대재생산 될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지역별 고용조사(B형, 상반기/하반기)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이다. 2008년부터 시작한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는 지역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료로, 조사대상은 전국 23만 4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별 고용조사(B형)의 경우 '산업직업코드' 소분류까지 공개됨에 따라 대면정도, 재택근무가능성 등의 일자리특성 분류에 적합하며 2013년부터 자료 활용이 가능하여 코로나19 위기 전후의 분포 및 특성 변화 분석에 적합하다.

분석방법은 기초 통계, 회귀분석, 추이 분석을 통해 전염병 취약 일자리 특성 분석과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계성,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전후의 분포 및 특성 변화를 분석한다.

제3절 분석결과

1. 전염병 취약일자리 특성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물리적 봉쇄 조치 시행 시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 자리의 경우 노동공급에 제약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택근무 가능 지수를 [0, 0.25, 0.5, 0.75, 1]의 값으로 부여한 결과 재택근무 가능자 비율은 지수값 0.25~1의 경우 41.2%~41.7%, 지수값 0.5~1의 경우 33.0%~33.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연령층만을 대상으로 분석함에 따라 연령을 15~64세로 제한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기존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전체 연령층으로 확대할 경우 재택근무 가능자 비율(지수값 0.25~1)은 37.6~38.3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Dingel & Neiman(2020)의 미국 재택근무 가능자 비율인 37%와 유사하며, 오삼일, 이상아(2020)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결과인 36%, 김현경(2022)의 한국복지패널로 분석한 재택근무 가능자 비율인 36.8~39.2%와도 거의 유사하다.

전염병 비필수직 산업의 일자리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41.6%~44.2%에 해당한다. 오삼일, 이상아(2020)의 결과인 42%와 유사하며, EU 평균 42%(Sanchez et al., 2020)와도 유사하다. 다음으로 대면접촉도 관련 직업별 대면접촉 지수를 [0, 1]의 값으로 살펴본 결과, 평균 대면 접촉지수는 0.5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들은 직업특성과 산업특성으로 산출한 지수인만큼 연도별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전염병 관련 일자리 특성의 산업, 직업별 특성과 개인·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봄에 있어서 연도별 변화는 생략한다⁷⁾

〈표 3-3〉 재택근무가능지수, 필수직 여부, 대면접촉지수

(단위: %, 0~1)

구분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재택근무가능지수	0	58.7	58.8	58.4	58.7	58.4	58.5	58.4
	0.25	8.4	8.3	8.4	8.3	8.5	8.5	8.6
	0.5	12.0	12.0	12.0	11.8	11.9	11.9	12.0
	0.75	7.1	7.2	7.3	7.1	7.0	6.9	6.7
	1	13.9	13.8	13.9	14.0	14.2	14.3	14.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필수직 여부	비필수	44.2	43.9	42.9	42.4	42.1	41.6	41.6
	필수	55.8	56.1	57.1	57.6	57.9	58.4	58.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면접촉지수	평균	0.564	0.563	0.56	0.560	0.561	0.561	0.560
	표준편차	0.172	0.172	0.171	0.172	0.171	0.172	0.172
	최소	0.195	0.195	0.195	0.195	0.195	0.195	0.195
	최대	0.949	0.949	0.949	0.949	0.949	0.949	0.949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산업별 재택근무 가능 특성⁸⁾을 살펴보면, 재택근무가 가능한 산업⁹⁾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순이다. 재택근무가 어려운 산업¹⁰⁾은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개인 서비스업 순이었다.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쉬운 직업 중심으로 완전한 형태의 재택근무 실현이 가능한 만큼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그리고 원격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업에 서의 재택근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7) 2017~2021년 각 연도별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8) 전염병 취약 일자리 특성을 살펴봄에 있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 농림어업광업, 가구 내 고용활동 산업은 제외하고 살펴본다.

9) 재택근무가능 산업 특성을 살펴봄에 있어 재택근무가능 지수가 0.75 이상인 경우를 재택근무가능 일자리로 식별, 산업별 일자리 비중에 재택근무 지수를 가중치로 곱하여 랭킹을 산출하였다. (예: 전문과학기술 산업의 경우 $(36.4 \times 1) + (14.2 \times 0.75)$)

10) 재택근무 어려운 산업 특성을 살펴봄에 있어 재택근무가능 지수가 0.75 미만인 경우를 재택근무 어려운 일자리로 식별, 산업별 일자리 비중에 재택근무 지수를 가중치로 곱하여 랭킹을 산출하였다. (예: 숙박음식업의 경우 $(97.1 \times 1) + (0.1 \times 0.75) + (1.5 \times 0.5)$)

〈표 3-4〉 산업별 재택근무가능 특성

(단위: %)

구분	0	0.25	0.5	0.75	1	전체
농림어업	98.1	0.9	0.5	0.5	0.1	100.0
광업	5.2	0.3	0.1	0.2	0.0	3.1
제조업	61.5	3.5	17.5	7.8	9.7	100.0
	18.3	7.3	25.6	19.3	12.0	17.4
전기가스	61.4	11.8	13.3	6.5	7.1	100.0
수도	0.9	1.2	1.0	0.8	0.4	0.9
건설업	73.0	9.6	8.5	5.7	3.2	100.0
	9.9	9.0	5.7	6.4	1.8	7.9
도소매	61.7	4.6	11.4	12.8	9.5	100.0
	14.0	7.2	12.7	24.2	9.0	13.3
운수창고	80.7	1.6	13.2	2.7	1.8	100.0
	7.6	1.1	6.1	2.2	0.7	5.5
숙박음식	97.1	0.1	1.5	0.7	0.7	100.0
	13.7	0.1	1.0	0.8	0.4	8.3
정보통신	17.2	6.4	13.4	3.8	59.3	100.0
	1.1	2.7	4.0	2.0	15.2	3.6
금융보험	1.9	40.3	5.7	33.6	18.5	100.0
	0.1	15.0	1.5	15.0	4.1	3.1
부동산	28.5	37.4	17.2	11.4	5.6	100.0
	0.9	7.7	2.5	2.8	0.7	1.7
전문과학	6.9	25.8	16.7	14.2	36.4	100.0
기술	0.6	14.5	6.6	9.5	12.3	4.7
사업시설	67.7	3.7	11.6	4.3	12.7	100.0
관리	5.4	2.0	4.5	2.9	4.2	4.6
공공행정	38.2	49.0	3.1	4.1	5.6	100.0
국방	2.5	22.6	1.0	2.3	1.6	3.9
교육	19.0	6.0	7.0	1.6	66.3	100.0
서비스	2.4	5.2	4.3	1.7	34.4	7.3
보건복지	68.2	2.0	26.2	1.3	2.3	100.0
서비스	9.4	1.9	17.8	1.5	1.3	8.1
예술스포	68.9	5.0	16.1	1.3	8.8	100.0
츠여가	2.2	1.1	2.5	0.4	1.2	1.9
기타개인	74.1	1.7	8.0	13.7	2.5	100.0
서비스	5.5	0.9	2.9	8.4	0.8	4.3
가구내고	98.8	0.0	0.0	0.0	1.2	100.0
용	0.4	0.0	0.0	0.0	0.0	0.3
국제및외	47.1	28.3	19.4	0.3	4.9	100.0
국기관	0.0	0.2	0.1	0.0	0.0	0.1
전체	58.6	8.4	11.9	7.0	14.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산업별 대면접촉 특성을 살펴보면, 고대면접촉 산업은 대면접촉 지수 기준 숙박 및 음식업점, 보건복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순이다. 고대면접촉 일자리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중은 숙박 및 음식업, 보건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사람들과의 접촉이 낮은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이다.

〈표 3-5〉 산업별 대면접촉 특성

(단위: %, 0~1)

구분	저대면	고대면1)	전체	대면접촉지수	
				평균	표준편차
농림어업 광업	97.5	2.5	100.0	0.333	0.075
	6.7	0.1	3.1		
제조업	63.7	36.3	100.0	0.475	0.103
	24.7	11.5	17.4		
전기가스수도	70.7	29.3	100.0	0.490	0.150
	1.4	0.5	0.9		
건설업	36.7	63.3	100.0	0.580	0.152
	6.5	9.1	7.9		
도소매	36.7	63.3	100.0	0.552	0.123
	10.8	15.3	13.3		
운수창고	35.9	64.1	100.0	0.634	0.159
	4.4	6.5	5.5		
숙박음식	4.5	95.5	100.0	0.709	0.114
	0.8	14.4	8.3		
정보통신	89.0	11.0	100.0	0.432	0.101
	7.1	0.7	3.6		
금융보험	58.9	41.1	100.0	0.522	0.156
	4.1	2.3	3.1		
부동산	73.2	26.8	100.0	0.447	0.140
	2.8	0.9	1.7		
전문과학기술	92.7	7.3	100.0	0.391	0.110
	9.7	0.6	4.7		
사업시설 관리	44.9	55.1	100.0	0.542	0.155
	4.6	4.6	4.6		

구분	저대면	고대면1)	전체	대면접촉지수	
				평균	표준편차
공공행정국방	69.3	30.7	100.0	0.485	0.160
	6.0	2.2	3.9		
교육 서비스	24.7	75.3	100.0	0.658	0.152
	4.0	10.0	7.3		
보건복지 서비스	9.9	90.1	100.0	0.718	0.150
	1.8	13.3	8.1		
예술스포츠 여가	30.4	69.6	100.0	0.608	0.169
	1.3	2.4	1.9		
기타개인 서비스	33.5	66.6	100.0	0.674	0.209
	3.2	5.2	4.3		
가구내고용	1.5	98.5	100.0	0.735	0.048
	0.0	0.4	0.3		
국제및외국 기관	57.7	42.3	100.0	0.521	0.159
	0.1	0.0	0.1		
전체	45.0	55.0	100.0	-	-
	100.0	100.0	100.0		

주: 대면접촉지수가 0.5 이상인 경우 고대면접촉으로 식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전염병 발발 상황에서 필수 산업이 아닌 산업에 속하는 일자리의 경우 영업 허용 및 출퇴근 관련 노동공급이 제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및 인원을 제한하였다. 이로 인해 제한된 업종의 일자리 종사자들은 출퇴근 시간과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노동공급이 제한되었다. 비필수직 산업을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의 경우 산업 소분류 기준 모든 산업이 비필수직 산업으로 분류된다. 비필수 산업으로 분류된 산업 중 취업자 규모는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기가스수도, 운수창고, 금융보험, 공공행정국방, 보건복지서비스업은 모두 필수 산업으로 분류된다.

70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근로연령층 사회적 위험의 경험과 대응의 격차

〈표 3-6〉 산업별 필수직

(단위: %)

구분	비필수직	필수직	전체
농림어업광업	2.7	97.3	100.0
	0.2	5.2	3.1
제조업	59.1	40.9	100.0
	24.1	12.4	17.4
전기가스수도	0.0	100.0	100.0
	0.0	1.5	0.9
건설업	7.2	92.8	100.0
	1.3	12.8	7.9
도소매	61.3	38.7	100.0
	19.1	9.0	13.3
운수창고	0.0	100.0	100.0
	0.0	9.7	5.5
숙박음식	100.0	0.0	100.0
	19.4	0.0	8.3
정보통신	49.6	50.4	100.0
	4.2	3.2	3.6
금융보험	0.0	100.0	100.0
	0.0	5.5	3.1
부동산	100.0	0.0	100.0
	4.1	0.0	1.7
전문과학기술	14.1	85.9	100.0
	1.6	7.1	4.7
사업시설관리	73.3	26.7	100.0
	8.0	2.2	4.6
공공행정국방	0.0	100.0	100.0
	0.0	6.8	3.9
교육서비스	38.7	61.3	100.0
	6.6	7.8	7.3
보건복지서비스	0.0	100.0	100.0
	0.0	14.1	8.1
예술스포츠여가	100.0	0.0	100.0
	4.4	0.0	1.9
기타개인서비스	62.2	37.8	100.0
	6.3	2.9	4.3
가구내고용	100.0	0.0	100.0
	0.6	0.0	0.3
국제및외국기관	100.0	0.0	100.0
	0.1	0.0	0.1
전체	42.7	57.3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다음으로 직종별 전염병 취약일자리 특성을 살펴봤다.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업은 서비스, 농림어업숙련,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그리고 단순노무직 등 서비스 및 저숙련 일자리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7〉 직종별 재택근무가능 특성

(단위: %)

구분	0	0.25	0.5	0.75	1	전체
관리직	0.7	25.6	3.1	5.3	65.3	100.0
	0.0	4.7	0.4	1.2	7.2	1.6
전문직	22.6	14.2	9.5	4.8	48.9	100.0
	8.7	37.6	17.8	15.3	78.0	22.4
사무직	0.0	25.5	51.2	17.4	5.9	100.0
	0.0	57.7	81.8	47.2	8.0	19.1
서비스직	100.0	0.0	0.0	0.0	0.0	100.0
	19.7	0.0	0.0	0.0	0.0	11.5
판매직	67.6	0.0	0.0	23.6	8.9	100.0
	12.5	0.0	0.0	36.4	6.9	10.9
농림어업 숙련직	100.0	0.0	0.0	0.0	0.0	100.0
	4.9	0.0	0.0	0.0	0.0	2.9
기능원 및 관련기능	100.0	0.0	0.0	0.0	0.0	100.0
	15.7	0.0	0.0	0.0	0.0	9.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100.0	0.0	0.0	0.0	0.0	100.0
	19.3	0.0	0.0	0.0	0.0	11.3
단순노무직	100.0	0.0	0.0	0.0	0.0	100.0
	19.2	0.0	0.0	0.0	0.0	11.3
전체	58.6	8.4	11.9	7.0	14.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대면접촉 특성 관련 직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그리고 단순노무직 순으로 대면 접촉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 중 고대면접촉 일자리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중은 특정 직종에 집중된 특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72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근로연령층 사회적 위험의 경험과 대응의 격차

〈표 3-8〉 직종별 대면접촉 특성

(단위: %, 0~1)

	저대면	고대면1)	전체	대면접촉지수	
				평균	표준편차
관리직	96.2	3.8	100.0	0.370	0.051
	3.3	0.1	1.6		
전문직	50.6	49.4	100.0	0.561	0.195
	25.2	20.1	22.4		
사무직	85.6	14.4	100.0	0.434	0.098
	36.3	5.0	19.1		
서비스직	0.0	100.0	100.0	0.753	0.078
	0.0	20.9	11.5		
판매직	23.6	76.4	100.0	0.585	0.096
	5.7	15.1	10.9		
농림어업 숙련직	99.2	0.8	100.0	0.330	0.050
	6.3	0.0	2.9		
기능원 및 관련기능	20.6	79.4	100.0	0.611	0.127
	4.2	13.3	9.2		
장치기계조 작 및 조립	36.4	63.6	100.0	0.575	0.145
	9.2	13.1	11.3		
단순노무직	39.5	60.5	100.0	0.589	0.181
	9.9	12.4	11.3		
전체	45.0	55.0	100.0	-	-
	100.0	100.0	100.0		

주: 대면접촉지수가 0.5 이상인 경우 고대면접촉으로 식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비필수직에 따른 직종 특성을 살펴보면, 판매직, 서비스직의 비필수직 비율이 높다. 필수직 직종 특성은 농림어업숙련직, 관리직 순으로 필수직 비율이 높다.

직종별 전염병 취업일자리 특성을 종합하면, 서비스 및 저숙련직의 경우 재택근무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며 동시에 고대면접촉 일자리 특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9〉 직종별 필수직

(단위: %)

구분	비필수직	필수직	전체
관리직	25.8	74.2	100.0
	0.9	2.0	1.6
전문직	32.7	67.3	100.0
	17.1	26.3	22.4
사무직	31.8	68.2	100.0
	14.2	22.7	19.1
서비스직	69.4	30.6	100.0
	18.7	6.1	11.5
판매직	67.9	32.1	100.0
	17.3	6.1	10.9
농림어업숙련직	3.4	96.6	100.0
	0.2	4.8	2.9
기능원 및 관련기능	33.4	66.7	100.0
	7.2	10.7	9.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44.9	55.1	100.0
	11.9	10.9	11.3
단순노무직	46.9	53.1	100.0
	12.4	10.4	11.3
전체	42.7	57.3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2. 전염병 취약일자리와 사회경제적 지위 관계

전염병 취약일자리와 인구·사회적 특성과의 관계성을 살펴본다. 인구·사회적 특성으로 귀속적(ascribed) 지위로서의 성, 연령과 획득적(achieved) 지위로서의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급여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택근무 가능성과 귀속적 지위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내에서의 재택근무 가능지수에 따른 분포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성별 내에서의 완전한 형태의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일자리는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

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완전한 형태(재택근무 가능 지수=1)의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에 전체 취업자 중 35~49세가 46%, 15~34세가 32.7%, 50~64세가 2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집단 내 분포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재택근무 가능한 일자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층일수록 ICT 기술 활용에 유리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표 3-10〉 재택근무 가능성과 귀속적 지위 특성

(단위: %)

구분		0	0.25	0.5	0.75	1	전체
성별	남성	60.7	9.0	11.8	5.1	13.4	100.0
		59.3	61.0	56.6	41.6	54.6	57.2
	여성	55.7	7.7	12.1	9.6	14.9	100.0
		40.7	39.0	43.4	58.4	45.4	42.8
	전체	58.6	8.4	11.9	7.0	14.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령	15~34세	52.4	9.2	14.3	6.6	17.6	100.0
		23.4	28.5	31.3	24.7	32.7	26.2
	35~49세	50.2	9.8	14.3	8.5	17.1	100.0
		32.4	43.8	45.4	45.8	46.0	37.8
	50~64세	71.7	6.5	7.7	5.8	8.3	100.0
		44.2	27.7	23.4	29.5	21.3	36.1
	전체	58.6	8.4	11.9	7.0	14.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대면접촉지수와 귀속적 지위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고대면 일자리에 속한 취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면접촉지수가 높은 서비스직에서의 여성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연령별 대면접촉 정도를 살펴보면, 고연령층일수록 고대면 일자리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연령집단 내 분포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표 3-11〉 대면접촉지수와 귀속적 지위 특성

(단위: %, 0~1)

구분		저대면	고대면1)	전체	대면접촉지수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50.6	49.4	100.0	0.541	0.159
		64.4	51.3	57.2		
	여성	37.4	62.6	100.0	0.588	0.184
		35.6	48.7	42.8		
	전체	45.0	55.0	100.0	-	-
		100.0	100.0	100.0		
연령	15~34세	42.5	57.5	100.0	0.570	0.171
		24.7	27.4	26.2		
	35~49세	48.1	51.9	100.0	0.551	0.168
		40.3	35.6	37.8		
	50~64세	43.6	56.4	100.0	0.566	0.176
		34.9	37.0	36.1		
	전체	45.0	55.0	100.0	-	-
		100.0	100.0	100.0		

주: 대면접촉지수가 0.5 이상인 경우 고대면접촉으로 식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필수직여부와 귀속적 지위 특성을 살펴보면, 총취업자 중 비필수직 일자리의 남성과 여성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의 집단 내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비필수직 약 38.7%, 여성은 약 48.0%의 비율을 보인다. 전체 취업자 중 비필수직 일자리의 연령집단 간 분포를 살펴보면 34세 이하 약 29.1%, 35~49세 약 36.0%, 50~64세 약 34.8%로 나타났다. 각 연령집단 내 필수직 여부에 따른 비율의 차이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필수직 여부와 귀속직 지위 특성

(단위: %)

구분		비필수직	필수직	전체
성별	남성	38.7	61.3	100.0
		51.8	61.2	57.2
	여성	48.0	52.0	100.0
		48.2	38.8	42.8
	전체	42.7	57.3	100.0
		100.0	100.0	100.0
연령	15-34세	47.5	52.5	100.0
		29.1	24.0	26.2
	35-49세	40.7	59.3	100.0
		36.0	39.0	37.8
	50-64세	41.2	58.8	100.0
		34.8	37.0	36.1
	전체	42.7	57.3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다음으로 재택근무 가능성과 획득적 지위 특성을 살펴보면, 완전한 형태의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의 취업자 중 약 79.8%가 4년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재택근무 가능성 분포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교육수준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완전한 형태의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취업자 중 약 69.8%가 상용직 근로자인 반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약 0.2% 비율을 보이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 집단 내 특징을 살펴봐도 일용직 근로자 중 약 98.2%, 무급가족 종사자 중 약 85.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중 약 78.9%, 임시직 근로자 중 약 70.3%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일자리에 속해있다. 최근 3개월 평균 급여¹¹⁾ 수준을 살펴보면 재택근무 불가능(재택근무 가능성=0) 일자리의 평균 급여 수준이 가장 낮은 반면 완전한 형태의 재택근무 가능한 일자리의 평균 급여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 본 문항은 임금근로자에 한해서만 응답하고 있다.

〈표 3-13〉 재택근무 가능성과 획득적 지위 특성

(단위: %, 만 원/월)

		0	0.25	0.5	0.75	1	전체
교육 수준	중졸이하	97.0	0.5	0.8	1.2	0.5	100.0
		12.7	0.4	0.5	1.4	0.2	7.7
	고졸	80.7	3.5	6.3	6.3	3.3	100.0
		47.5	14.3	18.1	30.7	8.0	34.5
	전문대졸	58.6	7.5	15.4	8.2	10.4	100.0
		16.2	14.4	21.0	18.8	11.9	16.2
	4년제 대졸이상	33.2	14.3	17.3	8.3	26.9	100.0
		23.6	70.9	60.5	49.1	79.8	41.7
	전체	58.6	8.4	11.9	7.0	14.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종사상지 위	상용	45.4	11.8	17.5	8.6	16.8	100.0
		45.2	81.6	85.3	71.1	69.8	58.3
	임시	70.3	4.9	4.5	8.3	12.1	100.0
		18.3	8.9	5.7	17.9	13.1	15.2
	일용	98.2	0.5	0.6	0.2	0.6	100.0
		7.8	0.3	0.2	0.1	0.2	4.7
	고용원 있는자영	68.1	5.4	10.8	4.8	10.9	100.0
		6.2	3.4	4.8	3.6	4.1	5.3
	고용원 없는자영	78.9	3.4	3.1	1.8	12.9	100.0
		17.8	5.3	3.4	3.4	12.1	13.2
	무급가족	85.1	1.4	2.1	8.6	2.9	100.0
		4.8	0.5	0.6	4.0	0.7	3.3
	전체	58.6	8.4	11.9	7.0	14.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최근 3개월 평균급여	평균	233.123	362.923	321.814	288.679	385.210	-
	표준편차	132.157	189.607	154.858	154.772	248.196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다음으로 대면접촉지수와 획득적 지위 특성을 살펴보면, 4년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대면접촉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상용직 근로자의 고대면 일자리 비율은 낮은 반면 일용직, 임시직, 그리고 자영업자의 고대면 일자리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최근 3개월 평균 급여 수준은 고대면 일자리에 비해 대면접촉지수가 낮은 일자리의 급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대면접촉지수와 획득적 지위 특성

(단위: %, 만 원/월)

구분		저대면	고대면 ¹⁾	전체	대면접촉지수	
					평균	표준편차
교육수준	중졸이하	41.2	58.8	100.0	0.573	0.189
		7.0	8.2	7.7		
	고졸	35.8	64.2	100.0	0.584	0.164
		27.4	40.2	34.5		
	전문대졸	40.8	59.3	100.0	0.574	0.170
		14.7	17.5	16.2		
	4년제 대졸이상	54.9	45.1	100.0	0.535	0.172
		50.9	34.2	41.7		
	전체	45.0	55.0	100.0	-	-
		100.0	100.0	100.0		
종사상 지위	상용	53.4	46.6	100.0	0.534	0.166
		69.2	49.4	58.3		
	임시	33.0	67.0	100.0	0.608	0.171
		11.2	18.6	15.2		
	일용	15.9	84.1	100.0	0.643	0.153
		1.6	7.1	4.7		
	고용원 있는자영	33.4	66.6	100.0	0.589	0.155
		3.9	6.4	5.3		
	고용원 없는자영	35.4	64.6	100.0	0.600	0.180
		10.4	15.5	13.2		
	무급가족	50.2	49.8	100.0	0.511	0.175
		3.7	3.0	3.3		
	전체	45.0	55.0	100.0	-	-
		100.0	100.0	100.0		
최근 3개월 평균급여	평균	335.301	240.719	-	-	-
	표준편차	197.065	140.747	-	-	-

주: 대면접촉지수가 0.5 이상인 경우 고대면접촉으로 식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필수직여부와 획득적 지위 특성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에 따른 필수직 여부는 폭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4년대졸이상, 고졸 순으로 필수직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집단 간 비율을 살펴보면 상용직의 비율이 약 66.47%로 높게 나타났다. 집단 내 비율을 살펴보면 상용직과 일용직에서 상대적으로 필수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수준은 필수직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 급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5〉 필수직 여부와 획득적 지위 특성

(단위: %, 만 원/월)

		비필수직	필수직	전체
교육 수준	중졸이하	45.2	54.8	100.0
		8.1	7.3	7.7
	고졸	48.1	52.0	100.0
		38.8	31.2	34.5
	전문대졸	43.5	56.5	100.0
		16.5	16.0	16.2
	4년제 대졸이상	37.4	62.6	100.0
		36.6	45.5	41.7
	전체	42.7	57.3	100.0
		100.0	100.0	100.0
종사 상지 위	상용	34.7	65.3	100.0
		47.4	66.5	58.3
	임시	55.2	44.9	100.0
		19.7	11.9	15.2
	일용	39.5	60.5	100.0
		4.3	4.9	4.7
	고용원 있는자영	59.0	41.0	100.0
		7.3	3.8	5.3
	고용원 없는자영	55.8	44.2	100.0
		17.3	10.2	13.2
	무급가족	52.5	47.6	100.0
		4.0	2.7	3.3
	전체	42.7	57.3	100.0
		100.0	100.0	100.0
최근 3개월 평균급여	평균	245.827	310.522	-
	표준편차	149.334	186.918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전염병 취약일자리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 특성과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일수록, 장년층일수록(35~49세), 고학력일수록, 상용직 근로자일수록,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재택근무 가능성 높은 일자리와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필수직의 경우 여성이며, 연령이 높고, 고학력, 상용직/일용직 근로자, 소득수준 높은 사람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면접촉지수가 낮은 일자리는 남성, 장년층(35~49

세), 4년대졸이상, 상용직, 그리고 소득수준 높은 사람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선형회귀분석 결과

	(1) 재택근무가능 성	(2) 재택근무가능 성	(1) 필수직 (=1)	(2) 필수직 (=1)	(1) 고대면접촉지 수	(2) 고대면접촉지 수
여성 (ref.남성)	0.10*** (0.000)	0.07*** (0.000)	0.01*** (0.000)	-0.08*** (0.000)	0.03*** (0.000)	0.05*** (0.000)
15-34세 (ref.35-49)	-0.02*** (0.000)	-0.05*** (0.000)	-0.07*** (0.000)	-0.08*** (0.000)	0.01*** (0.000)	0.02*** (0.000)
50-64세 (ref.35-49)	-0.05*** (0.000)	-0.04*** (0.000)	0.04*** (0.000)	0.05*** (0.000)	0.01*** (0.000)	-0.00*** (0.000)
중졸이하 (ref.고졸)	-0.08*** (0.000)	-0.07*** (0.000)	-0.02*** (0.000)	0.03*** (0.000)	-0.01*** (0.000)	-0.02*** (0.000)
전문대졸 (ref.고졸)	0.11*** (0.000)	0.12*** (0.000)	0.07*** (0.000)	0.05*** (0.000)	0.00*** (0.000)	-0.00*** (0.000)
4년대졸이상 (ref.고졸)	0.28*** (0.000)	0.31*** (0.000)	0.11*** (0.000)	0.10*** (0.000)	-0.03*** (0.000)	-0.04*** (0.000)
임시직 (ref.상용)	-0.02*** (0.000)	-0.08*** (0.000)	-0.14*** (0.000)	-0.17*** (0.000)	0.04*** (0.000)	0.06*** (0.000)
일용직 (ref.상용)	-0.13*** (0.000)	-0.19*** (0.000)	0.03*** (0.000)	-0.04*** (0.000)	0.08*** (0.000)	0.11*** (0.000)
고용주 (ref.상용)		-0.11*** (0.000)		-0.28*** (0.000)		0.06*** (0.000)
1인자영업자 (ref.상용)		-0.10*** (0.000)		-0.23*** (0.000)		0.07*** (0.000)
무급가족 (ref.상용)		-0.15*** (0.000)		-0.14*** (0.000)		-0.05*** (0.000)
평균급여	0.0004*** (0.000)		0.0003*** (0.000)		-0.0001*** (0.000)	
i.year	√	√	√	√	√	√
Constant	0.04*** (0.000)	0.18*** (0.000)	0.49*** (0.000)	0.63*** (0.000)	0.57*** (0.000)	0.53*** (0.000)
R ²	0.244	0.224	0.056	0.062	0.094	0.080

주: 1) 종속변수의 경우 재택근무 가능성(0, 0.25, 0.5, 0.75, 1), 필수직 여부(비필수직=0, 필수직=1), 고대면접촉지수([0,1]의 연속변수); 3개월 평균급여의 경우 연속변수로 모형에 투입하였으며 임금근로자만 응답하였다.

2) 괄호 안의 수치는 로버스트 표준오차이다. * p<0.1, ** p<0.05, *** p<0.01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전염병 취약일자리와 사회경제적 지위 중 귀속적 지위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이 재택근무 가능한 일자리와의 관련성이 높음과 동시에 고대면접촉 지수가 높은 일자리와의 관련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현재 노동시장의 핵심연령층인 35~49세가 재택근무 가능한 일자리와 저대면 일자리, 그리고 필수직 일자리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획득적 지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4년대졸 이상이 재택근무 가능성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동시에 필수직, 저대면 일자리와의 관련성도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일수록 재택근무 가능 일자리, 필수직 일자리, 저대면 일자리와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필수직 일자리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와의 관련성 또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재택근무 가능 일자리, 필수직 일자리, 저대면 일자리와의 관련성이 높다. 전염병 확산 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대면접촉/재택가능성 높은 일자리와 고학력, 상용근로, 높은 소득수준과의 관계성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즉 전염병 취약일자리가 기존 노동시장 이중구조 조건이 어느 정도 투영되어 있거나 혹은 투영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코로나 전후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을 살펴봄에 있어 전염병 취약일자리와의 관계와 노동시장 구조(고용형태, 저임금 근로자 비율) 변화를 함께 살펴본다.

3. 노동시장에서의 위험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을 살펴봄에 있어 전염병 취약일자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취업자 수와 일시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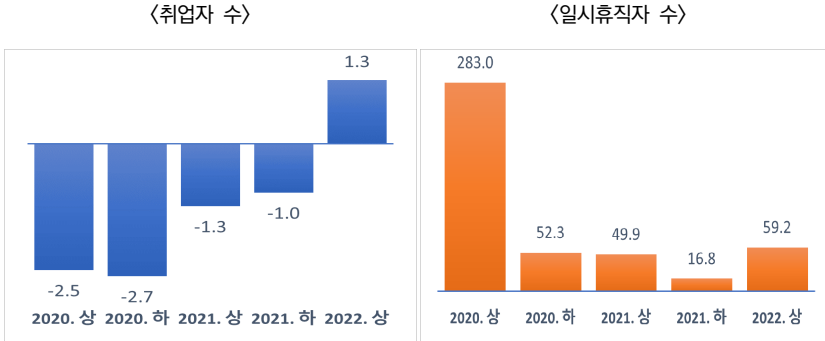
직자 수 변화를 살펴봤다. 코로나19 이후 취업자 수 증감률을 살펴본 결과, 2019년 동기 대비 2020년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자 감소 폭은 다소 줄기 시작하여 2022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일시휴직자 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팬데믹 발병 직후인 2020년 상반기 약 283.0%로 일시휴직자 수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상반기 이후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긴 하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악화 과정에서 전염병 취약 일자리 특성별¹²⁾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봤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업자 수 감소의 대부분이 비필수직 일자리, 그리고 재택이 어려운 일자리, 사람과의 대면접촉이 높은 일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수직 일자리는 2020년 상반기 소폭 감소를 제외하고 이후 빠른 속도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시휴직자 변화를 살펴보면, 동기간 중 일시휴직자 수 증가의 상당 부분이 재택이 어려운 일자리, 고대면 접촉 일자리에서 발생하였다. 전염병 확산의 위험 상황에서 재택이 어려운 일자리와 고대면 접촉 일자리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2) 0.5 이하 비재택, 0.7 이상 재택근무가능일자리로 분류; 대면접촉지수가 0.5 이상인 경우 고대면접촉으로 식별

[그림 3-2] 취업자 수 및 일시휴직자 수 증감률(2019년 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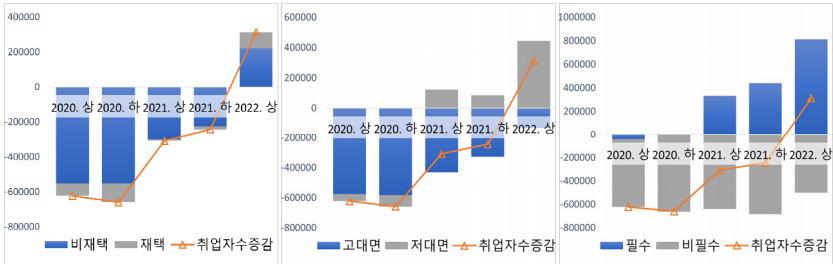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그림 3-3] 취업자 수 증감 분해(2019년 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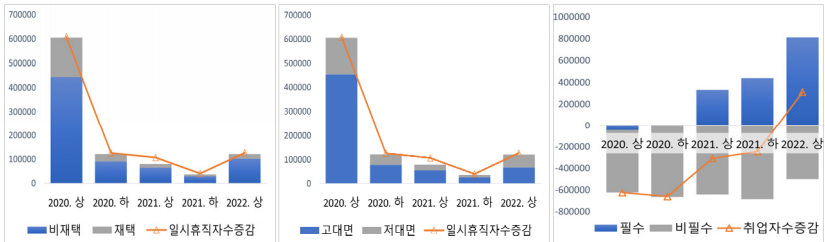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그림 3-4] 일시휴직자 수 증감 분해(2019년 동기 대비)

(단위: 명)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다음으로 코로나 전후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을 살펴봄에 있어 전염병 취약일자리와 노동시장 구조(저임금 근로자 비율, 고용형태) 변화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저임금 근로자 비율 변화를 살펴보았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 변화를 살펴봄에 있어 OECD 기준을 적용해 정의하였다. OECD는 저임금 근로자를 상대적 개념을 적용해 정의하는데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중위 시간당 임금의 2/3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본다. 지역별고용조사의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급여와 주간근무(주업)시간수를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3개월 평균 급여를 월근무시간수¹³⁾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산출한다. 그렇게 산출된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중위 시간당 임금의 2/3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정의했다¹⁴⁾.

분석 결과 재택 가능성 여부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재택이 어려운 일자리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접촉에 따른 일자리 특성별로 살펴보면 고접촉 일자리에 약 73%의 저임금 근로자가 속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필수직 여부의 경우 비필수직에서 좀 더 높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재택여부와 대면접촉 여부에 따른 일자리 특성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 일반적으로 주당근로시간을 월근로시간으로 환산 시 1년이 52주임에 따라 12달을 나누어 4.3주를 적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주간주업근무시간수×4.3)의 식을 통해 3개월간 평균 급여에 나눠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였다.

14)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함으로 인한 자료의 한계로 3개월 평균 급여와 주간근무시간수를 월근무시간으로 변경하여 산출하였다. 그럼에도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본 분석 결과 2021년(상반기) 14%로 나타나며, 이러한 결과는 OECD의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 비율 2021년 약 15%와 유사하다.

〈표 3-17〉 전염병 취약일자리 특성별 저임금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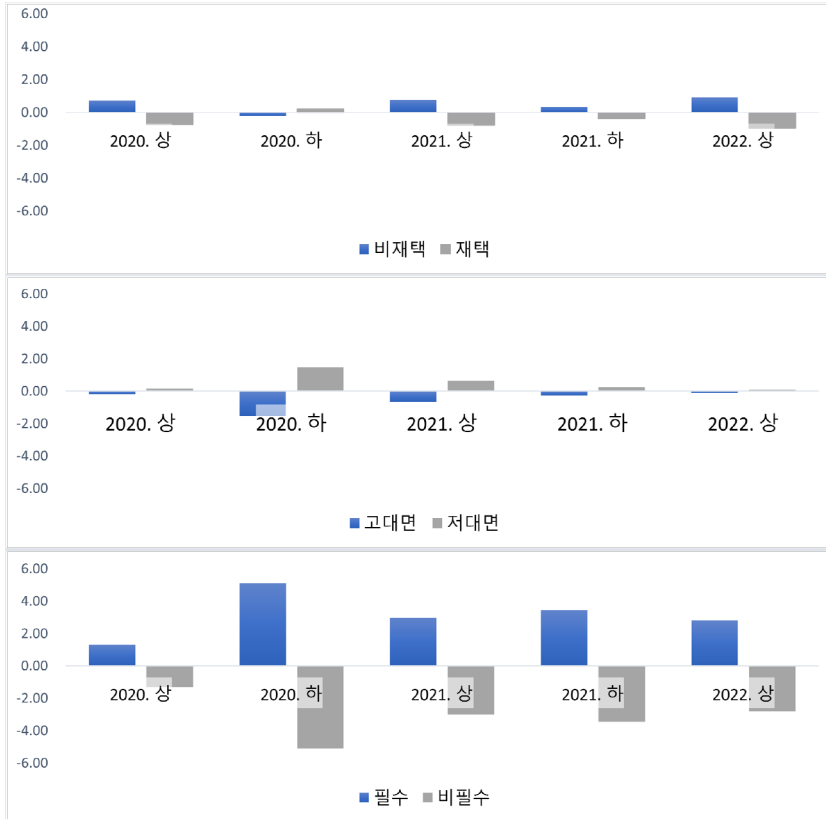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전체		15.8	14.7	13.6	15.4	14.0	12.4	10.4
재택 가능성	비재택	89.3	89.9	90.0	89.7	90.0	90.3	90.2
	재택	10.7	10.1	10.0	10.3	10.0	9.7	9.8
	총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면	고대면	73.8	74.0	73.6	72.5	73.1	73.7	73.7
	저대면	26.2	26.1	26.4	27.6	26.9	26.3	26.4
	총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필수	필수	38.2	38.0	39.5	43.1	41.2	41.4	41.0
	비필수	61.8	62.0	60.5	56.9	58.8	58.6	59.0
	총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저임금 근로자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염병 취약일자리 특성 중 필수직 여부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 비율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필수직 일자리에서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필수직 일자리에서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필수직 일자의 취업자 수 증가와 비필수직 일자의 취업자 수 감소 모두 저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사회경제적 지위와 전염병 취약일자리 관계를 살펴본 분석 결과에서도 필수직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결과를 더욱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5] 저임금 근로자 비율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p)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다음으로 전염병 취약일자리 특성별 고용형태 비율 분포를 살펴봤다. 재택이 어려운 일자리, 고대면 일자리, 비필수직 일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임시·일용직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들의 코로나 이후 고용형태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염병 일자리 특성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결과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의 감소 양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염병이라는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일자리 특성(비재택, 고대면 접촉 일자리)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율과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코로나19에 취약한 일자리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분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취업자 수 감소가 임시·일용직 근로자, 저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염병이라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 특성이 주변부 노동시장에서의 중층구조를 형성할 가능성, 즉 기존 계층화에 증폭 및 또 다른 계층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3-18〉 전염병 취약일자리 특성별 저임금 분포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전체	상용	72.2	72.9	75.6	74.3	75.2	75.3	76.6
	임시일용	27.8	27.2	24.4	25.7	24.8	24.7	23.4
비재택	상용	70.0	70.4	73.4	71.8	72.8	72.9	74.1
	임시일용	30.1	29.6	26.6	28.2	27.2	27.1	25.9
재택	상용	79.8	81.3	82.8	82.6	83.0	83.2	85.0
	임시일용	20.2	18.7	17.2	17.4	17.0	16.8	15.0
고대면	상용	62.7	63.4	67.1	65.9	66.4	67.1	68.2
	임시일용	37.3	36.6	32.9	34.1	33.6	32.9	31.8
저대면	상용	83.2	83.8	85.0	83.7	84.8	84.4	85.9
	임시일용	16.8	16.2	15.0	16.3	15.2	15.6	14.1
필수	상용	78.9	78.9	81.0	78.9	80.1	79.8	81.0
	임시일용	21.1	21.1	19.0	21.1	19.9	20.2	19.0
비필수	상용	62.3	64.0	67.1	67.0	67.2	67.9	69.3
	임시일용	37.7	36.0	32.9	33.0	32.8	32.1	30.7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그림 3-6] 고용형태 비율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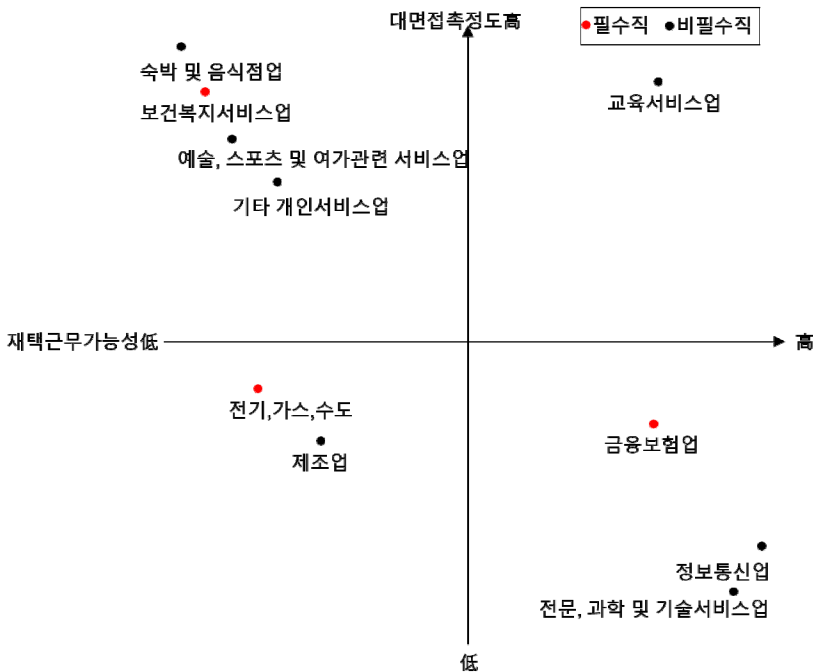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다음으로 전염병 취약일자리 특성을 대표하는 산업을 선정하여 산업별 저임금 근로 및 고용형태 비율과 비율 변화를 살펴봤다. 이를 위해 “제3 절, 1. 전염병 취약일자리 특성”에서 살펴본 산업별 특성을 종합해 아래 그림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제4사분면에 속한 산업은 저대면과 재택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특성을 가진다. 대표 산업으로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금융보험업의 경우 재택근무 가능성이 높으며 대

면접촉도는 낮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동시에 필수직으로 분류된다. 제4사분면과 반대되는 특성인 제2사분면은 고대면과 재택근무가 어려운 일자리 특성을 가진 산업이 여기에 속한다. 대표 산업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 속한 산업의 경우 보건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비필수직 산업으로 분류된 대표 산업이기도 하다. 이런 특성 산업의 경우 전염병 및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전염병 확산의 경제활동을 지속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며 동시에 전염병 확산의 매개가

[그림 3-7] 전염병 취약일자리 특성에 따른 대표 산업



자료: 저자 작성

될 가능성이 높아 각종 위험에 취약한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대면접촉도는 높으나 원격기술 활용으로 인해 재택근무 가능성이 높은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택근무는 어려우나 대면접촉도는 낮은 산업으로 전기·가스·수도 관련 산업과 제조업을 들 수 있다.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특성을 가진 제2사분면에 속한 산업 중 비재택, 고대면, 비필수직 대표 산업인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들에 비해 저임금 근로자 비율과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코로나 전후 저임금 근로 및 고용형태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다른 산업들에 비해 변동 폭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듦과 동시에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2020년보다 2022년 상반기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본 산업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가진 이들을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이뤄졌고,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고착화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제4사분면에 속한 저대면, 재택 가능한 일자리이며 전염병에 민첩하게 대응가능한 특성을 가진 대표 산업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의 경우 코로나 전후 저임금근로 및 고용형태 비율 변화 폭 자체가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비필수직에 비해 필수직 산업(보건복지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 금융보험업)에서 코로나 전후 저임금근로 및 고용형태 비율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경향이 있다. 즉 전체 경향은 임시일용직, 저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고용조정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피해의 깊이와 크기는 전염병 취약일자리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19〉 제2사분면 대표 산업의 고용형태 비율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비재택 & 고대면 & 비필수직 대표 산업								
숙박및 음식점	저임금	49.0	45.3	44.5	47.0	45.2	42.5	36.9
	상용	32.7	36.1	39.9	40.7	40.9	42.0	42.2
	임시일용	67.3	63.9	60.1	59.3	59.2	58.0	57.8
예술 스포츠 여가	저임금	26.7	25.6	24.4	26.9	25.2	23.0	19.1
	상용	45.6	48.8	52.3	51.7	54.1	55.4	56.2
	임시일용	54.4	51.2	47.8	48.3	45.9	44.7	43.8
기타 개인 서비스	저임금	28.9	27.3	25.3	26.4	25.0	20.3	18.2
	상용	63.7	66.9	67.6	70.2	69.3	70.6	73.3
	임시일용	36.3	33.1	32.4	29.8	30.8	29.4	26.7
비재택 & 고대면 & 필수직 대표 산업								
보건 복지 서비스	저임금	15.3	14.0	14.8	16.4	15.4	14.0	11.6
	상용	84.2	83.2	85.6	83.4	84.4	83.5	84.1
	임시일용	15.8	16.8	14.4	16.6	15.6	16.5	15.9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표 3-20〉 제4사분면 대표 산업의 고용형태 비율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재택 & 저대면 대표 산업								
전문과학 기술서비 스	저임금	4.8	4.2	3.3	3.9	3.4	2.1	2.1
	상용	92.4	92.4	93.4	92.4	92.9	92.8	94.3
	임시일용	7.7	7.7	6.6	7.6	7.1	7.2	5.7
정보 통신업	저임금	4.1	3.6	2.8	3.9	3.5	3.4	2.7
	상용	91.1	89.6	92.1	89.9	91.9	90.7	91.3
	임시일용	8.9	10.4	7.9	10.1	8.1	9.3	8.7
재택가능 & 저대면 & 필수직 대표 산업								
금융보 험	저임금	6.4	5.9	5.6	6.9	5.3	5.0	4.0
	상용	65.3	67.2	66.7	68.3	66.1	66.4	68.6
	임시일용	34.7	32.8	33.3	31.7	33.9	33.6	31.4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92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근로연령층 사회적 위험의 경험과 대응의 격차

〈표 3-21〉 제1사분면, 제3사분면 대표산업의 고용형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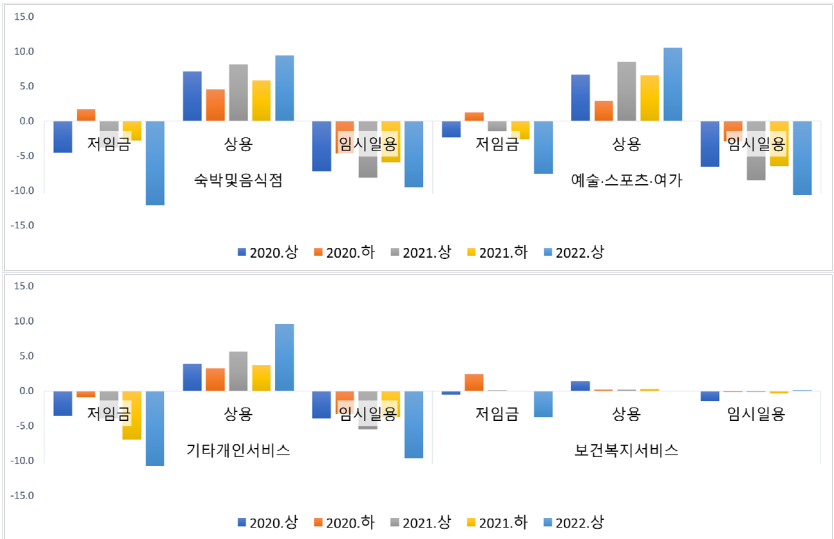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재택가능 & 고대면접촉 산업								
교육 서비스	저임금	9.9	9.7	7.3	11.0	10.3	10.2	9.0
	상용	68.1	70.4	74.0	72.0	71.7	72.0	72.5
	임시일용	31.9	29.6	26.1	28.0	28.3	28.0	27.5
비재택&저대면&필수직 산업								
전가 가스 수도	저임금	4.21	3.62	4.6	5.12	5.96	2.79	3.59
	상용	92.0	90.5	91.0	89.8	92.6	91.4	92.0
	임시일용	8.0	9.5	9.1	10.2	7.4	8.6	8.0
비재택&저대면접촉 산업								
제조업	저임금	9.1	8.0	6.9	8.2	7.5	5.8	4.9
	상용	88.3	88.6	90.1	90.5	90.2	90.7	90.8
	임시일용	11.7	11.4	9.9	9.5	9.8	9.3	9.2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그림 3-8〕 제2사분면 저임금, 고용형태 비율 변화(2019년 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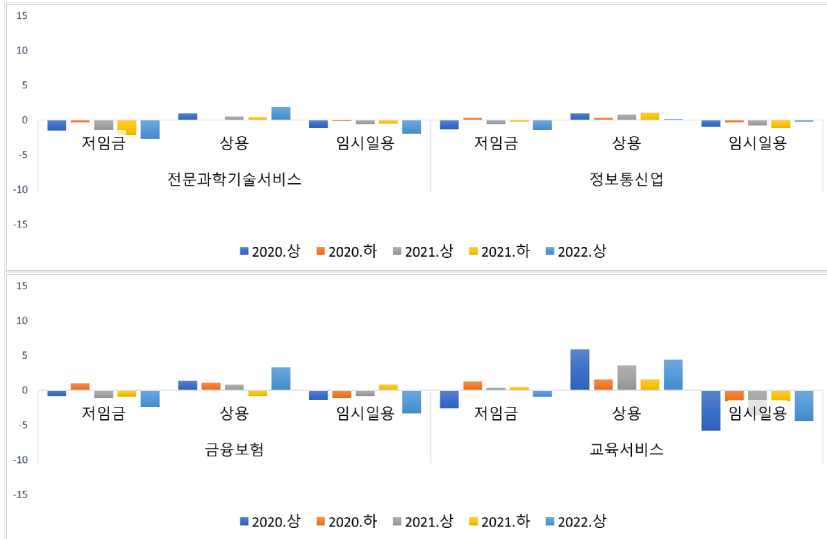
(단위: %p)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그림 3-9] 제4, 1사분면 저임금, 고용형태 비율 변화(2019년 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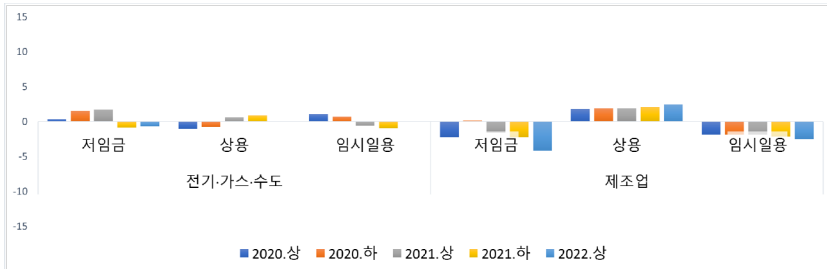
(단위: %p)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그림 3-10] 제3사분면 저임금, 고용형태 비율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p)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B형 2019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민첩한 대응의 어려움을 일자리 특성에 따른 재택근무 가능성, 사람들과의 대면 정도, 필수직 일자리 정보를 활용해 전염병 취약일자리 특성 및 변화를 살펴봤다. 그리고 새로운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염병 취약일자리와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련성을 통해 전염병 취약일자리가 기존 노동시장 이중구조 조건이 투영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전후의 노동시장에서의 위험 경험과 전염병 취약일자리와의 관계, 그리고 전염병 취약일자리 특성별 대표산업의 노동시장 구성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인해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가 증폭 또는 확대재생산 될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별 전염병 취약일자리 특성을 조합해보면 대면접촉과 재택근무 가능성에 따른 산업 특성은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재택근무 가능성은 높고 대면접촉도는 낮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대면접촉도는 높으나 원격기술 활용으로 인해 재택근무 가능성은 높은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재택근무가능성은 낮으며 고대면 접촉 일자리 특성을 보인다.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비필수직 산업으로 분류된다. 직종별 전염병 취약일자리 특성을 종합하면, 서비스 및 저숙련직의 경우 재택근무가 어려우며 동시에 고대면접촉 일자리 특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전염병 취약일자리와 사회경제적 지위 중 귀속적 지위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이 재택근무 가능한 일자리와의 관련이 높음과 동시에 고대면접촉 지수가 높은 일자리와의 관련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현재 노동시장의 핵심연령층인 35-49세가 재택근무 가능한 일자리와 저대면 일자리, 그리고 필수직 일자리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획득적 지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4년대졸 이상이 재택근무 가능성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동시에 필수직, 저대면 일자리와의 관련성도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일수록 재택근무 가능 일자리, 필수직 일자리, 저대면 일자리와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필수직 일자리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와의 관련성 또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재택근무 가능 일자리, 필수직 일자리, 저대면 일자리와의 관련성이 높다.

셋째, 코로나 전후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업자 수 감소의 대부분이 비필수직 일자리, 그리고 재택이 어려운 일자리, 고대면 접촉 일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수직 일자리는 2020년 상반기 소폭 감소를 제외하고 이후 빠른 속도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시휴직자 변화를 살펴보면, 동 기간 중 일시휴직자 수 증가의 상당 부분이 재택이 어려운 일자리, 고대면 접촉 일자리에서 발생하였다. 전염병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이 어려운 일자리 특성(비재택, 고대면 접촉 일자리)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율과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전염병에 취약한 일자리에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사람들의 분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취업자 수 감소가 임시·일용직 근로자, 저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비재택, 고대면, 비필수직 대표 산업인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들에 비해 저임금 근로자 비율과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으며, 이들의

코로나 전후 저임금 근로 및 고용형태 비율 변화 변동 폭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염병 직후인 2020년보다 최근(2022년 상반기)에서 더욱 크게 나타남에 따라 전염병에 따른 위험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비해 저대면, 재택 가능한 일자리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의 경우 코로나 전후 저임금 근로 및 고용형태 비율 변화의 변동 폭 자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필수직에 비해 필수직 산업(보건복지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 금융보험업)의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경향이 있다.

종합하면, 재택가능성이 높고 저대면접촉 일자리일수록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볼 수 있다. 전염병 및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재택이 어려우며 대면접촉이 높은 일자리의 경우 경제활동을 지속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발생한다. 동시에 전염병 확산의 매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 각종 위험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염병 확산 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면접촉과 높은 재택가능성의 일자리와 고학력, 상용근로, 높은 소득수준과의 관계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즉 전염병 취약일자리가 기존 노동시장 이중구조 조건이 어느 정도 투영되어 있거나 혹은 투영되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경제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가진 임시·일용직, 저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이뤄진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전염병에 취약한 일자리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고착화될 수도 있음을 일부 포착할 수 있었다. 반면 필수직과 비필수직 일자리의 경우 재택 여부와 대면접촉 여부와 같이 전염병에 더 취약한 일자리로 결론짓기 어렵다. 비필수직은 영업제한 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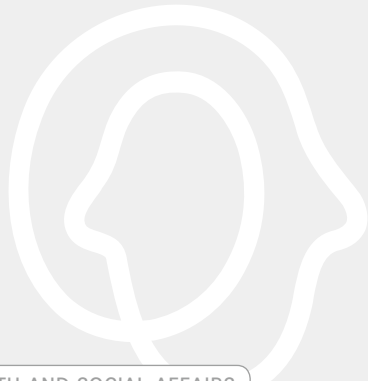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큰 반면, 필수직은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산업(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의 대면접촉 위험, 근로조건 악화 등의 위험이 매우 큰 일자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수직 여부에 따른 전염병 취약성은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으로 발생한 측면에서 비필수직이 취약한 계층일 수 있으나, 전염병으로 인한 대면접촉 및 근로조건 악화 측면에서 필수직이 취약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사람들의 대면 수요가 줄어들어 따라 고용환경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염병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과 회복 정도는 일자리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가진 임시·일용직, 저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고용환경 악화의 영향은 고스란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변부 노동시장 내에서의 또 다른 중층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곧 또 다른 사회계층화, 양극화 현상으로 확대 재생산될 여지가 있다. 기존의 양극화는 노동시장 공정성, 건전성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면 전염병으로 발생한 위험은 일자리의 소멸로 특정 집단의 노동시장 존폐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존폐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전염병은 노동시장 구조의 큰 변화를 유발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한 전염성을 지닌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변화라는 안일한 인식은 위험할 수 있다. 전염병으로 변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면밀히 살피고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4장

코로나19와 노동시장 위험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4장 코로나19와 노동시장 위험

제1절 들어가며

이 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시장 위험이 개인과 가구의 특성 및 일자리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낳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경제위기의 충격이 취약한 계층에게 더 크다는 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도 예외가 없었다. 하지만 감염병이라는 보건 위기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거리두기와 봉쇄라는 전례 없는 국가적 대응이 있었고 이는 위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양상으로 이끌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대표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고용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이 과거의 경제위기와는 다르다. Albanesi and Kim(2021)은 미국의 과거 경제위기 이후 고용률 변화를 보였는데 과거의 경제위기에는 남성의 고용률 감소폭이 더 컸는데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는 여성의 고용률 감소폭이 더 컸다(p.4). 일반적으로 경제위기에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일자리 분포가 높은 남성의 고용률은 감소하는 반면 가구 경제의 보험적 목적으로 여성의 취업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거리두기로 인해 경기변동에 덜 민감했던 서비스업의 타격이 컸고, 봉쇄로 학교나 사회적 돌봄을 이용할 수 없는 아동을 가정 내에서 돌봐야 하는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돌봄 부담이 더 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커졌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특히 어떤 특성을 가진 근로연령층에게 더 충격이 컸는지 이해하는 것은 미래의 감염병 위기에

대비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탐색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이해하는 연구는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및 재택근무의 확산 등 근무형태의 변화가 수반하는 변화를 이해하고자 직무 또는 직종의 특성과 이 변화 추이, 이에 따른 새로운 취약성과 일자리의 계층적 성격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이다. Cetrulo et al.(2022), 오삼일, 이상아(2020), Mongey et al.(2021) 등이 그러한 연구로 주로 재택근무가능성, 대면성 정도, 산업의 필수적 성격, 수요충격 등으로 일자리를 구분하고 이것이 여성과 비정형근로와 같이 알려진 노동시장의 취약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¹⁵⁾ 다른 하나는 노동의 공급적 측면에서 학교 봉쇄가 자녀가 있는 부모, 특히 여성의 노동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주된 연구 주제로 하는 연구들이다. 여성과 자녀 유무를 핵심적인 공급측 요인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그 영향을 양적으로 추정하되 대면성이 높은 산업, 서비스 직종의 고용감소와 같은 수요측 요인(산업 및 직업 분포의 성별 격차)의 영향도 고려하는 연구들이다(Piyapromdee and Spittal, 2020; Albanesi and Kim, 2021; Luengo-Prado et al., 2021).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의 변화를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으로 구분하여 전염병 위기에서 누가 취약했는가를 이해하고, 각 요인에 대해 경제 및 사회정책을 포괄하여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지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 연구의 차별점은 선행연구들이 주로 취업여부를 주된 고용변화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과 달리 취업여부, 근로시간 감소, 개인취업소득 감소를 포함하여, 일자리를 그만두는 것 외에 자발적·비자발적 휴업·휴직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고용변화

15) 이 연구의 3장도 여기에 포함된다.

의 모습을 분석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이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데이터와 분석방법을 설명하고 3절에서 분석결과를 제시, 4절의 소결에서 정책적 함의를 논한다.

제2절 분석 방법

1. 분석자료

이 장에서는 2019~2021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개인 고용변화를 개인의 인적 특성, 가구특성별로 살펴보았다. 한국노동패널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5,000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조사되고 있는 패널조사로 전국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24차년도(2021년 조사, 연간 소득 및 소비 2020년 기준)까지 조사되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22b).

만15세 이상 가구원 대상 개인용 자료와 가구원 인적 사항, 가구의 소득과 소비, 가구의 자산과 부채, 가구의 경제 상태 등 내용을 담은 가구용 자료로 구분된다(한국노동연구원, 2022b). 개인용 자료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근로시간, 임금 또는 수입, 일자리 산업·직종, 사업체 특성 등을 담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의 고용과 취업형태 변화를 추적할 수 있고, 가구용 자료는 가구내 자녀 유무에 따른 돌봄부담 유무 또는 가구 내 역할, 소득 등의 정보가 있어 개인의 고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의 특성도 파악할 수 있다. 덧붙여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부가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조사하여 이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고용변화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 적합한 분석자료다.

한국노동패널은 2020년과 2021년 시행된 23차, 24차 부가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및 인식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취업과 근무형태 변화에 대한 조사가 각각 진행되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23차에서는 ‘2020년 3월 당시 일자리 유지 여부’, 24차에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계속 근무 여부’를 질문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주된 일자리 이직 여부를 질문하였고, 비임금근로자에게는 23차와 24차에서 ‘2020년 3월 한 달 동안 폐업 여부’,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여부’를 질문하였다. 따라서 임금근로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의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이직,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폐업한 경우를 이직으로 정의하고 각 첫 번째 일자리에서 이직을 경험한 자에게 1의 값을 부여하였다(한국노동연구원, 2022a).

고용변화는 크게 취업여부로 나타나는 거시적 조정과 근로시간 변화로 나타나는 미시적 조정 두 가지가 있다. 따라서 취업 여부, 즉 이직/폐업 여부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시간 변화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의 응답만을 포함하였다. 2회의 부가조사 모두에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정규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평균 근로시간의 증가, 감소, 변화없음을 질문하고,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주당 증가 또는 감소한 시간을 응답토록 하였다(한국노동연구원, 2022a). 이 응답결과를 이용해 근로시간 증감을 하나의 변수로 정의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휴가 또는 휴직 사용에 대한 질문 또한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부가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질문하고 사용한 경우 일 수를 응답토록 하였다. 휴가 또는 휴직에는 일반 유급휴가, 특별 유급휴가(가족돌봄휴가 등),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유급휴직이 포함되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22a). 이를 유급과 무급에 따라 유급휴가휴직(일반

유급휴가, 특별 유급휴가, 유급휴직), 무급휴가휴직(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2개로 묶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상여 포함)의 변화를 증가, 감소, 변화없다로 질문하고,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월 몇 % 증감하였는지 응답토록 하였다(한국노동연구원, 2022a). 소득의 감소는 실직과 더불어 근로연령층의 사회적 위험을 감지하는 지표로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1개 일자리에서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를 맺는 데서 고용형태와 근무형태가 다양해지고, 다수의 일자리를 갖는 근로자도 증가하면서 과거와 같이 실업을 정의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따라서 소득감소는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급격한 소득감소 자체가 개인의 위험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 사이에 일자리 이동도 잦아지고 실업을 더욱 정의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포괄하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적절한 수준의 소득감소를 실업급여 지원이 필요한 상태로 식별하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임금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하는 확률과 소득증감률 2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근로연령층으로 한정한다. 여기서는 가구주가 65세 미만인 근로연령층 가구에서 15~64세 가구원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노인가구원의 근로활동의 특성과 가구 소득 및 소비활동의 성격이 근로연령층과 다른 까닭이다.

2. 분석모형

분석모형은 코로나19 이후 개인의 노동시장 위험 경험 여부에 개인 및 가구의 특성, 일자리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선형회귀모형이다.

$$y_{ij} = \alpha(f_i \cdot c_i) + \beta d_j + \gamma X_{ij} + \epsilon_{ij} \quad (1)$$

개인(i)의 노동시장 위험(y)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직 경험, 근로시간 감소, 개인의 취업소득 감소와 같은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결과이다. 이직 경험은 23차, 24차 부가조사에서 코로나19 직전의 일자리를 유지하지 않았을 때 1, 그 일자리를 그대로 일자리를 유지했을 때 0의 값을 갖는 이진변수(binary variable)이며, 근로시간은 증감한 시간, 근로소득 감소는 부가조사에서 감소, 유지, 증가 중에 감소라고 응답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을 갖는 이진변수이다.

노동시장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가운데 이 연구에서 주요하게 분석대상으로 삼는 요인은 성별과 가구내 18세 미만 자녀 유무에 따른 공급측 요인($f \cdot c$)과 직업의 대면성, 필수직 여부, 산업과 직종의 수요충격 정도와 같은 수요측 요인(d)이다. 재택근무가능성 역시 중요한 직무의 특성인데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에 더해 원격근무,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한 근무가 가능할 때 노동시장 위험을 완충할 수도 있는 까닭이다. 이 요인들이 모두 이전의 경제위기 경험과 달리 감염병 위기에서 오는 위기의 특성 요인이다.

공급측 요인은 성별과 자녀유무의 교차항으로 사용하고, 재택근무가능성(또는 재택근무불가능도)은 Dingel & Neiman(2020)의 지수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수요측 요인은 2가지 방법으로 고려했는데, 첫 번째 방식은 Sanchez et al.(2020)과 같은 방식의 필수직 여부(1 또는 0), Mongey et al.(2021)의 대면접촉도(0~1)를 사용해 0.5 이상의 고대면, 0.5 미만의 저대면 집단을 교차하여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후 설명변수로 포함한 것이다(선형회귀모형 3). 두 번째 방식은 이 연구의 2장 2절에서 추정한 수요충격 지수를 사용하였다. 산업소분류, 직업소분류별 수요

충격 정도를 지수의 값으로 사용하여 2개의 연속변수로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선형회귀모형 4).

통제변수(X)는 개인의 연령(15~34세 청년, 35~49세 장년, 50~64세 중년), 교육수준(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4년대졸 이상)로 구분하였다. 종사상지위는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고용원이 있는 고용주, 1인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체규모는 10인 미만, 10-29인, 30-99인, 100-999인, 1000인 이상으로 회귀모형에는 30인 미만과 30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지난 해 연간 경상소득을 균등화하고 2020년 가격으로 실질화한 소득을 5분위로 구분하여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 23차, 24차 부가조사 결과이므로 개인의 특성별 2020년, 2021년의 고용변화를 기초분석하고, 이직, 유·무급휴가휴직 사용, 근로시간 변화, 소득감소 경험한 비율 및 소득감소율에 대해 선형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였다.

제3절 분석결과

1. 기초분석

성별, 성별과 자녀유무의 교차집단, 나이, 교육수준과 같은 개인 및 가족의 특성, 종사상지위, 사업체규모, 직업 및 산업특성과 같은 일자리 특성별 취업형태 및 근무형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로 구분했을 때 여성의 이직경험률은 남성보다 훨씬 높다. 2020년 3월 당시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지 않는 비율이 남성은 9.2%인데 비해,

여성이 15.1%로 5.9%p 높고, 2021년 1월에 2020년 1월 당시 일자리를 지속하지 않는 비율이 남성은 15.1%, 여성은 24.5%로 9.4%p 더 높다. 여성이 남성보다 이직경험률이 높은 데는 여성의 상용직 비중이 낮고, 면접촉도가 높은 일자리 비중이 높으며, 자녀돌봄의 부담으로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했을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18세 미만 자녀 유무로 구분하면 자녀 유무보다 여성이라는 성별이 이직률을 결정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과 2021년 모두 유자녀 취업자의 이직률이 무자녀 취업자의 이직률보다 낮은 경향이 있는데, 아동이 있는 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이 높고 일자리 안정성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각 성별에 따른 유급 및 무급휴가휴직 사용률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 휴가휴직 사용률이 더 높았다. 이는 한편으로 유자녀 가구의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휴가나 휴직 등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미취학 및 취학연령의 자녀 돌봄의 부담에 대응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성별과 자녀유무에 따른 휴가휴직 사용과 근로시간 변화 및 소득증감률을 보면, 남성은 이직률이 낮은 데 비해 근로시간 변화가 여성보다 큰 편이다. 그리고 자녀유무로 구분하면 유자녀 남성과 여성이 모두 무자녀 개인에 비해 휴가휴직 사용비율이 높다. 이는 이직률에서 자녀유무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 따라서 자녀돌봄의 부담으로 퇴직보다는 휴가휴직 사용을 선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급휴가휴직은 일반 유급휴가, 특별 유급휴가(가족돌봄휴가 등), 유급휴직을 모두 묶는 경우인데, 특히 일반 유급휴가 및 특별 유급휴가가 자녀돌봄의 부담으로 인한 자발적 휴가 사용일 가능성이 높고 유자녀 개인, 특히 여성의 사용비율이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유자녀인 경우 유급휴가휴직 사용비율이 높고, 무자녀인 경우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사용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자녀있는 가구가 유급휴가휴직 제도가 있는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를 가능성이 높고, 무자녀 개인이 더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자녀 남성의 소득이 감소할 비율과 소득감소율이 높다는 데서도 코로나19의 충격이 더 큰 취약 일자리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의 무급휴가휴직 사용비율이 더 높다. 이직률에서와 같이 여성이 유급 아닌 무급휴가휴직 사용만 가능한 열악한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은 이직률이 2020년 20.4%, 2021년 37.1%로 다른 연령과 비교할 수 없게 높다. 휴가휴직 사용은 청년과 장년과 유급휴가휴직 사용률이 더 높고, 중년은 무급휴가휴직 사용률이 높아서 중년 일자리를 취약성을 알 수 있다. 근로시간 변화는 중년>장년>청년 순으로 높고, 소득감소를 경험한 비율과 소득감소율 역시 중년>장년>청년 순이다. 청년은 불안정한 일자리 비율이 높고 자발적 이직률도 높은 반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 유급휴가휴직 제도가 있는 좋은 일자리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년은 무급휴가휴직을 제공하는 열악한 일자리에서 이직하지 않고 근로시간 감소 및 소득 감소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교육수준을 보면 중졸 이하와 전문대졸의 이직률이 가장 높다. 고졸의 이직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4년 대졸이상의 이직률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편이다. 유급휴가휴직 사용 비율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져 학력이 높을수록 유급휴가휴직을 제공하는 좋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말해준다. 그리고 근로시간 감소, 소득감소 경험하는 비율, 소득감소율 모든 지표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컸음을 알 수 있다.

110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근로연령층 사회적 위험의 경험과 대응의 격차

〈표 4-1〉 성별, 자녀유무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근무형태 변화

(단위: 명, %, 시간)

구분		이직 (%)	유급 휴가 휴직 (%)	무급 휴가 휴직 (%)	근무 형태 유지 (%)	평균 근로시간 변화1 (시간)	평균 근로시간 변화2 (시간)	소득 감소 경험한 비율 (%)	평균 소득 증감률 (%)
2020년									
N		10,242	7,059	7,059	7,059	15,048	8,494	7,059	7,059
전체		11.6	2.4	2.7	94.9	-1.73	-0.58	11.5	-4.8
성별	남성	9.2	2.1	2.0	95.9	-1.88	-0.80	10.9	-4.2
	여성	15.1	3.0	3.7	93.4	-1.56	-0.23	12.4	-5.8
성자 녀유 무	무자녀남	11.5	1.8	2.5	95.7	-1.91	-0.89	12.9	-5.6
	유자녀남	5.7	2.4	1.3	96.3	-1.81	-0.68	8.1	-2.3
	무자녀여	15.8	1.7	3.4	94.9	-1.48	-0.19	11.6	-5.1
	유자녀여	13.5	5.5	4.2	90.3	-1.72	-0.31	13.9	-7.2
연령 대	18~34세	20.4	3.1	2.4	94.5	-0.92	-0.07	8.4	-3.4
	35~49세	9.2	2.8	2.5	94.6	-2.04	-0.69	10.1	-4.3
	50~64세	8.6	1.4	3.0	95.5	-2.37	-0.73	15.5	-6.6
교육 수준	중졸이하	13.6	0.6	3.9	95.5	-1.56	-0.85	23.1	-10.4
	고졸	12.0	1.9	3.2	94.9	-1.68	-0.90	15.5	-6.6
	전문대졸	13.1	2.9	2.4	94.7	-1.81	-0.32	8.3	-3.4
	4년대졸이상	10.2	3.0	2.2	94.9	-1.80	-0.35	7.8	-3.2
2021년									
N		10,067	7,542	7,542	7,542	14,857	8,551	7,545	7,545
전체		18.9	2.5	1.5	96.0	-0.65	-0.13	6.6	-1.8
성별	남성	15.1	2.4	1.6	96.0	-0.76	-0.25	6.7	-1.8
	여성	24.5	2.5	1.4	96.1	-0.52	0.08	6.5	-1.8
성자 녀유 무	무자녀남	19.8	1.8	1.4	96.8	-0.73	-0.23	7.6	-2.2
	유자녀남	7.3	3.3	1.8	94.8	-0.83	-0.28	5.4	-1.3
	무자녀여	25.7	1.8	1.5	96.7	-0.57	-0.13	6.8	-1.7
	유자녀여	22.0	4.0	1.3	94.7	-0.40	0.50	5.9	-1.8
연령 대	청년	37.1	2.4	1.5	96.0	-0.27	0.57	4.0	-1.0
	장년	12.9	3.2	1.2	95.6	-0.71	0.03	6.3	-1.8
	중년	13.4	1.7	1.8	96.5	-1.00	-0.62	9.1	-2.5
교육 수준	중졸이하	20.5	0.7	0.3	99.0	-0.51	-0.62	18.0	-5.5
	고졸	19.9	1.7	1.3	97.1	-0.75	-0.39	8.1	-2.2
	전문대졸	22.3	2.2	1.8	95.9	-0.65	0.10	5.7	-1.4
	4년대졸이상	16.2	3.5	1.7	94.8	-0.57	0.09	4.3	-1.2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종사상지위 및 사업체규모별 근무형태 변화를 보면 이 두 가지 구분은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임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자 이직률은 임시직>일용직>상용직 순이며, 각각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이직률이 낮은 상용직의 유급휴가휴직 사용률이 높고, 일용직은 이직률은 임시직보다 낮은 반면 근로시간 감소, 소득감소 경험한 비율, 소득감소율 모두 임시직보다 훨씬 커서 열악한 지위를 드러낸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보다 1인 자영자의 폐업률이 높고, 소득감소를 경험하는 비율도 높아서 취약성을 드러낸다. 사업체규모 역시 10인미만, 10-29인 사업장의 이직률이 다른 규모보다 큰 차이를 보이며 높고, 무급휴가휴직 사용률이 높으며 근로시간 감소, 소득감소에서도 취약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사업체규모는 30인 미만과 30인 이상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표 4-2〉 종사상지위별, 사업체규모별 근무형태 변화

(단위: 명, %, 시간)

구분		이직 (%)	유급 휴가 휴직 (%)	무급 휴가 휴직 (%)	근무 형태 유지 (%)	평균 근로시간 변화1 (시간)	평균 근로시간 변화2 (시간)	소득 감소 경험한 비율 (%)	평균 소득 증감률 (%)
2020년									
N		10,242	7,059	7,059	7,059	15,048	8,494	7,059	7,059
전체		7.7	2.4	2.7	94.9	-2.63	-0.58	11.3	-4.7
종사상지위	상용직	6.8	2.8	2.1	95.1	-1.51	-0.49	7.7	-2.6
	임시직	18.3	1.2	5.2	93.6	-2.99	-0.13	19.4	-10.3
	일용직	9.3	0.0	5.1	94.9	-6.21	-2.12	40.8	-20.5
	고용주	3.6	0.0	12.6	87.4	-3.41	0.38	18.4	-8.3
	1인 자영	5.4	6.7	13.2	80.1	-5.87	-0.96	24.2	-9.6
	무급가족	2.4	0.0	0.0	100.0	-3.22	-1.82	0.0	0.0
사업체규모	10인미만	9.1	1.2	4.7	94.1	-3.65	-0.73	20.4	-9.9
	10-29인	9.4	2.5	2.5	95.0	-2.51	0.14	12.2	-5.6
	30-99인	8.6	3.6	3.8	92.6	-2.44	-0.70	10.2	-4.3
	100-999인	6.6	3.3	1.9	94.8	-1.39	-0.62	9.7	-3.1
	1000인+	4.7	3.6	1.3	95.1	-1.34	-1.10	7.7	-2.6

구분		이직 (%)	유급 휴가 휴직 (%)	무급 휴가 휴직 (%)	근무 형태 유지 (%)	평균 근로시간 변화1 (시간)	평균 근로시간 변화2 (시간)	소득 감소 경험한 비율 (%)	평균 소득 증감률 (%)
2021년									
N		10,067	7,542	7,542	7,542	14,857	8,551	7,545	7,545
전체		16.4	2.5	1.5	96.0	-0.94	-0.13	6.4	-1.6
종사 상지 위	상용직	16.1	2.9	1.5	95.6	-0.28	0.01	4.0	-0.9
	임시직	39.4	1.3	1.6	97.1	-0.83	0.31	12.0	-3.4
	일용직	23.4	0.0	1.2	98.8	-0.69	-1.04	24.8	-7.4
	고용주	3.5	0.0	0.0	100.0	-2.72	-0.44	16.6	-3.9
	1인 자영	4.5	0.0	0.0	100.0	-3.02	-0.49	18.8	-4.1
	무급가족	1.5	0.0	0.0	100.0	-3.23	-0.55	17.1	-5.1
사업체 규모	10인미만	25.0	1.5	2.5	96.1	-0.37	0.54	12.2	-3.4
	10-29인	24.5	1.4	2.0	96.6	-0.29	-0.06	7.6	-2.0
	30-99인	16.6	2.8	1.6	95.6	-0.43	-0.28	4.9	-1.3
	100-999인	17.9	3.4	1.6	95.0	-0.34	0.29	5.3	-1.3
	1000인+	10.1	4.0	0.2	95.8	-0.47	0.27	3.7	-0.7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직무 특성을 보면 재택근무 가능성이 없는 일자리(재택가능성=0)의 이직률이 높은 편이며, 무급휴가휴직 사용률, 근로시간 변화, 소득감소 경험률, 소득감소율 모두 가장 높아서 고용취약성을 증명한다. 반면 재택근무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의 유급휴가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의 특성상 대면접촉도가 높은 일자리의 이직률, 무급휴가휴직 사용률, 근로시간 변화, 소득감소 경험률, 소득감소율 모두 높아서 취약성의 다른 특성임을 알 수 있다. 비필수 일자리에서도 이와 유사한 고용 및 근무형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0을 기준으로 수요충격 정도를 두 집단으로 구분한 두 집단에 대해 근무형태 변화를 보면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파생수요인 노동시장에서도 높은 이직률, 높은 휴가휴직 사용률, 근로시간 감소를 경험하는 비율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 직무·산업특성별 근무형태 변화

(단위: 명, %, 시간)

구분		이직 (%)	유급 휴가 휴직 (%)	무급 휴가 휴직 (%)	근무 형태 유지 (%)	평균 근로시간 변화1 (시간)	평균 근로시간 변화2 (시간)	소득 감소 경험한 비율 (%)	평균 소득 증감률 (%)
2020년									
N		10,242	7,059	7,059	7,059	15,048	8,494	7,059	7,059
전체		7.7	2.4	2.7	94.9	-2.63	-0.58	11.3	-4.7
재택 근무 가능 도	0	8.6	2.1	3.1	94.8	-3.08	-0.78	14.9	-6.2
	0.25	5.6	0.9	2.2	96.8	-0.46	-0.58	3.6	-1.6
	0.5	7.9	2.6	1.8	95.6	-1.44	-0.39	6.8	-2.2
	0.75	4.8	2.7	2.1	95.2	-2.51	0.02	10.7	-3.6
	1	6.7	4.2	2.9	93.0	-3.33	-0.24	9.6	-5.0
대면 접촉	저	6.5	2.3	1.8	95.9	-1.68	-0.55	8.5	-3.2
	고	8.9	2.6	3.6	93.8	-3.49	-0.60	14.3	-6.3
필수	비필수	7.9	2.5	3.6	93.9	-3.21	-0.60	15.0	-6.4
	필수	7.6	2.4	2.2	95.5	-2.24	-0.57	9.2	-3.8
수요 충격	음(-)	9.0	2.8	3.3	93.9	-3.36	-0.26	10.9	-5.1
	양(+)	6.7	2.2	2.2	95.6	-2.05	-0.84	11.9	-4.5
2021년									
N		10,067	7,542	7,542	7,542	14,857	8,551	7,545	7,545
전체		16.4	2.5	1.5	96.0	-0.94	-0.13	6.4	-1.6
재택 근무 가능 도	0	17.9	1.8	1.7	96.6	-1.24	-0.32	8.5	-2.2
	0.25	12.3	3.9	1.2	94.8	-0.40	-0.08	4.1	-1.5
	0.5	17.5	2.8	1.5	95.7	-0.37	0.58	2.9	-0.7
	0.75	13.7	2.9	0.4	96.7	-0.71	-0.11	7.4	-1.6
	1	13.5	3.4	1.5	95.1	-0.70	-0.06	4.0	-0.9
대면 접촉	저	13.9	3.2	1.5	95.3	-0.62	-0.02	5.1	-1.3
	고	18.7	1.8	1.5	96.7	-1.23	-0.22	7.7	-2.0
필수	비필수	16.7	2.3	1.6	96.1	-1.54	-0.18	8.3	-2.1
	필수	16.2	2.6	1.4	96.0	-0.53	-0.09	5.3	-1.4
수요 충격	음(-)	19.3	2.5	1.7	95.8	-1.25	-0.35	6.0	-1.7
	양(+)	14.1	2.5	1.3	96.2	-0.68	0.09	6.8	-1.6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가구소득계층과 월취업소득 분위별로 구분하면 〈표 4-4〉와 같다. 경상 소득 및 월취업소득 1분위의 이직률이 가장 높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직률은 점점 감소한다. 유급휴가휴직 사용률은 소득분위별로 큰 차이를 보

지 않는 반면, 무급휴가휴직 사용률은 월취업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았다. 근로시간 변화, 소득감소를 경험한 비율 모두 가구소득과 월취업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서 가장 높고, 평균 소득 감소율도 그 폭은 가장 커서 소득이 낮을수록 일자리 지위가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표 4-4〉 가구소득분위별, 월취업소득분위별 근무형태 변화

(단위: 명,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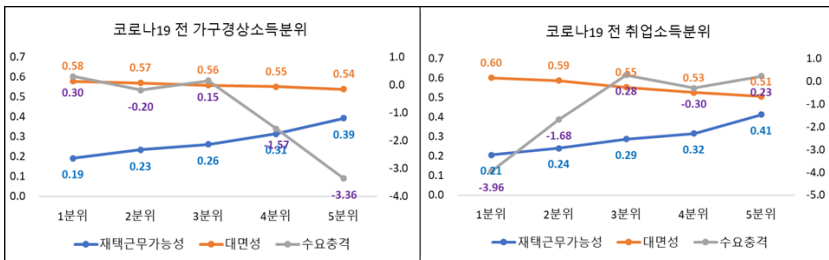
구분		이직 (%)	유급 휴가 휴직 (%)	무급 휴가 휴직 (%)	근무 형태 유지 (%)	평균 근로시간 변화1 (시간)	평균 근로시간 변화2 (시간)	소득 감소 경험한 비율 (%)	평균 소득 증감률 (%)
2020년									
N		10,242	7,059	7,059	7,059	15,048	8,494	7,059	7,059
전체		11.6	2.4	2.7	94.9	-1.73	-0.59	11.5	-4.8
소득 분위	1분위	18.9	2.6	2.6	94.8	-1.63	-0.70	17.9	-8.0
	2분위	13.2	2.4	2.4	95.1	-1.81	-0.62	14.8	-6.4
	3분위	11.4	2.4	3.2	94.3	-1.84	-0.72	12.1	-4.9
	4분위	9.4	2.2	2.7	95.1	-1.82	-0.64	8.9	-3.8
	5분위	7.7	2.6	2.3	95.1	-1.53	-0.33	6.8	-2.7
월 취업 소득 분위	1분위	13.8	2.0	5.1	92.9	-3.66	-1.19	21.9	-11.4
	2분위	9.8	2.7	3.2	94.1	-3.17	0.06	12.6	-4.9
	3분위	6.8	2.7	2.2	95.0	-2.55	-0.48	10.2	-3.8
	4분위	5.4	2.5	1.3	96.3	-1.50	-0.72	6.5	-1.9
	5분위	2.8	2.2	1.4	96.5	-1.82	-0.39	4.2	-1.0
2021년									
N		10,067	7,542	7,542	7,542	14,857	8,551	7,545	7,545
전체		18.9	2.5	1.5	96.0	-0.65	-0.13	6.6	-1.8
소득 분위	1분위	33.0	2.2	1.1	96.7	-0.88	-0.88	13.5	-4.2
	2분위	20.5	1.9	1.1	96.9	-0.63	-0.26	8.2	-2.2
	3분위	16.9	2.3	1.3	96.4	-0.78	-0.12	6.5	-1.6
	4분위	14.8	2.5	2.3	95.2	-0.56	0.40	4.8	-1.3
	5분위	13.5	3.2	1.5	95.3	-0.39	-0.07	3.2	-0.7
월 취업 소득 분위	1분위	29.8	0.9	1.0	98.1	-1.28	-1.31	14.5	-4.3
	2분위	25.2	1.7	2.2	96.2	-0.64	0.48	6.4	-1.4
	3분위	14.9	2.4	1.3	96.3	-0.87	0.02	5.2	-1.3
	4분위	8.4	3.7	1.1	95.2	-0.67	0.01	4.0	-0.9
	5분위	4.5	3.6	1.7	94.7	-0.61	0.18	2.3	-0.4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소득분위별 감염병의 영향을 받는 직업과 산업의 특성 분포를 보면, 코로나19 전 가구정상소득 및 월취업소득 계층이 높아질수록 재택근무가능성은 커지고, 대면접촉도는 완만한 속도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감염병으로 인한 고용취약성을 반영하는 일자리의 특성이 소득과 높은 상관도를 가진다는 점을 말해준다. 하지만 수요충격의 양상은 다른데 월취업소득이 낮을수록 수요충격은 더 커서 감염병의 충격이 저소득층에게 클 수 있음을 반영한 반면 가구소득은 반대 추이를 보여 감염병 충격이 가구소득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림 4-1] 소득분위별 재택근무가능성, 대면성, 수요충격

(단위: 0~1,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 회귀분석 결과

임금근로자 이직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4-5>에 제시하였다. 모형 1은 공급측 요인인 성별과 자녀 유무 교차항 설명변수만을 포함한 모형으로 기초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다. 무자녀 남성을 레퍼런스 그룹으로 했을 때 여성이 이직을 경험할 확률은 3.15~5.35% 높았고, 자녀가 없는 여성과 남성의 이직률이 유자녀 집단에 비해 더 높아서 자녀가 있는 가구 취업자의 일자리가 더 안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측 요인을 포함하지 않고 연령, 교육수준, 종사상지위, 사업체규모와 같은 개인 및 일자리 특성을 통제한 모형 2부터 여기에 고대면집단과 필수직 여부의 교차집단 또는 수요충격지수로 수요측 요인을 추가한 모형 3과 모형 4에서는 무자녀 여성보다 유자녀 여성이 이직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다는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무자녀 여성의 높은 이직률은 개인 및 일자리의 취약성, 감염병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수요측 요인으로 상당 부분 설명이 가능한 데 비해 유자녀 여성의 경우 동일한 통제변수가 이직률을 설명하지 못했다. 즉, 유자녀 여성의 이직률은 돌봄부담 등으로 인한 노동공급측 요인이 이직 위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석된다.

수요측 요인의 경우 대면접촉도와 필수직 여부의 교차집단은 이직률에 유의한 추정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 업종별 수요충격도는 1% 유의수준에서 부정적인 수요충격이 클수록 이직을 경험할 확률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요인의 경우 청년, 임신·일용직이 이직을 경험할 확률이 10% 이상 높았고, 50~64세 및 비임금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체 종사자의 이직률이 약 2~5%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재택불가능도가 높아질수록 이직 위험도 높아지는데 수요충격 또는 노동공급측 요인으로 이직 위험이 커졌을 때 유연한 근무방식으로 이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까닭이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이직 위험은 컸다.

〈표 4-5〉 선형회귀모형: 이직

	모형 1	모형2	모형3	모형4
유자녀 여성 (ref. 무자녀남)	0.0315 ** (0.010)	0.0307 ** (0.010)	0.0302 ** (0.011)	0.0257 * (0.011)
무자녀 여성 (ref. 무자녀남)	0.0535 *** (0.009)	0.0289 *** (0.008)	0.0292 *** (0.008)	0.0250 *** (0.008)
유자녀 남성 (ref. 무자녀남)	-0.0804 *** (0.007)	-0.0234 ** (0.008)	-0.0245 ** (0.008)	-0.0239 ** (0.008)
18~34세 (ref. 35~49세)		0.1194 *** (0.011)	0.1206 *** (0.011)	0.1206 *** (0.011)
50~64세 (ref. 35~49세)		-0.0270 *** (0.007)	-0.0283 *** (0.007)	-0.0281 *** (0.007)
중졸이하 (ref. 고졸)		-0.0021 (0.011)	-0.0029 (0.011)	-0.0022 (0.011)
전문대졸 (ref. 고졸)		0.0040 (0.009)	0.0040 (0.009)	0.0042 (0.009)
4년제이상 (ref. 고졸)		-0.0058 (0.008)	-0.0056 (0.008)	-0.0079 (0.008)
임시일용직 (ref. 상용직)		0.1075 *** (0.011)	0.1078 *** (0.011)	0.1053 *** (0.011)
비임금 (ref. 상용직)		-0.0497 *** (0.007)	-0.0480 *** (0.007)	-0.0501 *** (0.007)
30인 미만 (ref. 무응답)		0.0023 (0.010)	0.0010 (0.010)	0.0015 (0.010)
30인 이상 (ref. 무응답)		-0.0181 * (0.008)	-0.0193 * (0.008)	-0.0176 * (0.008)
재택불가능		0.0159 * (0.007)	0.0181 * (0.008)	0.0193 ** (0.007)
고대면 필수 (ref. 저/비필수)			0.0016 (0.011)	
고대면 비필수 (ref. 저/비필수)			-0.0157 (0.010)	
저대면 필수 (ref. 저/비필수)			-0.0069 (0.008)	
산업수요충격				-0.0003 * (0.000)
직업수요충격				0.0000 (0.000)
2021년		0.0839 *** (0.006)	0.0841 *** (0.006)	0.0841 *** (0.006)

	모형 1	모형2	모형3	모형4
1분위 (ref. 4분위)		0.0540 *** (0.011)	0.0548 *** (0.011)	0.0544 *** (0.011)
2분위 (ref. 4분위)		0.0406 *** (0.009)	0.0424 *** (0.009)	0.0418 *** (0.009)
3분위 (ref. 4분위)		0.0176 * (0.008)	0.0179 * (0.008)	0.0178 * (0.008)
5분위 (ref. 4분위)		0.0011 (0.008)	0.0019 (0.008)	0.0016 (0.008)
상수항	0.1511 *** (0.006)	0.0214 (0.013)	0.0260 (0.013)	0.0224 (0.013)
N	20005	17640	17558	17558
R ²	0.0181	0.0964	0.0975	0.0976

주: 괄호 안의 수치는 로버스트 표준오차이다.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유급휴가휴직을 사용할 확률은 모든 모형에서 유자녀 여성의 사용률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기초분석 결과와 일치하고 다른 설명변수로 설명할 수 없는 공급측 요인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도 무자녀보다 유자녀인 경우 유급휴가휴직 사용률이 높지만 일자리 특성을 통제한 후에는 유의성이 사라지고 계수의 크기도 미미해졌다.

재택가능성과 대면접촉도, 필수직 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산업별 수요충격도는 크기는 작지만 부정적인 수요충격이 클수록 유급휴가휴직 사용률이 커서 수요측 요인이 유급휴가휴직 사용률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필수직의 경우 사용률이 낮았다.

연령과 교육수준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3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의 경우 크기는 작지만 유급휴가휴직 사용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반면 임시·일용직의 사용률은 낮아서 기업의 복지제도와 종사상지위와 같은 일자리 지위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분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4-6〉 선형회귀모형: 유급휴가휴직

	모형 1	모형2	모형3	모형4
유자녀 여성 (ref. 무자녀남)	0.0298 *** (0.005)	0.0276 *** (0.006)	0.0278 *** (0.006)	0.0260 *** (0.006)
무자녀 여성 (ref. 무자녀남)	-0.0009 (0.003)	-0.0009 (0.003)	-0.0013 (0.004)	-0.0023 (0.004)
유자녀 남성 (ref. 무자녀남)	0.0105 ** (0.004)	0.0081 (0.004)	0.0081 (0.005)	0.0082 (0.005)
18~34세 (ref. 35~49세)		0.0051 (0.005)	0.0054 (0.005)	0.0056 (0.005)
50~64세 (ref. 35~49세)		-0.0006 (0.004)	-0.0005 (0.004)	-0.0009 (0.004)
중졸이하 (ref. 고졸)		-0.0018 (0.004)	-0.0019 (0.004)	-0.0017 (0.004)
전문대졸 (ref. 고졸)		-0.0002 (0.004)	-0.0001 (0.004)	-0.0006 (0.004)
4년제이상 (ref. 고졸)		0.0057 (0.004)	0.0063 (0.004)	0.0047 (0.004)
임시일용직 (ref. 상용직)		-0.0135 *** (0.003)	-0.0138 *** (0.003)	-0.0142 *** (0.003)
비임금 (ref. 상용직)		-0.0112 (0.011)	-0.0120 (0.011)	-0.0111 (0.011)
30인 미만 (ref. 무응답)		-0.0008 (0.003)	-0.0010 (0.004)	-0.0009 (0.004)
30인 이상 (ref. 무응답)		0.0124 *** (0.004)	0.0121 *** (0.004)	0.0130 *** (0.004)
재택불가능		-0.0016 (0.003)	-0.0011 (0.004)	-0.0008 (0.003)
고대면 필수 (ref. 저/비필수)			-0.0022 (0.005)	
고대면 비필수 (ref. 저/비필수)			0.0011 (0.005)	
저대면 필수 (ref. 저/비필수)			-0.0009 (0.005)	
산업수요충격				-0.0002 * (0.000)
직업수요충격				0.0001 (0.000)
2021년		0.0006 (0.003)	0.0004 (0.003)	0.0004 (0.003)
1분위 (ref. 4분위)		0.0049 (0.005)	0.0050 (0.005)	0.0053 (0.005)

	모형 1	모형2	모형3	모형4
2분위 (ref. 4분위)		0.0044 (0.005)	0.0045 (0.005)	0.0045 (0.005)
3분위 (ref. 4분위)		-0.0025 (0.004)	-0.0027 (0.004)	-0.0025 (0.004)
5분위 (ref. 4분위)		0.0027 (0.005)	0.0028 (0.005)	0.0028 (0.005)
상수항	0.0184 *** (0.002)	0.0130 * (0.006)	0.0136 * (0.006)	0.0135 * (0.006)
N	14376	12819	12739	12739
R ²	0.0043	0.0088	0.0089	0.0096

주: 괄호 안의 수치는 로버스트 표준오차이다.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무급휴가휴직 사용률은 모형 2의 유자녀 여성의 무급휴가휴직 사용률이 높다는 것을 제외하면 성별과 자녀 유무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임시·일용직의 유급휴가휴직 사용률이 낮은 반면 무급휴가휴직 사용률이 높은 것은 취약한 지위로 인해 유급 대신 무급으로 휴가나 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이다. 분석 결과로 보고하지 않았으나 사업체규모를 10인 미만, 10~29인 등 5개 집단으로 포함했을 때 10인 미만의 무급휴가휴직 사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필수직의 경우 사용률이 낮았다. 하지만 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낮는데 이는 특히 2021년 무급휴가휴직 사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 무급휴가휴직을 사용하는 개인 및 일자리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표 4-7〉 선형회귀모형: 무급휴가휴직

	모형 1	모형2	모형3	모형4
유자녀 여성 (ref. 무자녀남)	0.0083 (0.005)	0.0112 * (0.006)	0.0104 (0.006)	0.0085 (0.006)
무자녀 여성 (ref. 무자녀남)	0.0045 (0.004)	0.0042 (0.004)	0.0027 (0.004)	0.0023 (0.004)
유자녀 남성 (ref. 무자녀남)	-0.0036 (0.003)	-0.0002 (0.004)	-0.0001 (0.004)	0.0000 (0.004)
18~34세 (ref. 35~49세)		0.0018 (0.005)	0.0016 (0.005)	0.0018 (0.005)
50~64세 (ref. 35~49세)		0.0054 (0.004)	0.0060 (0.004)	0.0048 (0.004)
중졸이하 (ref. 고졸)		-0.0054 (0.007)	-0.0049 (0.007)	-0.0056 (0.007)
전문대졸 (ref. 고졸)		0.0013 (0.004)	0.0019 (0.004)	0.0008 (0.004)
4년제이상 (ref. 고졸)		0.0029 (0.004)	0.0039 (0.004)	0.0012 (0.004)
임시일용직 (ref. 상용직)		0.0121 * (0.005)	0.0109 * (0.005)	0.0112 * (0.005)
비임금 (ref. 상용직)		0.0184 (0.021)	0.0163 (0.021)	0.0188 (0.021)
30인 미만 (ref. 무응답)		0.0070 (0.005)	0.0068 (0.005)	0.0072 (0.005)
30인 이상 (ref. 무응답)		-0.0021 (0.003)	-0.0023 (0.003)	-0.0013 (0.003)
재택불가능		0.0037 (0.003)	0.0013 (0.004)	0.0053 (0.003)
고대면 필수 (ref. 저/비필수)			-0.0014 (0.005)	
고대면 비필수 (ref. 저/비필수)			0.0104 (0.006)	
저대면 필수 (ref. 저/비필수)			-0.0020 (0.004)	
산업수요충격				0.0000 (0.000)
직업수요충격				-0.0002 (0.000)
2021년		-0.0117 *** (0.003)	-0.0117 *** (0.003)	-0.0118 *** (0.003)

	모형 1	모형2	모형3	모형4
1분위 (ref. 4분위)		-0.0089 (0.005)	-0.0090 (0.005)	-0.0087 (0.005)
2분위 (ref. 4분위)		0.0015 (0.005)	0.0014 (0.005)	0.0018 (0.005)
3분위 (ref. 4분위)		-0.0029 (0.005)	-0.0031 (0.005)	-0.0028 (0.005)
5분위 (ref. 4분위)		-0.0047 (0.004)	-0.0047 (0.004)	-0.0048 (0.004)
상수항	0.0192 *** (0.002)	0.0187 ** (0.007)	0.0193 ** (0.007)	0.0192 ** (0.007)
N	14376	12819	12739	12739
R ²	0.0008	0.0053	0.0062	0.0058

주: 괄호 안의 수치는 로버스트 표준오차이다.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근로시간은 무자녀 남성에 비해 무자녀 여성, 유자녀 남성, 유자녀 여성 순으로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이직률이 낮은 집단이 코로나19의 충격을 근로시간 감소로 대응하는 까닭으로 해석된다. 수요측 요인도 모두 유의한데 고대면 비필수직의 경우 근로시간 감소폭이 가장 크고 고대면 필수직이 그 다음으로 통계적으로 높아 대면접촉도가 높은 직업의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필수직의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산업 및 직업별 수요충격도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직과 휴가휴직 사용률의 경우 산업의 영향이 더 컸던 데 비해 근로시간은 직업적 특성이 낳는 수요충격을 영향이 더 커서 부정적인 수요충격이 큰 직무일수록 근로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모형 4). 이는 고대면 직업의 근로시간이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모형 3의 결과와 유사하다. 연령 효과도 큰데 청년과 중년의 근로시간이 35~49세 장년층에 비해 이 순서대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과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감소했고, 자영자의 감소폭이 더 컸다. 재택불가능할수록 근로시간 감소는 컸다. 가구소득계층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표 4-8〉 선형회귀모형: 근로시간 증감

	모형 1	모형2	모형3	모형4
유자녀 여성 (ref. 무자녀남)	0.4105 *** (0.067)	0.1611 (0.134)	0.3346 * (0.137)	0.4356 ** (0.144)
무자녀 여성 (ref. 무자녀남)	0.2130 ** (0.067)	0.0314 (0.104)	0.1808 (0.107)	0.2239 * (0.112)
유자녀 남성 (ref. 무자녀남)	0.2846 *** (0.070)	0.5140 *** (0.110)	0.5002 *** (0.110)	0.4827 *** (0.109)
18~34세 (ref. 35~49세)		0.4327 *** (0.116)	0.4577 *** (0.118)	0.4360 *** (0.117)
50~64세 (ref. 35~49세)		0.2795 * (0.113)	0.2154 (0.113)	0.3085 ** (0.114)
중졸이하 (ref. 고졸)		-0.1062 (0.175)	-0.1932 (0.176)	-0.1007 (0.175)
전문대졸 (ref. 고졸)		-0.1340 (0.109)	-0.1026 (0.109)	-0.0679 (0.108)
4년제이상 (ref. 고졸)		-0.2029 * (0.096)	-0.1824 (0.096)	-0.0052 (0.095)
임시일용직 (ref. 상용직)		-0.8690 *** (0.117)	-0.7722 *** (0.119)	-0.7714 *** (0.119)
비임금 (ref. 상용직)		-1.9672 *** (0.134)	-1.8884 *** (0.134)	-2.0198 *** (0.134)
30인 미만 (ref. 무응답)		-0.3242 ** (0.113)	-0.3238 ** (0.114)	-0.3669 ** (0.113)
30인 이상 (ref. 무응답)		-0.1031 (0.078)	-0.1227 (0.079)	-0.2008 * (0.079)
재택불가능		-0.1852 * (0.080)	0.1880 (0.097)	-0.3508 *** (0.084)
고대면 필수 (ref. 저/비필수)			-0.4017 *** (0.121)	
고대면 비필수 (ref. 저/비필수)			-0.7547 *** (0.132)	
저대면 필수 (ref. 저/비필수)			0.2120 * (0.090)	
산업수요충격				0.0046 * (0.002)
직업수요충격				0.0219 *** (0.004)
2021년		0.3286 *** (0.072)	0.3228 *** (0.073)	0.3279 *** (0.072)
1분위 (ref. 4분위)		-0.1567 (0.127)	-0.1542 (0.127)	-0.1627 (0.127)

	모형 1	모형2	모형3	모형4
2분위 (ref. 4분위)		-0.1040 (0.115)	-0.0832 (0.115)	-0.0993 (0.115)
3분위 (ref. 4분위)		-0.0081 (0.118)	-0.0024 (0.118)	-0.0160 (0.118)
5분위 (ref. 4분위)		0.1146 (0.108)	0.1180 (0.109)	0.1273 (0.108)
상수항	-0.9805 *** (0.051)	-0.7537 *** (0.144)	-0.8098 *** (0.153)	-0.7804 *** (0.144)
N	44866	27695	27564	27564
R ²	0.0012	0.0255	0.029	0.0309

주: 괄호 안의 수치는 로버스트 표준오차이다.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임금근로자가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하는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남성의 경우 무자녀 남성이 소득감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 유자녀 남성에게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를 경험할 위험이 높았다. 수요측 요인으로 필수직이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청년이 소득감소를 경험할 확률이 낮은 반면, 중졸 이하, 임시·일용직, 비임금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1분위와 3분위 저소득 가구원이 소득감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청년의 경우 이직률이 높은 반면 근로시간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소득감소도 크지 않다. 청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노동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수요가 높아지는 일자리로 재취업한 결과일 수 있다. 반면 일용직과 단독가구 비중이 높은 중년의 경우 이직률은 가장 낮은 반면 근로시간 감소, 취업소득 감소로 실직으로 드러나지 않는 노동시장 충격을 받은 집단으로 보인다.

〈표 4-9〉 선형회귀모형: 개인소득 감소 경험

	모형 1	모형2	모형3	모형4
유자녀 여성 (ref. 무자녀남)	-0.0058 (0.009)	-0.0018 (0.010)	-0.0037 (0.010)	0.0006 (0.010)
무자녀 여성 (ref. 무자녀남)	-0.0096 (0.007)	-0.0112 (0.008)	-0.0155 (0.008)	-0.0098 (0.008)
유자녀 남성 (ref. 무자녀남)	-0.0361 *** (0.007)	-0.0168 * (0.008)	-0.0160 (0.008)	-0.0168 * (0.008)
18~34세 (ref. 35~49세)		-0.0291 *** (0.008)	-0.0295 *** (0.009)	-0.0287 *** (0.009)
50~64세 (ref. 35~49세)		0.0054 (0.008)	0.0073 (0.008)	0.0055 (0.009)
중졸이하 (ref. 고졸)		0.0385 * (0.018)	0.0384 * (0.018)	0.0380 * (0.018)
전문대졸 (ref. 고졸)		-0.0126 (0.008)	-0.0116 (0.008)	-0.0121 (0.008)
4년제이상 (ref. 고졸)		-0.0142 (0.008)	-0.0112 (0.008)	-0.0117 (0.008)
임시일용직 (ref. 상용직)		0.1283 *** (0.011)	0.1253 *** (0.011)	0.1288 *** (0.011)
비임금 (ref. 상용직)		0.1327 ** (0.042)	0.1275 ** (0.042)	0.1312 ** (0.042)
30인 미만 (ref. 무응답)		0.0245 ** (0.009)	0.0231 ** (0.009)	0.0235 ** (0.009)
30인 이상 (ref. 무응답)		0.0051 (0.006)	0.0038 (0.006)	0.0032 (0.006)
재택불가능		0.0111 (0.006)	0.0040 (0.008)	0.0110 (0.006)
고대면 필수 (ref. 저/비필수)			-0.0158 (0.010)	
고대면 비필수 (ref. 저/비필수)			0.0131 (0.013)	
저대면 필수 (ref. 저/비필수)			-0.0257 ** (0.008)	
산업수요충격				0.0002 (0.000)
직업수요충격				0.0000 (0.000)
2021년		-0.0488 *** (0.006)	-0.0491 *** (0.006)	-0.0494 *** (0.006)
1분위 (ref. 4분위)		0.0266 * (0.011)	0.0271 * (0.011)	0.0269 * (0.011)

	모형 1	모형2	모형3	모형4
2분위 (ref. 4분위)		0.0156 (0.008)	0.0153 (0.009)	0.0160 (0.009)
3분위 (ref. 4분위)		0.0183 * (0.009)	0.0172 * (0.009)	0.0179 * (0.009)
5분위 (ref. 4분위)		-0.0129 (0.007)	-0.0127 (0.007)	-0.0126 (0.007)
상수항	0.1015 *** (0.005)	0.0874 *** (0.012)	0.1031 *** (0.013)	0.0872 *** (0.012)
N	14379	12820	12740	12740
R ²	0.0024	0.0642	0.0663	0.0643

주: 괄호 안의 수치는 로버스트 표준오차이다.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제4절 소결

이 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라는 특성이 근로연령층의 노동시장 위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변화가 일자리를 그만 두는 이직, 유·무급의 휴가·휴직, 근로시간 감소, 개인의 근로소득 감소라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 성별과 자녀 유무라는 공급측 요인과 2) 대면접촉도, 필수직 여부 또는 직접적으로 수요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적 지수로 수요측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요인을 중재하는 요소로 재택근무가능성, 그리고 개인의 특성과 종사상지위와 같은 일자리 특성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돌봄부담이 낳는 사회적 위험은 여전히 크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는 더욱 크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여성의 취업이 가구소득의 보험 역할을 했던 보통의 경제위기와는 달리 거리두기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지 않거나 기존의 사회적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된 자녀를 돌

보게 됨으로써 공급측 요인이 기존의 경제위기와 다른 모습을 보였음을 이 장의 서두에서 논한 바 있다. 이는 분석결과에서 확인되었는데, 다른 요인을 통제하고도 여성, 특히 유자녀 여성이 일자리를 그만둘 위험은 컸고, 일자리를 그만 두지 않더라도 유급휴가휴직 등을 통해 노동공급을 줄이는 선택 아닌 선택을 하게 될 위험이 컸다. 이는 대표적인 신사회적 위험으로 상대적으로 돌봄의 책임을 지는 여성이 노동시장과 괴리됨으로써 소득이 낮아지는 취약성의 경로를 밟게 된다(김철주, 박보영, 2006).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자인 여성 취업자가 가구내에서 돌봄부담자를 결정할 때 더 많은 소득을 버는 남성이 노동시장에 남고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결정을 내리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성의 돌봄부담이 낳는 악순환이다. 따라서 이 위험으로부터 유자녀 부모, 특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상황에서 사회적 돌봄이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직접적인 돌봄제공자의 자녀를 사회가 우선적으로 돌봄으로써 사회적 돌봄이 기능하도록 하고, 거리두기에 있어서 돌봄시설을 폐쇄하기 보다는 시설을 가동하되 효과적인 방역이 가능하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하다. 감염병 확산을 피하기 위한 방역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망을 가동하는 정책이 균형감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감염병 위기에서 노동시장의 고용감소는 대면접촉도가 큰 서비스업과 대면직에서 크게 발생했다. 이는 팬데믹에 대한 방역대책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부 업종을 제한한 정부정책의 직접적 결과이기도 하고 거리두기로 산업적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수요충격은 소비를 통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 부정적인 수요충격이 클수록 이직을 경험할 확률과 유급휴가 및 휴직 사용률이 높아졌고 근로시간이 감소했음을 회귀분석 결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부 정

책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보상하는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제한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으나 실제 발생한 손실에 비해 이 대응의 크기는 부족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셋째, 노동시장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우선적인 안전망이 되는 것은 고용유지정책이다. 유급휴가 및 유급휴직이 고용과 소득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코로나19 위기 때 사업체 조건에 따라 또는 개인이 가진 일자리 지위에 따라 이를 보장받지 못할 경우 무급휴가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소득보장을 하는 보완적 방식을 취했다. 유급휴직휴가를 사용한 집단의 경우 소득이 감소한 비율도 소득감소율도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무급휴가휴직을 사용한 집단의 경우 소득감소율은 큰 반면 일자리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일용직, 중년, 1인 가구,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와 같이 가장 큰 고용취약성을 드러내는 집단이 이들인데 이들은 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임시적 소득지원 정책을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이 포괄하고 소득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고용유지정책 역시 고용보험제도내에서 고용안정망 확충을 목표로 하는 한 축에서 시행되므로 고용보험 제도의 강화는 비단 실업이 발생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각지대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확장 및 개선을 통해 최대한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득지원 방식을 통해 여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집단, 그리고 충분한 소득대체가 되지 않는 집단을 보호하는 사회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유연한 근무방식에 대한 선택지는 일자리를 그만 두는 위험의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 직무특성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기술변화로 인해 점

차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이 가능해지는 것은 추세적 변화이다. 각 사업체가 선택권을 갖고 있지만 정부가 유연한 근무형태가 확산됨에 따른 다양한 이슈에 선제적으로 법·제도 등의 환경을 마련하여 다시금 찾아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에서 재택근무가 다른 하나의 완충장치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 청년, 임시·일용직, 영세사업장 등 이미 알려진 고용취약성의 기준은 감염병 위기에서도 고스란히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집단에 따라 모습은 다르다. 여성과 청년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 이탈의 위험이 높은 반면, 임시·일용직, 1인 자영자, 영세한 사업장 종사자인 중년의 경우 무급휴가휴직 사용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일부 정부지원을 받는데 그쳤기 때문에 소득감소가 컸다. 따라서 감염병으로 인한 취약성의 특성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중노동시장 주변부에 있는 취약한 근로연령집단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지속되어야 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코로나19와 소득·소비 변화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 5 장 코로나19와 소득·소비 변화

제1절 들어가며

1. 연구목적

이 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근로연령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는 감염병의 확산 위험과 이에 동반한 경기침체 등으로 고용감소를 낳고, 이러한 고용감소는 곧 가구의 소득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근로연령층의 주요한 소득원천은 근로소득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가구의 소득과 소비 변화 역시 큰 폭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장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의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고용률 변화에 따른 가구소득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더불어 가구소득 감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코로나19 이후 소득과 소비에 관한 선행연구

여타 연령층에 비하여 근로연령층은 코로나19 이후 직접적인 소득감소를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2021년 기준 가구의 경상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대가 76.9%, 40대는 69.8%, 50대는 69.7%를 차지할 정도로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으며, 사업소득을 포함할

경우 경상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기기 때문이다(국가통계포털(KOSIS), 2022.10.19.). 이처럼 가구의 소득이 노동시장 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고용타격은 근로연령층의 소득에도 큰 폭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코로나19 시기 가구의 소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코로나19 이후 고용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감소로 가구의 시장소득이 감소하였으며(김태완, 이주미, 2020), 취업소득 중에서도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의 변화가, 고소득층은 사업소득의 변화가 두드러졌음을 확인하고 있다(이승호, 홍민기, 2020).

이러한 소득감소에 대응하고자 했던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공적 이전 역시 소득 연구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보편적 또는 특정대상에 집중적으로 배포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 덕분에 실제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제한적으로만 관측되었다(여유진, 2021). 다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재난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 역진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남재현, 이래혁, 2021). 더불어 큰 규모의 재난지원금에도 일부 취약계층(여성 노인, 저소득 가구)의 빈곤율 증가는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여유진 외, 2021; 정세정, 김태완, 김기태, 최한수, 이주미, 2020).

코로나19 이후 보다 장기적인 시점을 다룬 이원진, 김현경, 함선유, 성재민, 하은솔, 한겨레(2022)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취업소득 감소가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며, 배우자의 미취업비율이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4분기에 걸쳐 높아졌음을 확인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시장소득의 빈곤율은 주로 아동이 있는 가구, 특히 모자가구에 집중적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여,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아동의 빈곤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정부의 공적이전으로 소득분배 악화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근로·사업소득의 감소, 공적이전의 증가는 곧 가구의 소비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코로나19 초기 집중되었던 각종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주로 다루고 있다. 전국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지방정부에서 지급된 보편적 또는 선별적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을 계산하고, 이의 지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승호, 홍민기(2020)는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은 가구소비를 11.1% 감소시켰으나, 재난지원금의 지급으로 지출은 12.4% 증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카드지출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은 재난지원금 경기진작 효과가 코로나19의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하기도 하였다(Kim, Kho, and Lyou, 2020).

코로나19 이후 이뤄진 지출과 관련한 또 다른 연구군은 코로나19의 맥락에서 감염병의 위험이 높은 소비군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다. Chetty, Friedman, Nathaniel, Michael & The Opportunity Insights Team(2020)은 코로나19의 감염률이 높은 지역과 대면으로 상호작용하는 산업분야에서 소비지출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Baker, Farrokhnia, Meyer, Pagel & Yannelis(2020)는 핀테크 기업의 금융 정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젊은 층보다는 고령자가 거리두기를 더 철저하게 지키면서 소비 감소가 컸으며, 아동이 있는 가구 역시 소비 감소가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나타났으나, 식료품 지출은 오히려 늘어났음을 확인하였다. 여유진 외(2021)는 코로나19 이후 오락과 문화비, 교육비 지출의 감소가 두드러졌음을 확인하고 있다.

카드데이터를 토대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소비효과를 연구한 문혜진, 구인회, 김진석, 손병돈, 우석진, 함선유, 양다연(2020)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품목들의 소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비필수재보다는 필수재의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근로연령층의 경우 통상 비슷한 소득수준에 대비 필수적인 소비 수준이 더 높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제약이 실제 삶에 미칠 영향 역시 클 가능성이 있다. 김태일, 이영빈(2019)은 동일한 소득일 때 근로연령층 가구의 소비는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액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관되는 경향이었으며, 총 소비지출과 식비지출액 기준으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즉, 근로연령층 가구의 경우 생계 곤란을 벗어나는 소득수준이 노인연령층에 비하여 더 높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의 감소가 근로연령층의 실질적인 소비와 삶에 더 큰 타격을 주었을 것임을 시사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와 앞선 3~4장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이후 가구의 소득과 소비의 변화를 2022년 상반기까지 보다 장기간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소득 변화의 원인이 되는 고용률의 변화와 이에 뒤따른 소득의 양상, 그리고 소비 실태에 이르기까지 근로연령층의 코로나19 이후 삶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고용, 소득, 소비의 변화를 겪은 집단은 누구였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집단이 가장 먼저 회복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앞선 장의 분석 결과들은 여러 집단 중에서도 본래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와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감염병의 위기에 따른 영향이 더 두드러졌

음을 보여주고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재택근무의 가능성이 낮고 대면 접촉의 가능성이 높은 전염병 취약 일자리가 노동시장 내에서 소득수준이 낮고 비정형적인 근로조건을 가진 이들에게 집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유급휴가휴직 사용률이 높았는데, 이는 돌봄 부담에 따른 휴가 사용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아동가구의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에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가구의 경우 고용의 위기가 직접적인 소득과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에 한부모 가구로 대표될 수 있는 기타 아동가구의 경우 노동시장 내 취약성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이처럼 앞선 장에서 확인하였던 노동시장의 취약성이 실제 가구 내 고용변화 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소비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요한 분석의 단위를 가구의 소득분위와 앞서 4장에서와 같이 아동과 배우자 유무를 토대로 한 6가지 가구형태를 기준으로 하였다.

제2절 분석방법

코로나19 이후 고용과 소득, 소비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 2019~2022년 가계동향조사 분기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 및 소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조사로,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진다. 분석 시점 현재 이용가능한 최신자료는 2022년 2/4분기 자료로 2019년 1/4분기부터 2022년 2/4분기까지를 분석대상 기간으로 삼았다. 다만, 분석대상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분기별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기 어려워 실제 분석에서는 반기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반기별 자료는 분기별 자료를 2개씩 폴링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근로연령층 가구이므로 노인이 가구주인 노인가구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주요 분석은 가구를 크게 가구형태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구소득은 가구의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공적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합)을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소득을 가구가중치와 가구원 수의 곱을 가중하여 개인균등화 5분위를 구하였다. 소득분위별 가구주 특성과 가구원 수는 아래와 같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여성 가구주 비율이 높아졌으며,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하위 1분위의 평균 연령이 다소 높은 점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의 역시 하위 소득 분위에서 가구원 규모가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3~5분위는 평균 가구원 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5-1〉 소득분위별 가구주 특성(2019~2022통합)

(단위: %, 세, 명)

구분	남성 가구주 비율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전체 가구	73.5	48.2	2.6
- 1분위	59.0	50.2	2.2
- 2분위	68.6	47.7	2.6
- 3분위	74.9	47.0	2.6
- 4분위	79.7	47.5	2.7
- 5분위	83.0	48.6	2.6

주: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가구소득 분위는 가구의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공적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합)을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균등화하고 가구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하여 분위를 계산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가구형태는 우선 가구에 아동이 있는지 여부와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크게 6개 집단으로 나누었다. 아동이 없는 가구의 경우 1인 가구와 부부가구 그리고 부부가 아닌 동거가구로 나뉜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8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이 있는 부부가구와 8세부터 18세 미만

학령기 아동이 있는 부부가구, 그리고 아동이 있으나 부부가구가 아닌 가구로 나뉜다. 아동이 있으나 가구주가 부부가 아닌 가구는 대부분 한 부모 가구이나, 일부는 3대 가족이나 조손가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섯 개 집단의 각 시기별 사례수는 아래 <표 5-2>에 수록하였다.

<표 5-2> 분석대상 사례 수와 비중

(단위: 가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사례 수							
전체 가구	6,866	9,420	14,985	10,064	10,182	10,262	5,083
- 1인 가구	1,694	2,117	3,540	2,352	2,486	2,565	1,228
-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가구	754	1,113	1,967	1,328	1,354	1,387	672
- 아동이 없는 부부가구	2,425	3,446	5,202	3,510	3,508	3,446	1,715
- 8세 미만 아동 있는 부부가구	899	1,270	1,876	1,198	1,193	1,177	594
- 8-17세 아동 있는 부부가구	792	1,052	1,760	1,208	1,203	1,223	645
- 그 외 아동가구(한부모가족 등)	302	422	640	468	438	464	229
비중							
전체 가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인 가구	24.7	22.5	23.6	23.4	24.4	25.0	24.2
-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가구	11.0	11.8	13.1	13.2	13.3	13.5	13.2
- 아동이 없는 부부가구	35.3	36.6	34.7	34.9	34.5	33.6	33.7
- 8세 미만 아동 있는 부부가구	13.1	13.5	12.5	11.9	11.7	11.5	11.7
- 8-17세 아동 있는 부부가구	11.5	11.2	11.7	12.0	11.8	11.9	12.7
- 그 외 아동가구(한부모가족 등)	4.4	4.5	4.3	4.7	4.3	4.5	4.5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가구형태별 대략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주의 연령과 성별, 가구원 수 통계는 아래 <표 5-3>에 수록하였다. 부부가구의 경우 가구주 대부분이 남성이었으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8-17세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부부가구가 아

년 경우, 즉, 그 외 아동 가구의 경우 남성 가구주의 비율이 18.7%에 불과하여 한부모 가구를 포함하는 이들 집단 대부분은 여성 가구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가장 낮았으며, 가구원 수는 아동이 있는 부부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가장 많았다. 아동이 없는 부부 가구의 경우 가구주 평균 연령이 56.9세로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가 없는 동거가구 역시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2.4세였다.

〈표 5-3〉 가구형태별 가구주 특성(2019~2022통합)

(단위: %, 세, 명)

구분	남성 가구주 비율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전체 가구	73.5	48.2	2.6
- 1인 가구	55.1	41.7	1.0
-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가구	34.6	52.4	2.4
- 아동이 없는 부부가구	90.3	56.9	2.7
- 8세 미만 아동 있는 부부가구	96.8	39.5	3.8
- 8-17세 아동 있는 부부가구	95.3	47.4	3.9
- 그 외 아동가구 (한부모가족 등)	18.7	44.2	3.0

주: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본 절에서는 주로 코로나19 이후 가구주의 취업여부와 부부가구인 경우 맞벌이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가구의 총소득(취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합산한 소득)과 시장소득(취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한 소득), 가처분소득(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공적이전지출을 차감한 소득)도 함께 살펴보았다. 가구의 빈곤율은 가구의 명목소득이 각 연도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보다 낮은 가구의 비율이다.

가구소비의 경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총 12가지 상위 지출 분류 하에

94개 하위 지출항목으로 구분하여 월별 지출액을 공표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상위 12가지 지출항목의 변화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94개 하위 지출항목을 크게 필수재와 비필수재, 서비스와 재화, 내구재와 비내구재라는 3가지 분류기준을 토대로 분류하고 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94개 항목의 구체적인 분류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가구의 소비지출 역시 소득과 마찬가지로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소득을 사용하였으며 가중치도 마찬가지로 가구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하여 개인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사용된 소득과 소비지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기 위하여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구한 2020년 기준 실질소득과 실질소비액을 사용하였다.

제3절 분석결과

1. 가구특성별 코로나19 이후 취업 변화

이 소절에서는 근로연령층 가구의 주요 소득원인 근로·사업소득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동시장 참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가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았다. 우선 가구형태별 가구주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취업률은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특히 아동이 있는 부부가구의 가구주 취업률은 거의 100%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다만, 아동가구 중에서도 부부가구가 아닌 경우 취업률이 2019년 상반기 당시 84.5%로 나타나 여타 아동가구에 비해서

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배우자가 없는 다인가구의 가구주 취업률은 75.5%로 가장 낮은 취업률을 기록하였다.

〈표 5-4〉 가구형태별 가구주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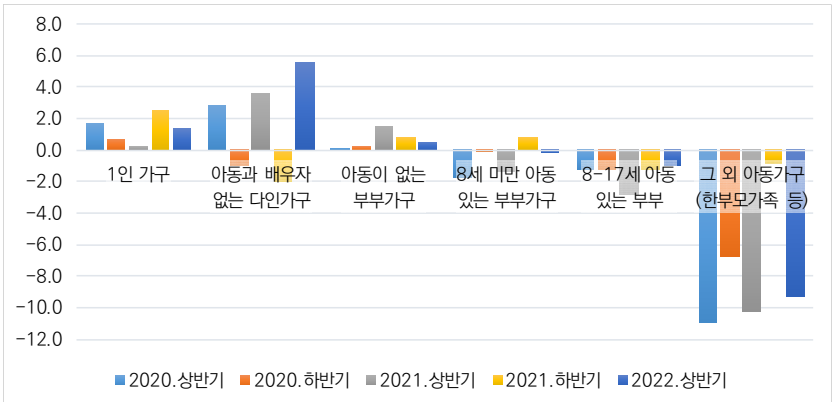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1인 가구	81.1	81.0	82.8	81.7	81.3	83.5	82.5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가구	75.5	80.8	78.3	79.9	79.1	78.8	81.0
아동이 없는 부부가구	87.1	88.0	87.2	88.2	88.6	88.8	87.6
8세 미만 아동 있는 부부가구	98.6	97.1	96.9	97.0	97.3	97.9	98.4
8-17세 아동 있는 부부가구	98.4	98.9	97.2	97.7	95.6	97.7	97.5
그 외 아동가구 (한부모가족 등)	84.5	78.6	73.6	71.9	74.3	77.8	75.2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5-1〕 가구형태별 가구주 취업률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p)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이러한 기존의 취업률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후 가구주의 고용률 변화는 주로 한부모가족 등 그 외 아동가구에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이들의 고용률은 최대 10%p 이상 줄어들었다. 2020

년 상반기 고용률은 2019년 상반기 고용률에 비하여 무려 10.9%가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고용률 감소는 2022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음으로 부부가구의 맞벌이 비율을 살펴보았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2019년 상반기에 46.1%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취학연령대의 아동이 있는 부부의 경우 맞벌이 비율이 6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이 없는 부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부부로 이들의 맞벌이 비율은 51.6%로 취학연령의 아동이 있는 부부 가구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맞벌이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아동이 없는 부부 가구에 비하여 아동이 있는 부부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5〉 가구형태별 맞벌이 비율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8세 미만 아동 있는 부부가구	46.1	47.9	41.8	41.8	41.9	45.7	45.3
8-17세 아동 있는 부부가구	65.9	65.4	60.5	62.0	59.3	61.1	59.7
아동이 없는 부부가구	51.6	56.5	51.7	54.5	52.8	53.5	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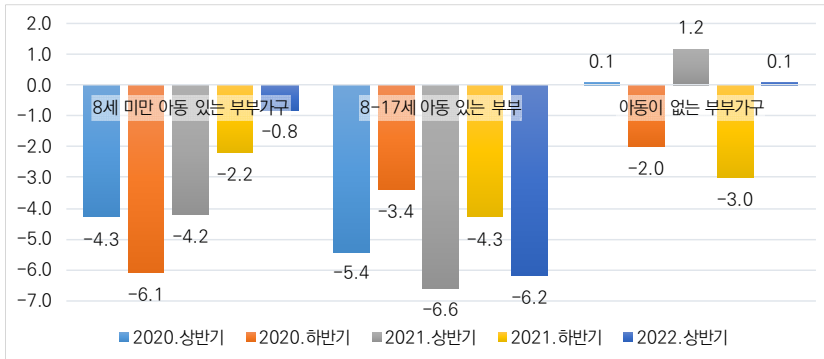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미취학 아동이 있는 부부의 경우 2020년 하반기 맞벌이 비율 감소가 큰 폭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국면에서는 감소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취학연령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2019년 상반기에 비하여 맞벌이 비율이 6.2%p 낮게 나타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일상적 회복으로 접어드는 2022년 상반기까지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아동이 없는 부부 가구의 경우 맞벌이 비율의 변화가 코로나19 전후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주로 아동

이 있는 가구의 여성 고용률 변화가 크게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이는 부부가구가 아닌 아동가구의 가구주 고용률 하락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림 5-2] 가구형태별 맞벌이 비율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p)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이러한 부부의 취업률 변화를 종합하기 위하여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 중 취업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가구 내 고용률의 변화가 어떠한 집단에서 가장 컸는지를 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취업률 변화만을 반영하는 것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취업률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맞벌이 비율에서 보듯 취학연령 아동이 있는 가구의 평균 취업자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2019년 대비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 취업자 수의 변화가 가장 컸던 집단은 아동이 있는 가구였으며, 가장 큰 폭의 변화는 한부모가족 등 부부 아닌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다음으로 취학연령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크게 나타났다.

〈표 5-6〉 가구형태별 가구주 부부의 평균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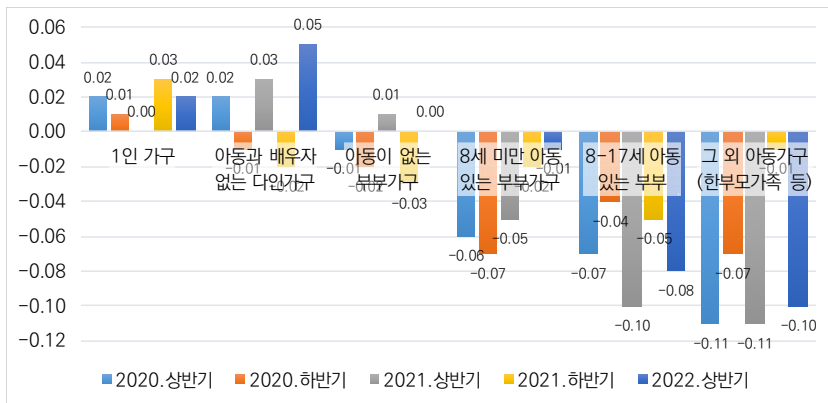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1인 가구	0.81	0.81	0.83	0.82	0.81	0.84	0.83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가구	0.76	0.81	0.78	0.80	0.79	0.79	0.81
아동이 없는 부부가구	1.43	1.48	1.42	1.46	1.44	1.45	1.43
8세 미만 아동 있는 부부가구	1.45	1.46	1.39	1.39	1.40	1.44	1.44
8-17세 아동 있는 부부가구	1.66	1.65	1.59	1.61	1.56	1.60	1.58
그 외 아동가구 (한부모가족 등)	0.85	0.79	0.74	0.72	0.74	0.78	0.75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5-3] 가구형태별 가구주 부부의 평균 취업자 수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명)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소득분위별 가구주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1분위의 취업률이 코로나19 이전에 66% 수준으로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2분위 이상의 집단에서는 가구주 취업률이 90%를 넘어서서 대부분의 가구주가 취업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소득 분위가 높은 집단에서 가구주의 취업률 역시 높아졌다.

코로나19 이후 가구주 취업률이 가장 크게 변한 집단은 소득 하위 1분위로 이들은 취업률이 가장 낮은 집단이었음에도 코로나19 이후 취업률 역시 가장 낮아졌다. 다만 2022년 상반기에 이르러서는 2019년 상반기에 비하여 취업률이 다소 높아져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취업률을 회복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그 외에도 하위 2분위와 5분위 가구주의 취업률 역시 일부 변동폭이 관측된다.

〈표 5-7〉 가구소득분위별 가구주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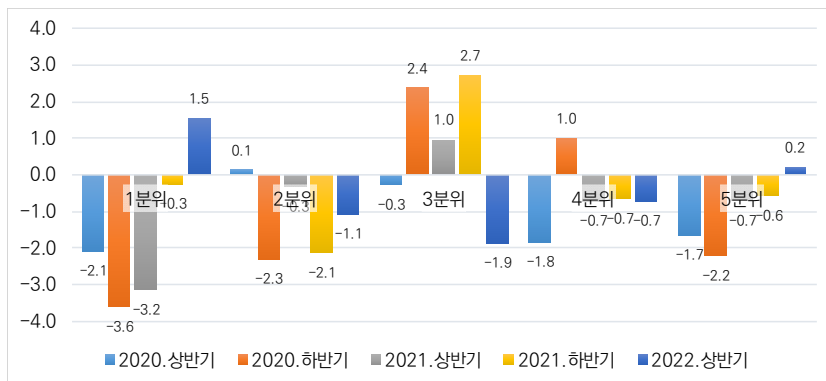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1분위	66.1	66.1	64.0	62.5	62.9	65.9	67.6
2분위	90.3	93.3	90.4	91.0	89.9	91.2	89.2
3분위	94.8	93.4	94.5	95.8	95.7	96.1	92.9
4분위	96.4	95.6	94.6	96.6	95.7	95.0	95.7
5분위	97.3	97.8	95.7	95.6	96.6	97.2	97.5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5-4〕 가구소득분위별 가구주 취업률 비율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p)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소득분위별 맞벌이 비율을 살펴보면, 맞벌이 비율은 상위 소득 가구일수록 더 높아졌으며 상위 5분위의 경우 2019년 상반기 맞벌이 비율이 60.1%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소득 상위 분위로 갈수록 맞벌이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코로나19 이후 맞벌이 비율의 변화 역시 주로 상위소득분위에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8〉 가구소득분위별 맞벌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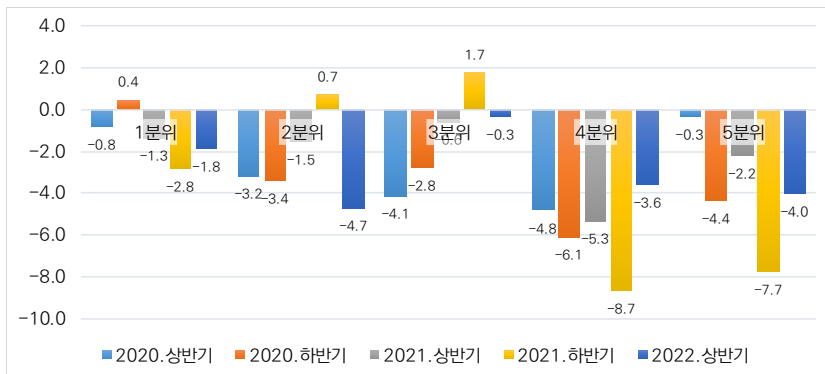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분위	17.0	15.6	16.1	16.0	15.6	12.7	15.1
2분위	28.2	28.2	25.1	24.8	26.7	28.9	23.5
3분위	38.9	41.2	34.8	38.4	38.3	42.9	38.6
4분위	52.6	55.7	47.8	49.6	47.3	47.0	49.0
5분위	60.1	64.5	59.8	60.1	57.9	56.7	56.1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5-5〕 가구소득분위별 맞벌이 비율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p)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실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고려하기 위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주 본인과 배우자의 평균 취업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고용률 변화가 컸던 소득 하위 1분위에 비하여 소득 하위 2분위와 4분위, 5분위의 변화가 큰 폭으로 관측된다. 특히 2분위의 경우 가구주 본인의 고용률 변화와 맞벌이 비율 변화 자체가 가장 큰 집단은 아니었으나 이 둘을 모두 합할 경우 여타 소득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표 5-9〉 가구소득분위별 가구주 부부의 평균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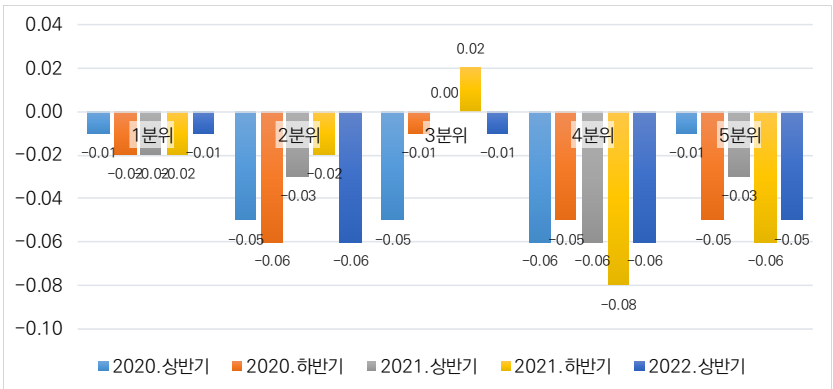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1분위	0.71	0.71	0.70	0.69	0.69	0.69	0.70
2분위	1.14	1.16	1.09	1.10	1.11	1.14	1.08
3분위	1.26	1.27	1.21	1.26	1.26	1.29	1.25
4분위	1.41	1.43	1.35	1.38	1.35	1.35	1.35
5분위	1.48	1.52	1.47	1.47	1.45	1.46	1.43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5-6] 가구소득분위별 가구주 부부의 평균 취업자 수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명)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 코로나19 이후 소득 변화

그렇다면 위와 같은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의 고용변화는 코로나19 이후 가구의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본 절에서는 가구형태와 가구소득별로 평균 취업소득(근로·사업소득)과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과 이전지출을 더한 가처분소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우선 취업소득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에 취업소득이 가장 높았던 집단은 취학 연령의 자녀가 있는 집단으로 이들은 2019년 상반기 가구원 수를 균등화한 월평균 소득이 314만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이 없는 부부가구와 미취학 연령 자녀 있는 부부가구, 1인 가구의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아동 가구의 경우 월평균 취업소득이 144만원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취업소득을 나타냈다. 이는 그 외 아동 가구의 경우 가구주 고용률에서도 나타나듯 가장 취약한 노동시장 지위를 지녔을 위험을 나타낸다.

〈표 5-10〉 가구형태별 평균 취업소득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구분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1인 가구	237	227	234	233	242	245	257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가구	186	193	188	204	181	199	202
아동이 없는 부부가구	286	305	283	303	283	311	295
8세 미만 아동 있는 부부가구	255	264	265	264	266	279	312
8-17세 아동 있는 부부가구	314	317	304	310	290	314	329
그 외 아동가구 (한부모가족 등)	144	131	128	136	139	153	156

주: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소득임.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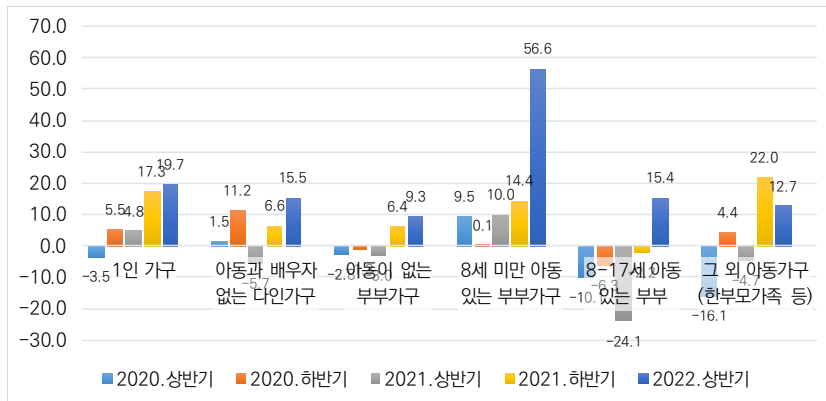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큰 폭으로 소득감소가 관측된 가구는 취학연령 가구와 그 외 아동가구였다. 취학연령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2021년 상반기 평균 취업소득이 2019년 상반기에 비하여 무려 24

만 원이 줄어들었다. 이 같은 취업소득의 변화는 앞서 고용률 변화에서 보듯 코로나19 이후 가구 내 취업자 수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는 집단이었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그 외 아동가구의 경우 고용률 하락이 두드러졌으며 이의 양상이 장기화되었던 반면 평균 취업소득의 하락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에 이르러서는 취업소득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들 가구의 경우 평균 소득이 본래 낮으며, 고용률이 낮고 취업자의 소득 역시 낮은 상황에서 취업률의 변화가 취업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7] 가구형태별 평균 취업소득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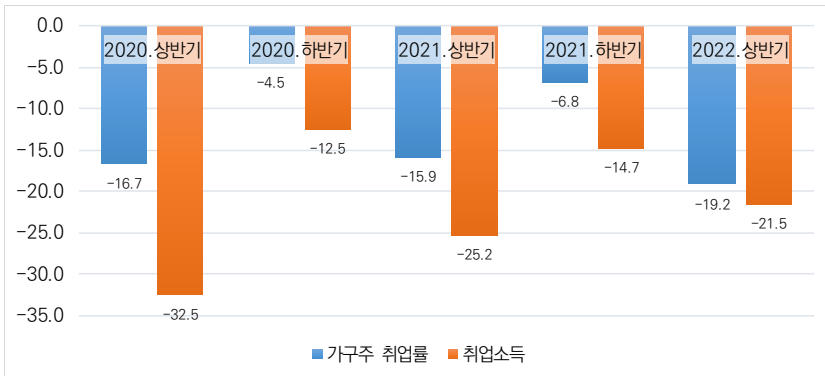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외 아동가구의 경우 여타 가구에 비하여 다양한 가구형태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일부 가구의 높은 평균소득으로 인하여 소득 감소폭이 과소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가령, 그 외 아동가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모자가구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고용률과 취업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든 2022년 상반기까지도 평균 취업소득이 2019년 상반기에 비하여 21.5만원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그 외 아동가구의 경우 이질적인 집단이 한 카테고리에 포함되면서 실제 가장 취약한 이들의 변화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5-8] 모자가구의 고용률과 취업(근로·사업)소득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 만 원/월, 2020년 실질)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가구의 시장소득을 살펴보면 취업소득의 변화를 대부분 반영한다. 여기서 시장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에서 사적이전지출을 뺀 값이다. 부부 아닌 아동가구의 경우 특히 취업소득에 비하여 시장소득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의 규모가 여타 가구에 비하여 높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시장소득의 변화 역시 취업소득의 변화를 대체로 반영한다. 다만 부부 아닌 아동가구의 경우 2020년 상반기 월평균 시장소득의 감소폭이 취업소득의 감소폭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나 여타 소득원천 역시 줄어들었음을 시사한다.

〈표 5-11〉 가구형태별 평균 시장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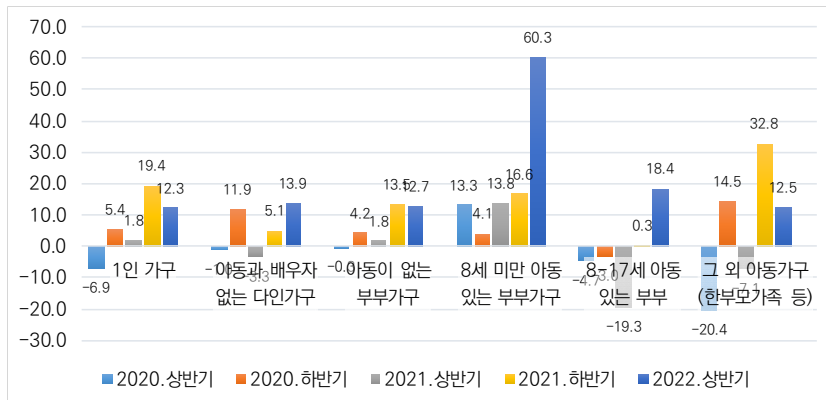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구분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1인 가구	235	220	228	225	237	239	247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가구	207	208	206	220	204	213	221
아동이 없는 부부가구	277	293	277	298	279	307	290
8세 미만 아동 있는 부부가구	244	254	258	258	258	271	305
8-17세 아동 있는 부부가구	299	304	294	301	280	304	318
그 외 아동가구 (한부모가족 등)	204	190	184	205	197	223	217

주: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소득임.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5-9〕 가구형태별 평균 시장소득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시장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공적이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은 가구별 공적이전의 수준과 공적이전의 규모를 가늠케 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가처분소득은 모든 부부가구와 1인 가구에서 시장소득에 비하여 낮았으며, 그 외 아동가구와 배우자가 없는 동거가구의 경우 시장소득에 비하여 가처분소득이 다소 높았다. 이는 그 외 아동가구와 배우자

가 없는 다인가구만이 공적이전 소득이 공적이전 지출에 비하여 컸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020년 상반기에 모든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시장소득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 5-12〉 가구형태별 평균 가처분소득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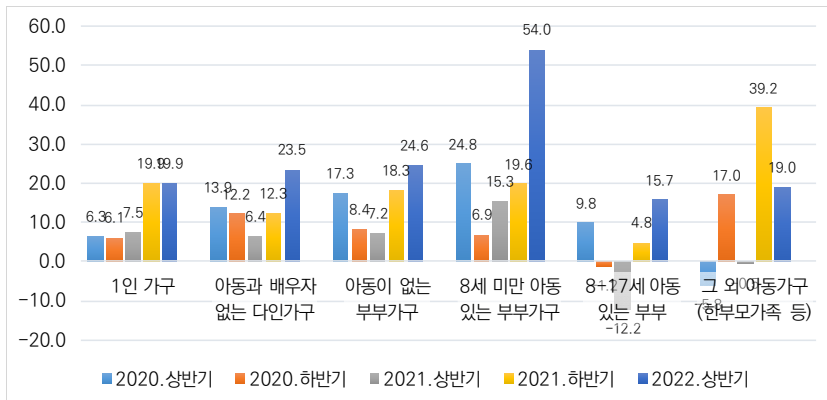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1인 가구	215	205	222	211	223	225	235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가구	208	209	222	222	214	222	231
아동이 없는 부부가구	229	235	254	242	244	254	283
8세 미만 아동 있는 부부가구	265	268	275	267	253	273	281
8-17세 아동 있는 부부가구	267	280	285	288	275	298	292
그 외 아동가구 (한부모가족 등)	206	194	201	211	206	233	225

주: 가구소득을 가구원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소득임.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5-10〕 가구형태별 평균 가처분소득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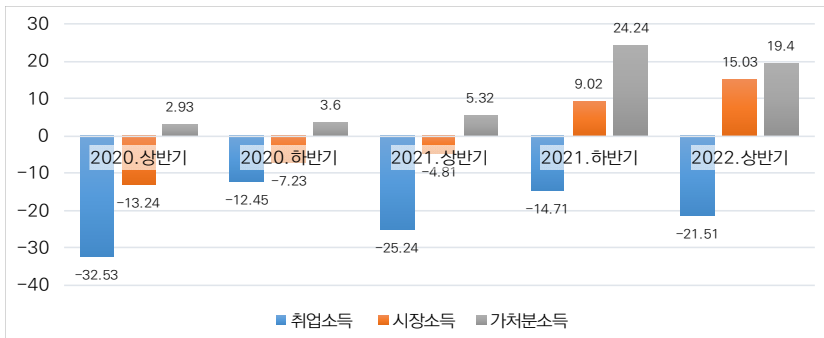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공적이전으로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가구가 실제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겪지 않았으며, 소득 감소폭이 컸던 취약연령 아동이 있는 부부가구와 그 외 아동가구의 경우 소득 감소폭이 시장소득의 감소폭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그 외 아동가구의 경우 2020년 상반기 시장소득의 감소가 20만원을 넘어섰으나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5만 8천원 가량으로 작아진다.

한편 취업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던 모자가구의 경우 시장소득은 2021년 하반기에 이르러 2019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이는 취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 원천(사적이전, 재산소득)의 소득이 낮아진 취업소득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시장소득에 더하여 공적이전소득을 통하여 코로나19 이후에도 가처분소득 자체는 줄어들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1] 모자가구의 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의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다만, 가처분소득 평균이 2019년 당시의 수치와 비교하여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빈곤율은 아동 가구의 빈곤율 증가가 관측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이 없는 가구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실질적으로 가

처분소득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 역시 2019년에 비하여 줄어드는 양상이다. 그러나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의 빈곤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폭넓은 공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소득계층의 아동빈곤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표 5-13〉 가구형태별 평균 가처분소득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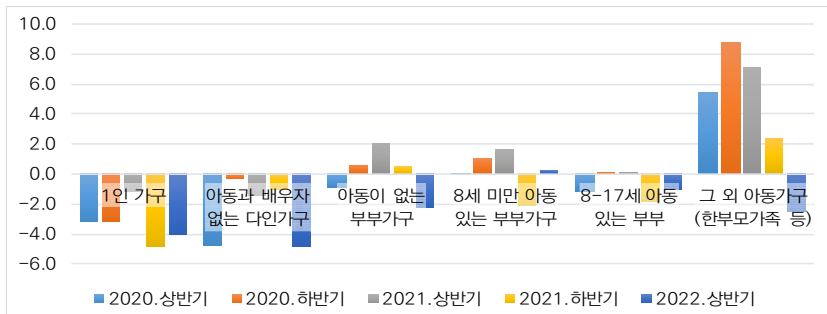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인 가구	20.0	20.1	16.8	16.9	18.8	15.3	16.0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가구	22.1	19.1	17.4	18.8	20.7	18.0	17.3
아동이 없는 부부가구	8.6	6.7	7.7	7.3	10.7	7.2	6.3
8세 미만 아동 있는 부부가구	8.2	7.2	8.1	8.3	9.8	5.2	8.4
8-17세 아동 있는 부부가구	11.0	10.2	9.8	10.2	11.1	8.4	9.9
그 외 아동가구 (한부모가족 등)	17.1	14.0	22.6	22.7	24.2	16.3	14.6

주: 빈곤율은 가구의 명목소득이 각 년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보다 낮은 비율임.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5-12] 가구형태별 가처분소득 빈곤율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p)



주: 빈곤율은 가구의 명목소득이 각 년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보다 낮은 비율임.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가구소득분위별 취업률과 취업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취업자 수의 변화가 컸던 집단은 2분위와 4, 5분위였으며 가구주 취업률 변화가 컸던 집단은 1, 2분위였고 실제 평균 취업소득의 변화가 컸던 집단은 1, 2, 5분위였다. 1분위의 경우 2019년에 대비하여 2021년 상반기까지 6~8만 원가량 취업소득이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금액의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이들의 본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비율로 보면 대략 8~12% 가량이 감소한 셈이다. 5분위의 경우 2021년 상반기까지 2019년 동기에 비하여 11만원 내외 소득이 감소하였는데, 이들의 평균 소득이 500만 원 내외라는 점에서 비율로 보면 2.3% 내외의 소득 변화를 기록하였다. 즉, 상위 분위 소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맞벌이의 비율이 높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고용률 변화가 관측되기는 하였으나, 본래 소득 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그 규모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5분위의 경우 2021년 하반기에 이르러 2019년 동기대비 소득이 큰 폭으로 높아졌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2019년 상반기에 비하여 무려 59만 원가량 소득이 증가하였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소득 증가는 3분위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된다. 하위분위 소득자의 경우 2022년 상반기에 이르러 본래 소득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14〉 가구소득분위별 취업소득(근로·사업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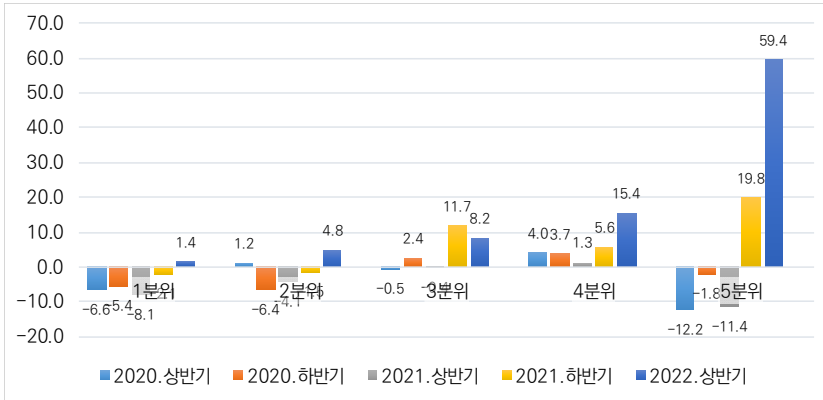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구분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1분위	63	67	57	62	55	65	65
2분위	155	167	156	161	151	166	160
3분위	225	230	225	232	225	242	233
4분위	300	312	304	316	302	318	316
5분위	503	511	491	510	492	531	562

주: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 계급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소득임.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5-13] 가구소득분위별 취업(근로·사업)소득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한편 시장소득 역시 취업소득의 변화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다. 소득 3, 4분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시장소득이 대체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어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가 관측되지 않는다.

〈표 5-15〉 가구소득분위별 시장소득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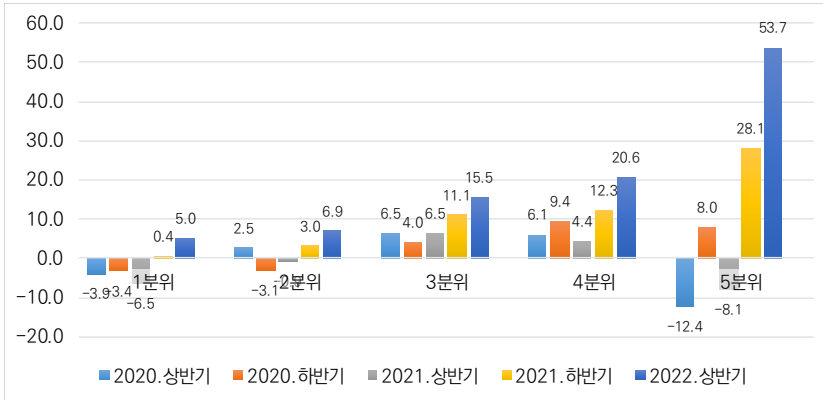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1분위	66	71	62	68	60	72	71
2분위	155	166	158	163	154	169	162
3분위	218	227	225	231	225	238	234
4분위	292	303	298	312	296	315	313
5분위	497	498	485	506	489	526	551

주: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소득임.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5-14] 가구소득분위별 시장소득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가처분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유행 시작 시기인 2020년 상반기 공적이전의 효과가 두드러진다. 모든 소득분위에서 2020년 상반기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5분위의 경우 2020년 상반기에 시장소득이 12.4만 원 줄어들었음에도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후 2021년 하반기에 다시 한번 공적이전에 따른 소득 증가가 나타난다. 공적이전의 규모가 크지 않았던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의 경우 1분위는 가처분소득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5분위 역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지는 않았으나 2019년 동기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16〉 가구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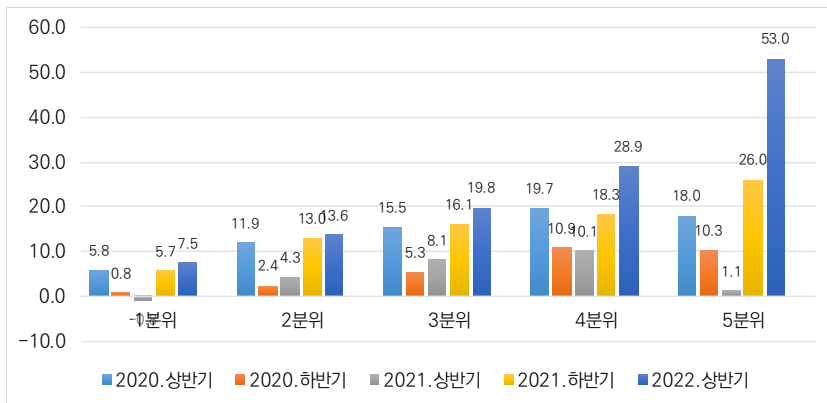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1분위	79	84	85	84	79	89	87
2분위	156	164	168	167	161	177	170
3분위	211	219	227	224	220	235	231
4분위	274	282	294	292	284	300	303
5분위	441	441	459	451	443	467	494

주: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소득임.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5-15] 가구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같은 가처분소득의 유지 또는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소득 하위 1분위에서 빈곤율 증가가 관측되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유행 시작 시점인 2020년 상반기의 경우 공적이전의 효과로 빈곤율 감소가 크지 않았으나, 공적이전 수준이 낮았던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1분위의 빈곤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코로나19에 따른 공적이전의 규모가 작았던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의 경우 평균 가처분소득은 유지되었으나 빈곤율 증가는 피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표 5-17〉 가구소득분위별 평균 가처분소득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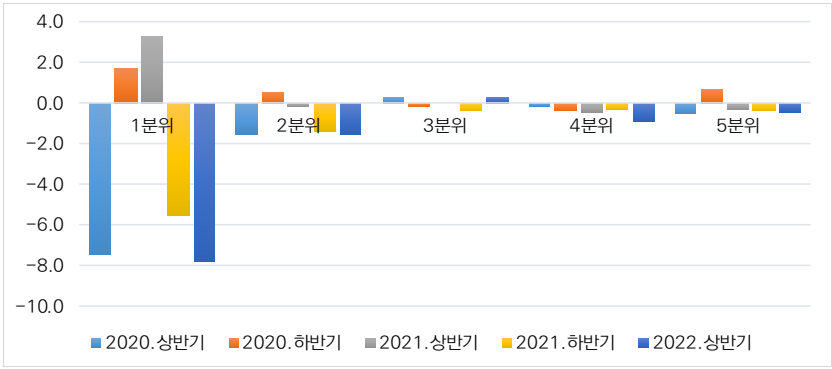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1분위	73.1	64.4	65.6	66.1	76.4	58.9	65.2
2분위	5.1	3.2	3.6	3.7	5.0	1.8	3.6
3분위	0.3	0.8	0.5	0.7	0.3	0.4	0.5
4분위	1.0	0.6	0.8	0.2	0.5	0.3	0.1
5분위	0.8	0.5	0.3	1.2	0.4	0.2	0.3

주: 빈곤율은 가구의 명목소득이 각 년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보다 낮은 비율임.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5-16〕 가구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빈곤율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p)



주: 빈곤율은 가구의 명목소득이 각 년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보다 낮은 비율임.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3. 코로나19 이후 소비 변화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소비 변화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코로나19 초기 소비가 대체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최근까지 가구형태와 가구소득에 따라서 가구의 소비지출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전체 소비지출의 규모를 살펴보면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규모가 가장 크고, 특히 취업연령대 아동이 있는 부부가구의 소비지출이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난다.

〈표 5-18〉 가구형태별 소비지출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구분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1인 가구	163	162	151	150	148	157	155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단인가구	143	143	142	148	139	148	147
아동이 없는 부부가구	161	160	156	162	166	159	172
8세 미만 아동 있는 부부가구	166	178	176	172	179	186	176
8-17세 아동 있는 부부가구	211	198	201	199	197	195	202
그 외 아동가구 (한부모가족 등)	179	176	174	173	177	180	177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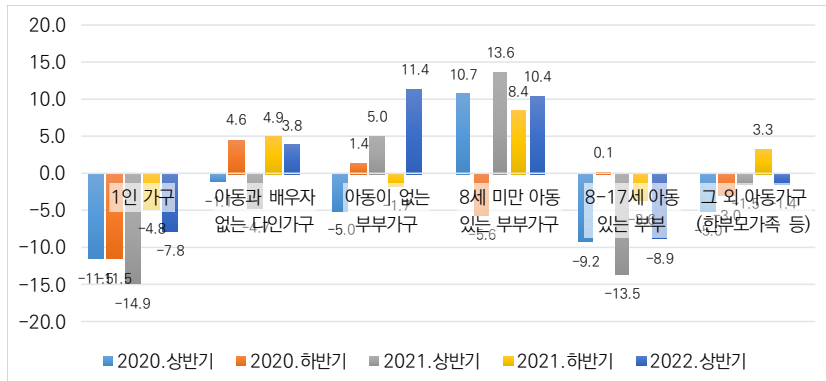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소비지출의 변화를 살펴보면, 비록 코로나19 이후 가처분소득의 감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은 2019년 동기에 비하여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장 큰 소비지출 감소가 나타난 가구는 1인 가구로, 2021년 상반기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이 2019년 상반기에 비하여 15만원 가량 낮아졌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고용률 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상반기에만 취업소득의 감소가 관측된다. 가처분소득의 경우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소비지출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하여 줄어드는데, 이는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코로나19 이후 외출이 감소한 생활상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한편, 취학연령대 아동이 있는 부부가구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며, 2022년 상반기까지도 소비지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들 집단은 코로나19 이후 취업소득의 감소가 가장 컸다는 점과 견주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 감소가 가장 컸던 2021년 상반기의 경우 이들 집단의 취업소득은 24만 원가량이 감소하였으며, 가처분소득 역시 12만원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소득 감소의 시기에 소비지출 역시 13.5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 아동가구 역시 소비지출 감소가 관측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상반기에 소비지출이 5만원 감소하여 당시 소득 감소에 따라 소비 역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7] 가구형태별 소비지출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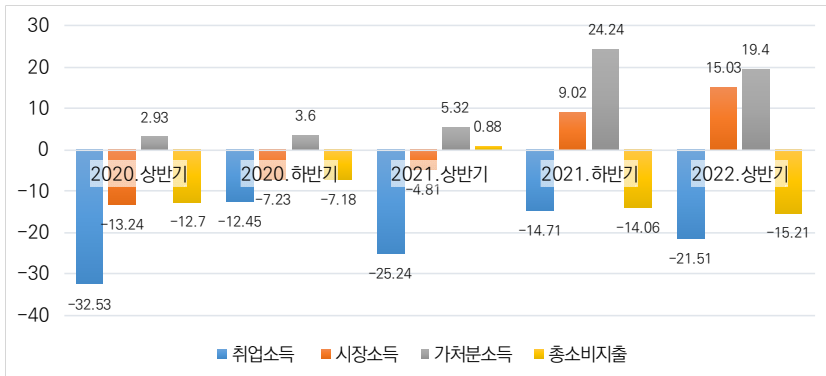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앞서 모자가구의 경우 별도로 소득변화를 살펴보았는데, 모자가구의 소비지출 역시 별도로 살펴보면, 모자가구의 소비지출은 코로나19 이후 줄곧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모자가구의 경우 실제 가처분소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후로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가구의 소비는 가처분소득의 변화보다는 취업소득의 변화와 더 닮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상황인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까지도 모자가구의 취업소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는데, 모자가구의 소비 역시 유사했다. 이는 가구의 소득 변화가 가구의 가처분소득에 의존하기보다는 정기적인 소득원천, 즉, 취업소득을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18] 모자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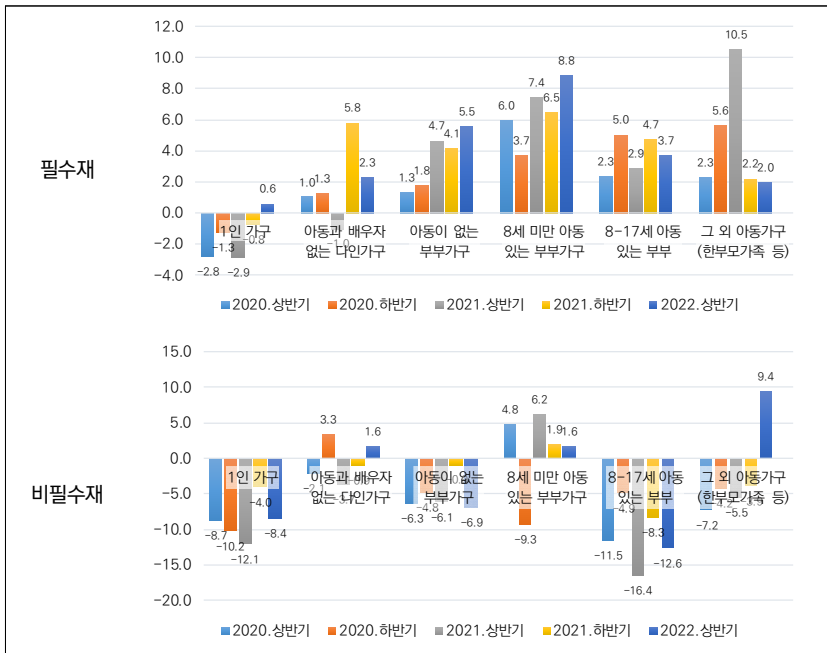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소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식주 관련 품목과 보건의료비용을 포함하는 필수재 소비의 경우 대부분의 집단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지속적으로 소비지출 규모가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그 규모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외 아동가

구 역시 필수재 소비는 증가하였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이 소비 수준이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5-19] 가구형태별 소비지출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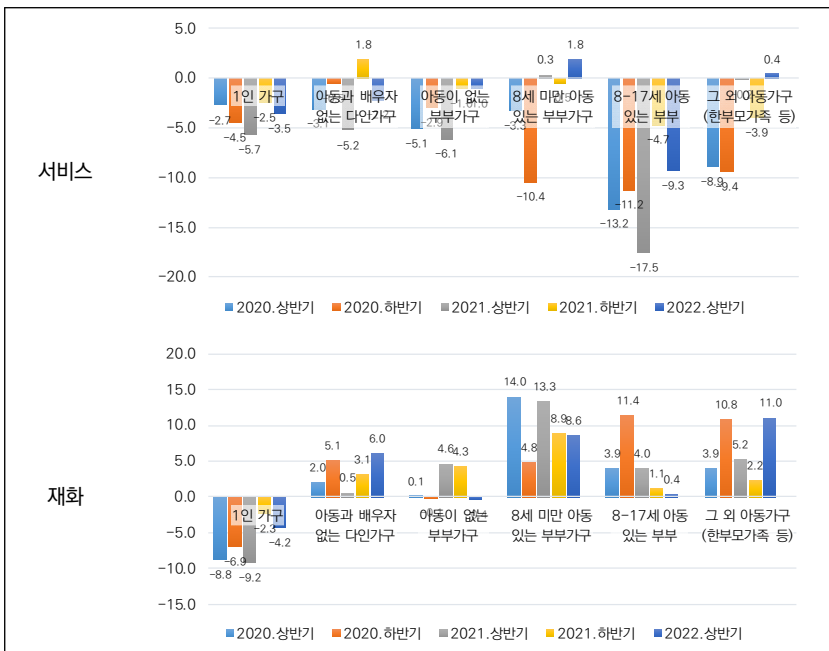
필수재가 아닌 품목에 해당하는 소비의 경우 반대로 대부분의 가구에서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내며,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부부가구에 한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부 비필수재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고용률 변화 등이 관측되기는 하였으나, 이들의 실제 취업소득 감소는 거의 관측되지 않은 반면 돌봄쿠폰 등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로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해 가능한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 소비품목을 서비스와 재화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를 살펴보면, 감염병 위기의 상황에서 서비스 지출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모든 가구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서비스 부문의 지출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소비 감소가 컸던 취학연령 아동이 있는 가구의 지출 감소가 컸다. 반면, 재화 소비의 경우 1인 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비스 소비는 줄어듦, 재화소비는 늘리는 경향성이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그림 5-20] 가구형태별 소비지출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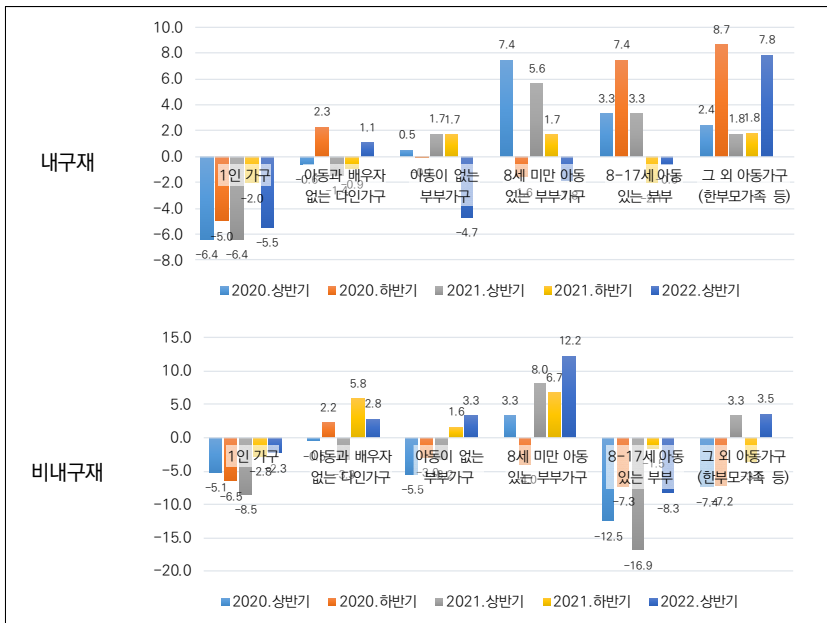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를 살펴보면 아동가구의 내구재 소비가 두드러진다. 아동이 없는 가구의 경우 내구재 소비가 대체로 줄어들었던 반면,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내구재의 소비가 대체로 늘어났다. 내구재에는 가구나 가전기기 등을 포함하는데, 코로나19 시기에 아동가구의 경우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비대면수업 등이 진행되면서 내구재의 소비가 커졌던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21] 가구형태별 소비지출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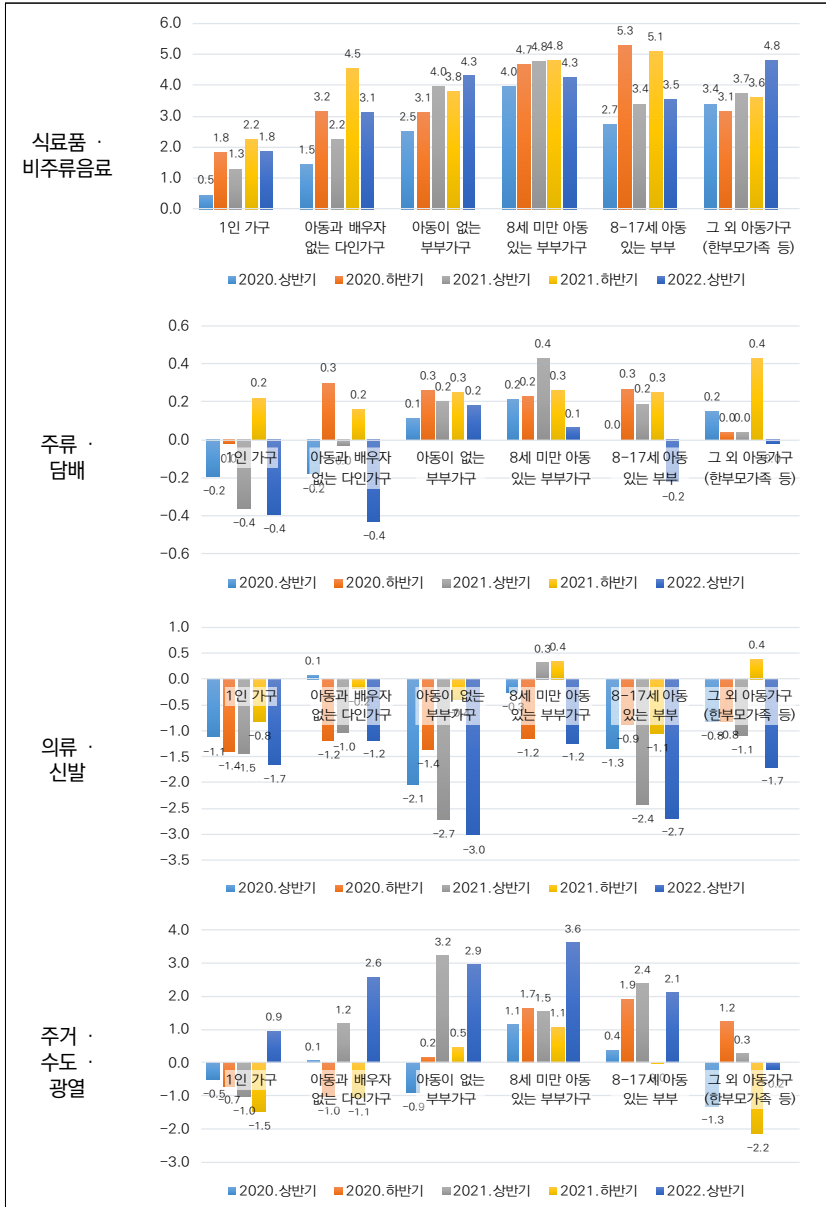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12가지 분류 항목의 소비 변화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소비의 감소가 주로 의류비, 교통비, 그리고 문화오락비, 이미용서비스와 이미용용품을 포함하는 기타 상품 및 서비스에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의 확산과 외출 감소에 따라 관련 부문의 소비감소가 1인 가구의 소비 실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든 가구에서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부문의 소비가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음식, 숙박 부문의 감소에서 보듯 외식의 감소에 따라 가구의 식료품 소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가구의 식료품 소비 증가가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다. 의류 및 신발은 모든 가구에서 대체로 감소하였으며, 보건관련 지출은 대부분 유지 또는 증가했다. 오락문화비용은 모든 가구에서 줄어들었다.

한편 아동가구의 경우 학령기 아동이 있는 부부가구와 그 외 아동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비의 비중이 크지 않으며, 이들의 감소폭 역시 크지 않았다. 즉, 코로나19 이후 감염 상황에 더하여 가구의 소득이 주로 줄어들었던 학령기 아동 가구와 그 외 아동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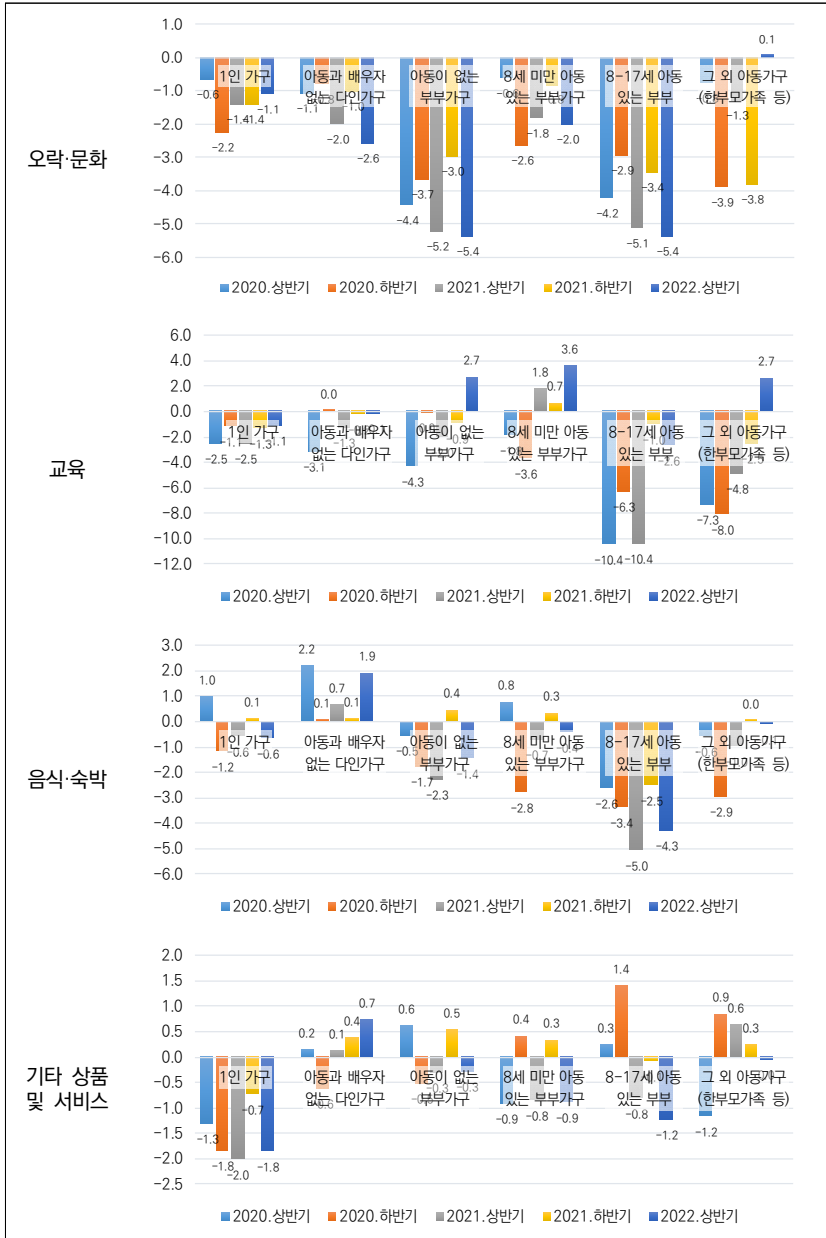
[그림 5-22] 가구형태별 소비지출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170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근로연령층 사회적 위험의 경험과 대응의 격차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가구 소득분위별 지출 양상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기본적인 소비지출 수준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하위 1분위의 경우 가구원수 제공근으로 균등화한 가구의 총 소비지출이 108만 원으로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소득 5분위의 경우 소비지출액이 256만 원으로 이들의 가처분소득 441만 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1분위 소비지출은 다소 증가한 반면, 2분위, 3분위 5분위의 소비지출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소비지출의 변화는 앞서 살펴보았듯 코로나19 이후 생활상의 변화를 일부 반영하는 수치이며, 2분위와 5분위의 경우 실제 취업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던 집 단이기도 하다.

〈표 5-19〉 가구소득분위별 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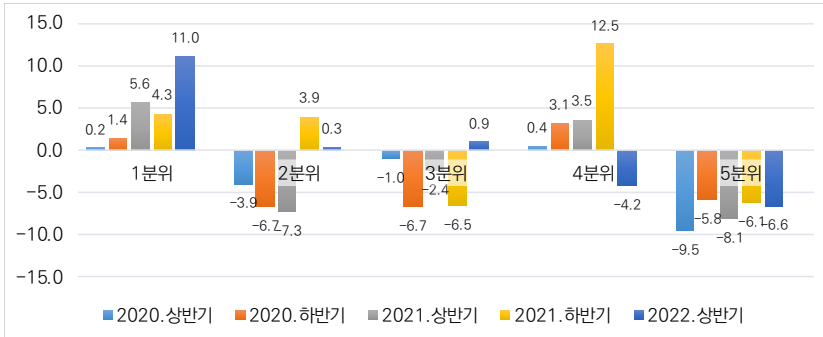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구분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1분위	108	110	108	111	113	114	119
2분위	142	143	138	136	135	147	142
3분위	163	170	162	163	160	164	164
4분위	189	186	189	189	193	198	185
5분위	256	248	246	242	248	242	249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5-23] 가구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소득분위마다 지출 항목별 소비 변화의 경우 전반적인 양상이 가구형태별 양상과 유사하므로 부록으로 첨부하는 것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4. 코로나19 이후 불평등 지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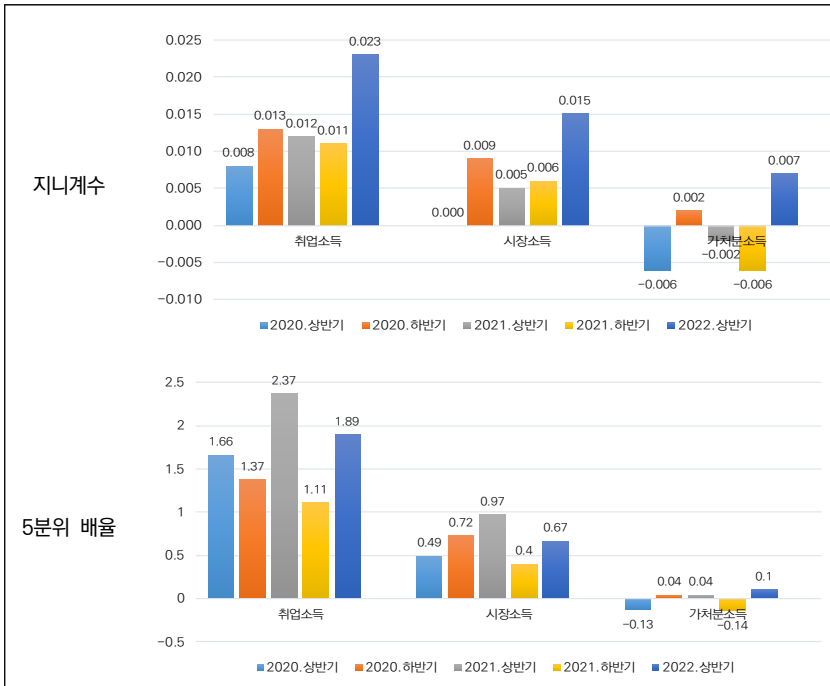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코로나19 이후 일부 고용률 변화가 관측되었으며, 취업소득의 변화 역시 취약층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빈곤율의 경우 일부 공적이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의 경우 빈곤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다만, 평균 가처분소득은 코로나19 이전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소득의 불평등 지표 역시 이러한 노동시장 상황과 공적이전의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취업소득의 지니계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회복기인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주로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나타나면서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의 증가가 큰 폭으로

관측된다. 5분위 배율 역시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에 특히 취업소득의 불평등 수준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 지표는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을 합한 시장소득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며, 공적이전소득과 이전지출을 더한 가처분소득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하여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5-24] 가구소득의 불평등지표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0~1,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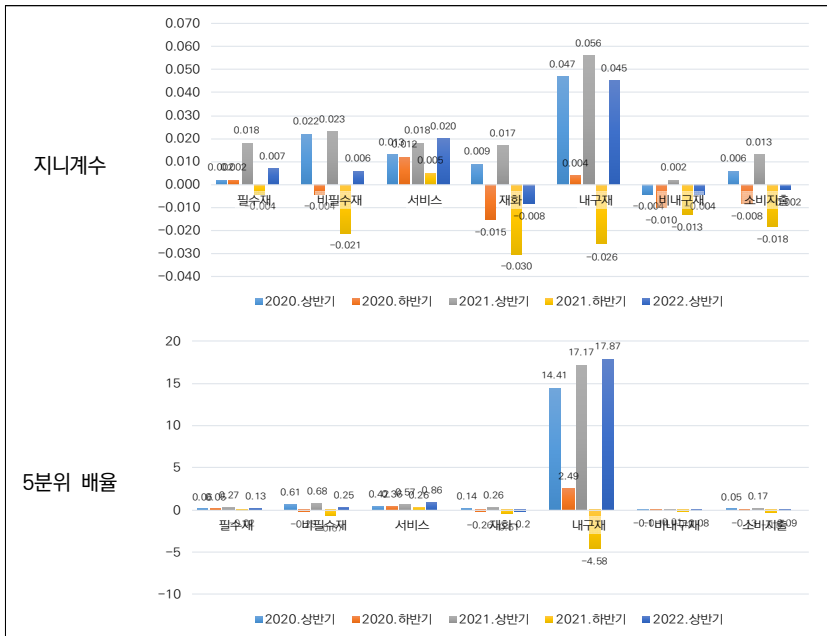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렇다면 가구의 소비 불평등 역시 코로나19 이후 소득불평등 추이를 따라갈까? 앞서 가구 소비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소비 생활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취업소득의 변화가 컸던 취약연령의 아동이

있는 부부가구와 그 외 아동가구의 소비 감소가 컸다. 이에 소비 불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소비의 하위 항목에 따라 불평등 수준이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하는 2020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의 경우 전반적인 소비 불평등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이외 시기에는 소비지출의 불평등 수준은 낮아진다. 특히 내구재 소비의 경우 취업소득의 5분위 배율 변화가 컸던 시기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앞서 모자가구의 소득과 소비 양상에서 살펴보듯, 가처분소득의 불평등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 불평등은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닮은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내구재와 서비스, 비필수재와 같은 소비 부문에서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진다.

[그림 5-25] 가구소득의 불평등지표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0~1, 배)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가구를 단위로 코로나19 이후 고용과 소득, 소비의 변화를 가구형태와 가구의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의 위험이 주로 아동이 있는 가구의 여성과 노동시장 내 본래 취약한 위치에 있는 저임금 집단에 집중되었다는 3~4장의 결과에 비추어 주로 저소득 가구와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고용과 소득, 소비 감소가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장의 결과에서는 실제로 아동 가구의 맞벌이 비율 감소를 비롯한 취업자 수 감소가 확인되었다. 다만, 가구 소득계층 별로는 1분위보다는 2분위의 취업자 수 감소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소득의 최하위층의 경우 본래 가구 내 취업자 수가 적다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고용의 감소는 대부분 소득과 소비의 변화로 이어졌으나, 몇 가지 예외가 있었다. 우선 아동가구의 고용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고용감소가 곧 취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미취학 아동이 있는 부부 가구의 경우 실제 취업소득은 줄어들기보다는 정체 또는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앞서 4장에서 살펴보듯 아동이 있는 가구의 부모의 휴직 비율이 높기는 하였으나 유급휴가휴직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과도 연결되는 양상으로 보인다. 어린 아동이 있는 부부가구의 경우 돌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가구의 취업소득 감소는 크지 않았으며, 취업자 수의 회복 역시 빠르게 이뤄졌다.

반면 취학연령의 아동이 있는 부부가구의 경우 취업자 수의 감소와 취업소득의 감소가 큰 폭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미취학연령에 비하여 취학연령 아동의 돌봄 부담이 컸을 가능성이 있다. 미취학연령 아동의 경우 긴급보육의 형태로 아동의 공적 보육 시스템이 작동한 반면, 취학연령 아동의 경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하여 학습과 돌봄에 있어서 부모의 필요도가 더 컸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서울 초등학교의 등교일수는 42.4일에 불과하여 코로나19의 유행이 크지 않았던 전남의 136.7일에 3분의 1에 불과하였다(김수현, 2021). 이 같은 등교일 수의 감소는 곧 높은 돌봄 부담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취학연령인 아동이 있는 부부가구의 취업자 수 감소가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돌봄 공백으로는 취업소득의 감소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계속되는 양상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노동시장 요인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여성이 노동시장 내의 일자리 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위기가 노동시장의 이탈을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앞서 3장에서 나타나듯 여성, 그리고 중장년층은 높은 대면접촉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속한 비율이 높았다. 즉, 이들 여성의 노동시장 내 위치로 인하여 취업소득의 감소가 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아동가구 중에서도 기타(부부가 아닌) 아동가구의 경우 취업자 수의 감소와 취업소득의 감소가 큰 폭으로 관측되었다. 물론 여러 공적지원을 토대로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크지 않았음에도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자가구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취약성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과 노동시장 내의 취약성을 모두 경험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의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비스 지출이 감소하고 재화 지출

이 증가하는 등 감염병 위험에 따른 새로운 생활상을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소득의 변화 역시 반영하고 있었다. 주로 취업소득이 감소한 집단의 소비지출의 감소가 컸는데, 가구 형태별로는 취학연령 아동이 있는 부부가구와 기타 아동가구(한부모 가족 등)의 소비지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소득수준별로는 취업소득의 감소가 컸던 2, 3, 5분위의 소비 감소가 컸는데, 특히 2분위의 경우 본래 소비수준을 고려할 때 소비감소율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공적이전을 통한 가처분소득의 양상과는 별도로 취업소득의 변화를 따르는 양상이다.

이는 분배지표의 양상과도 동일한 패턴이다. 가처분소득의 분배 지표는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내 불평등, 즉, 취업소득의 불평등은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노동시장 불평등 강화는 곧 소비 지출의 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여러 소비 지출 항목 중에서도 내구재와 서비스, 비필수재 부문의 소비지출 불평등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장의 결과는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내 취약성은 곧 가구의 소득을 이어졌음을 확인시켜 준다. 특히 가구 내에서 이를 완충할 수 없는 모자가구와 같이 더 큰 취약성을 내포한 집단에서 이러한 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컸음을 확인시켜준다. 더불어 공적지원을 통해 가처분소득 수준에서는 이러한 취약성이 일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하위 취약계층의 빈곤율은 증가하였다. 또한 소비지출의 감소, 즉, 생활의 어려움은 가처분소득 보다는 취업소득의 양상을 따른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제6장

코로나19로 인한 가구경제활동 변화와 정책 대응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6장

코로나19로 인한 가구경제활동 변화와 정책 대응

제1절 서론

이 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 근로연령 가구의 유형 및 소득계층별 가구의 고용변화와 소득·소비의 변화, 그리고 코로나19 지원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의 역할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Chetty et al.(2020)과 Kim et al.(2020)은 각각 중국 및 한국의 카드 거래 데이터를 이용해 코로나19 발생 위험 높은 지역과 산업에서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지원금의 지출 증가 효과도 낮았음을 보였다. Kubota, Onishi & Toyama(2020)는 일본의 금융정보 데이터를 이용해 코로나19 지원금(Special Cash Payment)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구 소득수준 변화와 가계자산의 유동성, 금융자산 보유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였으며, Piyapromdee and Spittal(2020)은 영국에서 코로나19의 고용변화와 직업 및 산업 특성 간 관계를 추정하고, 가구의 고용변화와 이에 따른 소비영향을 평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큰 지역과 부문에서 소비가 감소하고 가구의 대응력이 낮을 때 이 영향은 더 크며 정책의 효과도 감소한다는 결과를 다수의 국가 데이터를 이용한 선행연구가 보여주고 있다.

이 장에서는 Piyapromdee and Spittal(2020)과 같이 한국의 가구패널자료를 이용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변화와 이 노동시장의 영향이 근로연령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 가구소득과 지출의 차이(gap)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

하기 위해 정부가 시도한 다양한 수준과 방식의 정책개입이 누구에게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구간 및 가구유형별 고용, 소득, 소비로 이어지는 가구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공적이전소득 및 코로나19 지원을 요약하였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 분석자료와 방법론을 소개하고, 3절에서 가구유형과 소득계층 교차집단의 고용, 소득, 소비 변화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가구유형별·소득계층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코로나19 지원금 지원 실태를 파악한다. 4절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 마무리한다.

제2절 분석 방법

이 장에서는 2019~2021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가구의 고용과 소득 및 소비 실태, 공적이전소득과 코로나19 지원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특성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가구소득과 가구유형을 구분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가구소득은 2020년에 조사된 지난 해 2019년 한 해 소득으로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눠 균등화한 경상소득을 5개 분위로 나누었다. 가구유형은 5장과 동일하게 1인 가구, 아동과 배우자가 없는 다인가구, 아동 없는 부부, 8세 미만 아동 있는 부부, 8-17세 아동 있는 부부, 한부모가족 등 그 외 아동 있는 가구로 구분하였다. 이는 저소득계층이 정부지원의 첫 번째 지원 대상이 되는 취약성을 가지기 쉽기 때문이고, 자녀 유무와 근로능력있는 가구원 수 등 가구의 노동공급측 특성이 가구유형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도 소

득과 자녀 유무, 자녀의 연령, 한부모가족 여부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제도 역시 이러한 기준을 주되게 사용했다.

고용은 가구주 고용 변화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가구주 1인의 고용 변화는 한국노동패널 제23, 24차 부가조사에서 2020년 3월과 2021년 1월 기준 이직, 휴가휴직 사용, 휴가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일자리 유지 3가지 집단을 배타적으로 정의하였다. 맞벌이 부부의 고용변화는 가구소득에 있어서 2인의 취업자 중 1인이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와 2인 모두 이직하게 되는 경우, 2인 모두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가구내 소득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배타적으로 구분하였다. 1인 취업자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주나 배우자 1인의 실직이 의미하는 바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소득은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2가지를 사용한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전이전소득의 합에 사적이전지출을 뺀 값이다. 소득분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에 사회보험 및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값이며, 처분가능소득은 경상소득에 공적이전지출을 뺀 값이다. 코로나19는 노동시장 충격으로부터 근로연령층 가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주된 원천으로 하는 시장소득의 변화를 비교한다. 그리고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2가지를 비교하는 것은 코로나19 전후에 공적이전소득이 가구특성별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기초 정보를 얻고자 함이다. 소비지출은 노동패널 가구용 설문지 소비 영역의 '작년 한해 동안 생활비 월평균'액(만원) 응답값을 사용하였다(한국노동연구원, 2022a).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공적이전소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23차, 24차 부가조사(2020년, 2021년 조사)의 코로나19 지원금 응답을

활용하였다. 2차례 부가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및 인식 변화라는 부제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부지원금 관련 설문은 크게 가구 지원금과 개인 지원금에 대한 것으로 각 지원금의 2020년 수혜여부, 2021년 수혜 여부를 (1) 예, (2) 아니오, (3) 신청중으로 질문하고, 2020년과 2021년의 수혜 금액을 각각 응답토록 한다. 지원금의 유형은 가구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아동돌봄쿠폰, 아동특별돌봄지원금, 비대면 학습지원금, 자가격리 대상자 구호 물품, 기타, 개인 지원금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경기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1~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이다. 개인 지원금에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유급휴가지원이 있지만 사업주 지원이므로 정책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한국노동연구원, 2022a).

분석을 위해 근로연령 가구만을 대상으로 균등화 경상소득 5분위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가구유형별로 구분하였는데 분석대상 기간 동안 가구유형별 분석사례 수는 <표 6-1>, 표본가중치를 사용한 소득분위별 가구유형 분포는 [그림 6-1]과 같다.

<표 6-1> 분석대상 사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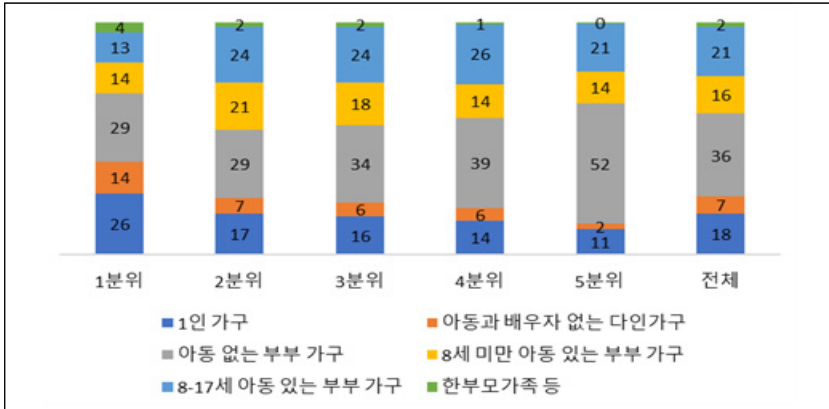
(단위: 가구)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인 가구	398	280	204	215	124	1,221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가구	324	180	145	125	70	844
아동 없는 부부	964	1,089	1,149	1,328	1,496	6,026
8세 미만 아동 있는 부부	374	684	484	398	292	2,232
8-17세 아동 있는 부부	539	702	891	644	573	3,349
그외 아동가구(한부모가족)	131	41	29	20	18	239
전체	2,730	2,976	2,902	2,730	2,573	13,911

주: 분위는 2019년 가구의 경상소득(2020년 조사)을 균등화한 후 가구주가 15~64세인 가구를 대상으로 5개 분위로 구분하였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6-1] 소득분위별 가구유형 분포

(단위: %)



주: 분위는 2019년 가구의 경상소득(2020년 조사)을 균등화한 후 5개 분위로 구분하였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제3절 분석 결과

1. 가구 고용·소득·소비 변화

이 소절에서는 가구유형 및 가구소득분위별로 2020년 3월과 2021년 1월 기준의 고용변화를 살펴본다. 크게 3가지 구분으로 취업 가구주의 고용변화, 단독 취업자와 맞벌이 취업자 가구의 고용변화, 부부가구에서 홀벌이와 맞벌이 취업 가구의 고용변화를 각각 비교한다. 가구주의 취업상태가 가구 경제에서 가지는 중요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구주의 고용변화를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단독 취업자 또는 부부가구 중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서 1인의 고용변화는 가구 경제에 다른 중요도를 갖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여 코로나19가 가구 경제에 미친 충격이 어떤 모습을 갖는지 추가로 살펴본다.

[그림 6-2]와 [그림 6-3]은 가구주의 고용변화를 2020년 3월, 2021년 1월 두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한 결과이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이직률의 경우 대부분의 가구유형의 1분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노동시장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이 증가하면서 이직률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2020년 3월과 2020년 전체에 경험한 이직 경험률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2020년 전체의 이직경험을 가구 유형별로 보면 한부모가족 등의 가구주 이직률이 가장 높고,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가구, 1인 가구 순이다. 상대적으로 부부 가구의 가구주 이직률이 낮는데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 또는 중년층 정도의 연령을 보이는 아동 없는 부부 가구가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해 있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는 5장에서 가계동향조사로 동일하게 경상소득 5분위계층에서 2019년 동기 대비 취업률 변화를 관찰했을 때 1분위의 가구주 취업률 감소가 2020년 상·하반기 모두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관된다.

가구주가 휴가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을 보면 두 시점의 모습이 다르다. 2020년 3월에는 부부 가구보다 1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는 가구에서 휴가휴직 사용비율이 높은 반면,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취학, 취학연령 아동 있는 부부가구의 휴가휴직 사용률이 다른 가구유형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달라진 생활상으로 발생한 수요충격, 돌봄의 필요로 인한 공급측 요인이 휴가휴직의 필요를 낳았다면, 코로나19가 지속된 후에는 이직하거나 특히 부부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에서 휴가휴직을 사용하면서 가구내 돌봄수요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기준 부부 가구에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휴가휴직 사용비율이 높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림 6-2] 가구유형·소득분위별 취업 가구주 고용변화(2020년 3월)

(단위: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6-3] 가구유형·소득분위별 취업 가구주 고용 변화 (2021년 1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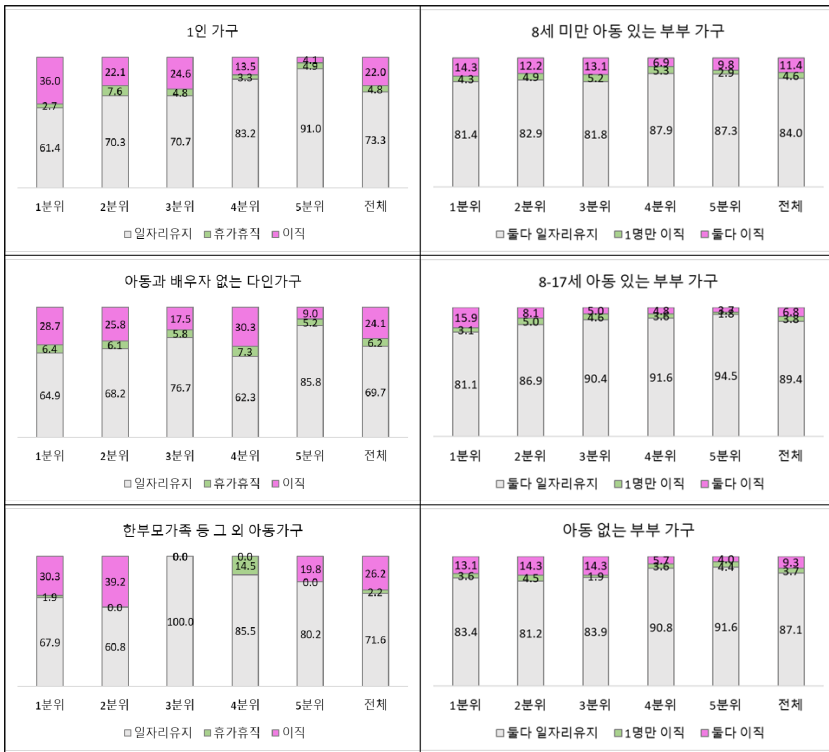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6-4]와 [그림 6-5]에서 가구 내 단독 취업자와 맞벌이 취업자의 고용변화를 비교하였다. 취업자가 1인인 가구에서 가구주의 실직은 가구 내 소득활동 전체의 중단을 의미하는 반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1인이 일 자리를 그만두더라도 다른 취업자가 취업을 지속할 경우 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험은 다르기 때문이다.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보면 단독 취업자 가구의 이직률이 맞벌이 가구에서 둘 다 일자리를 잃는 비율보다 훨씬 높아서 정책개입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 가구유형 분포에서도 1분위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26%로 가장 높고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

가구가 다수 분포해있으며 부부 가구의 비중은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부모가족 등도 전체에서 1분위 비중이 가장 높다. 1인 취업자 가구가 이미 저소득 가구로 취약성이 높고 코로나19의 충격 또한 부부 가구보다 더 크게 받았을 위험이 있다.

[그림 6-4] 가구유형·소득분위별 단독·맞벌이 취업자 가구 고용변화(2020년 3월)

(단위: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6-5] 가구유형·소득분위별 단독·맞벌이 취업자 가구 고용변화(2021년 1월)

(단위: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6-6]과 [그림 6-7]은 부부 가구 중 홀벌이인 경우와 맞벌이인 경우의 고용변화를 비교한 결과이다. 가구 내 1인만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배우자 없는 가구 또는 부부 가구 중 홀벌이), 해당 가구원의 실직이 곧 가구 소득활동 전체의 중단을 의미하는 반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한 쪽이 일자리를 그만두더라도 다른 취업자가 취업을 지속하여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의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 모두 맞벌이 가구에 비해 홀벌이 가구에서 고용 변

화가 많이 발생하며, 아동이 없거나 학령기에 접어든 부부 가구에서 고용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1년의 경우 아동이 없거나 학령기에 접어든 부부 가구 중 1~2분위에서는 이직이나 휴업·휴직을 경험한 비율이 상당히 높아 고용 측면에서 코로나19의 충격을 더 크게 받았을 위험이 있다.

[그림 6-6] 가구유형·소득분위별 흠별이·맞별이 취업자 가구 고용변화(2020년 3월)

(단위: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6-7] 가구유형·소득분위별 흠별이·맞별이 취업자 가구 고용 변화(2021년 1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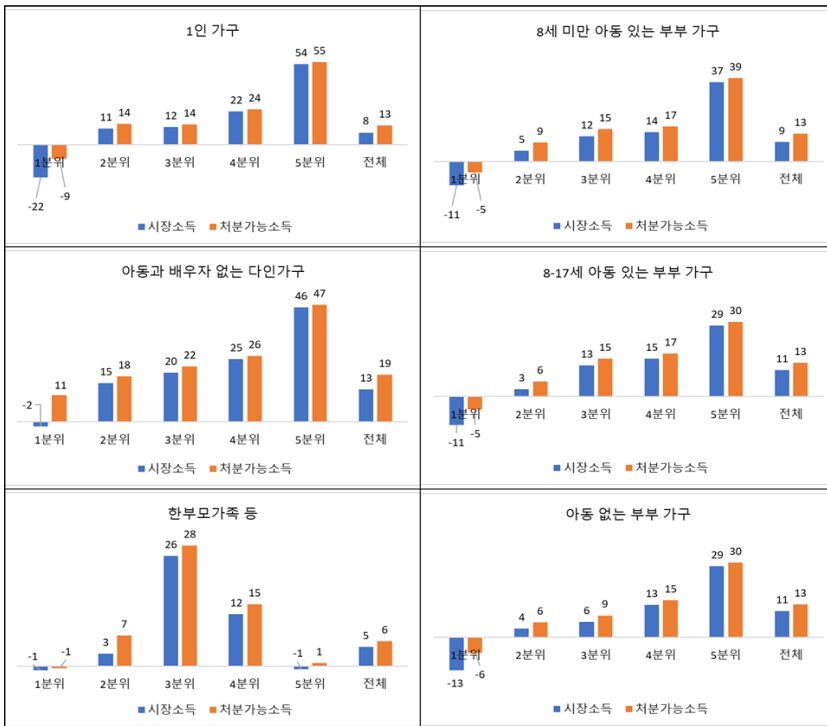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6-8]에서 가구유형·소득분위별 2019년 대비 2020년의 가구소득 증감률을 살펴보면 모든 가구 유형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낮으며 고소득 분위로 갈수록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코로나19 지원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증감률의 차이는 1분위와 2분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저소득층이 공적이전소득의 혜택을 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소득이 낮아서 동일한 지원액도 더 큰 증가율로 나타나는 효과일 수 있다는 데 유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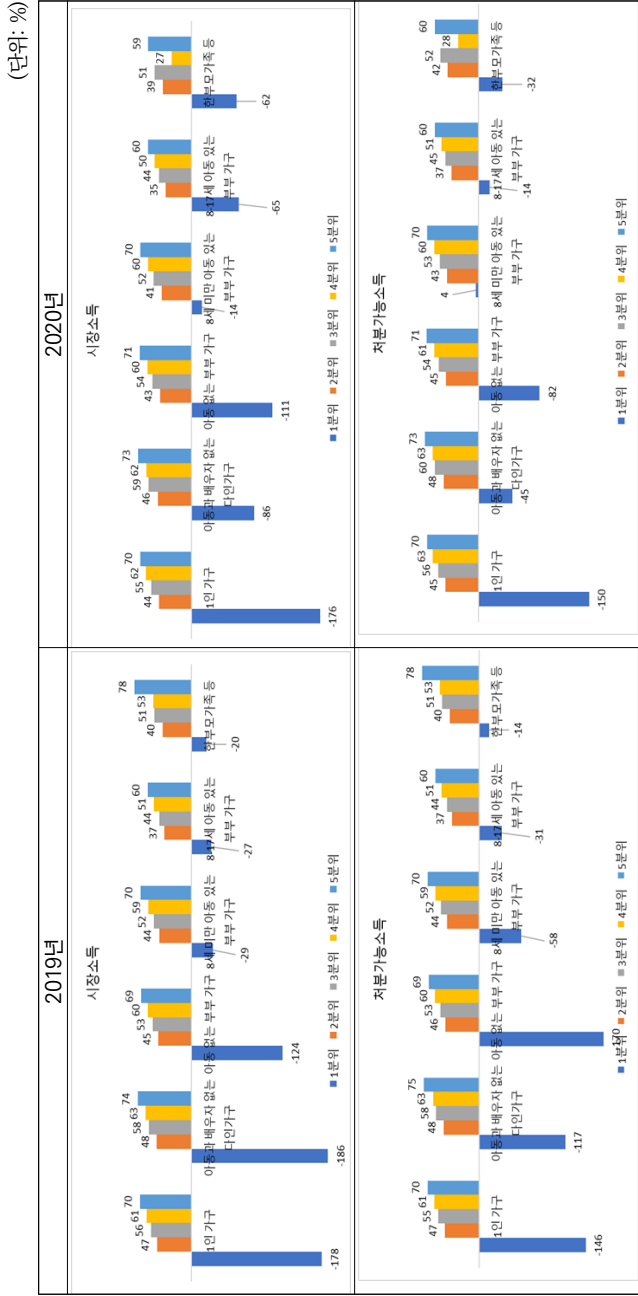
[그림 6-8] 가구유형·소득분위별 가구소득 증감률 (2019→2020년)

(단위: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6-9] 경상소득분위·가구유형별 소득 대비 소득과 소비지출의 갭 비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6-9]는 소득과 소비지출의 차이가 각 가구의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2019년 코로나19 이전 각 분위별로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보면 1분위를 제외하고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소비지출보다 커서 저축여력이 있으며,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율이 거의 동일하여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 발생 후 소득 대비 저축 여력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분위는 소비지출이 시장소득이나 가처분소득보다 큰데 공적이전소득과 지출을 포함한 후 이 차이가 줄어드는 공적이전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20년에도 이러한 패턴은 유사한데 2020년에도 가장 큰 취약성을 보이는 가구는 1인 가구와 아동 없는 가구들이지만, 2019년에 비해 8-17세 아동 있는 부부 가구와 한부모가족 등의 시장소득 기준 갭이 훨씬 커져 노동시장 위험과 이로 인한 충격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가구에서 위기의 충격이 컸고, 취약연령아동이 있는 가구와 모자가구 등 한부모가족에서 노동시장 충격과 소득감소가 나타났음을 보여준 5장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하지만 가처분소득 기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의 차이인 적자폭은 크게 감소해 코로나19의 현금지원이 아동가구의 소득을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은 시장소득에서의 적자폭을 크게 줄였지만 2019년보다 여전히 나빠진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다.

2. 공적이전소득과 코로나19 지원

이 소절에서는 가구경상소득 분위별, 가구유형별 주요 공적이전소득의 2019년, 2020년 수급률과 수급액, 코로나19 지원제도의 2020년 수급률과 수급액을 보고한다. 이는 소득계층과 가구유형별로 코로나19 전후의 공적이전소득 지급 수준과 비율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비교하고, 코로나

19 이후의 공적이전소득이 가구의 고용, 소득, 소비 변화로 이어지는 가구의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정책효과가 어떠했는지 가늠해 보기 위함이다.

〈표 6-2〉~〈표 6-4〉에서 가구소득 분위별로 공적이전소득 각 제도를 수급하는 경우의 수급자 평균 수급액, 평균 수급률, 평균 수급액을 각각 제시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평균수급률이 1.7~1.9%로 낮고, 1분위에서도 2019년 7.7%~2020년 8.7%로 낮지만 보충급여이기 때문에 다른 여느 제도보다 수급액이 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 경우 평균 496만 원을 수급하였다. 다음으로 수급액이 큰 제도는 사회단체보조금이지만 수급률이 0.3~0.4%에 불과해 제도의 영향은 미미하다. 가구주가 근로연령층인 가구로 대상을 제한하였지만 가구원에 노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가구원 4.7~4.8%가 연 153~171만 원을 수급하여 비중 있는 공적이전제도로서 기능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18년 제도 확대 후 실제로 수급률 및 수급액 확대가 확인되는 첫 해가 2019년이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이 2019년 2.9%, 2020년 2.7%로 관찰되는 것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추정되는 수급률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연평균 71~73만 원, 43~48만 원으로 여전히 수급액 수준이 높지 않다. 그 외 아동수당, 장애수당, 농어업 정부보조금,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유가보조금, 체육연금 등을 포함하는 정부보조금이 포함된다.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제도가 수급액과 수급률이 미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코로나지원금 수급률이 전체 개인의 99.1%로 대부분의 개인이 평균 연 75만원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이다.

〈표 6-2〉 가구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 수급자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년)

구분	기초 생활 보장	기초 연금	사회 단체 보조금	코로나 지원금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기타 정부 보조금	합계
2019년								
1분위	489	167	265	.	76	45	32	274
2분위	395	149	722	.	66	40	2	159
3분위	230	148	140	.	63	33	31	132
4분위	857	139	445	.	89	51	18	157
5분위	5801	146	759	.	72	.	1	209
전체	496	153	489	.	73	43	19	211
2020년								
1분위	511	211	114	77	79	53	13	149
2분위	302	148	402	78	64	40	17	91
3분위	324	159	70	76	44	35	4	86
4분위	.	165	397	73	65	38	3	80
5분위	840	144	702	74	74	150	7	83
전체	498	171	278	76	71	48	9	9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표 6-3〉 가구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 평균 수급률

(단위: %)

구분	기초 생활 보장	기초 연금	사회 단체 보조금	코로나 지원금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기타 정부 보조금	합계
2019년								
1분위	7.7	8.0	0.5	0.0	7.6	7.6	0.9	23.3
2분위	0.7	4.1	0.6	0.0	4.6	3.2	0.1	11.0
3분위	0.3	4.0	0.1	0.0	1.4	1.7	0.8	7.0
4분위	0.0	4.2	0.3	0.0	1.0	0.7	0.5	6.2
5분위	0.0	3.8	0.1	0.0	0.1	0.0	0.1	4.0
전체	1.7	4.8	0.3	0.0	2.9	2.6	0.5	10.3
2020년								
1분위	8.7	7.0	0.6	99.3	7.9	7.8	1.0	99.5
2분위	0.5	3.8	0.6	99.1	3.3	2.6	0.3	99.2
3분위	0.2	5.2	0.5	98.9	1.2	1.0	0.3	99.0
4분위	0.0	3.2	0.1	99.5	0.8	0.7	0.0	99.5
5분위	0.0	4.3	0.3	98.7	0.4	0.0	0.2	98.9
전체	1.9	4.7	0.4	99.1	2.7	2.4	0.4	99.2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표 6-4〉 가구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년)

구분	기초 생활 보장	기초 연금	사회 단체 보조금	코로나 지원금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기타 정부 보조금	합계
2019년								
1분위	37	13	1	0	6	3	3	64
2분위	3	6	4	0	3	1	0	17
3분위	1	6	0	0	1	1	1	9
4분위	0	6	1	0	1	0	1	10
5분위	2	6	1	0	0	0	0	8
전체	9	7	2	0	2	1	1	22
2020년								
1분위	45	15	1	77	6	4	1	148
2분위	1	6	2	77	2	1	1	90
3분위	1	8	0	75	1	0	0	86
4분위	0	5	1	73	1	0	0	80
5분위	0	6	2	73	0	0	0	82
전체	9	8	1	75	2	1	0	97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노동패널 23차, 24차 부가조사에서 코로나19 정부지원금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는 2021년 조사에서 2020년에 전체에 대해 질문한 내용이므로 2020년 3월 수급여부를 묻는 23차 부가조사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수급률이 96%인데 2020년 제2차 추경에서 12.2조원 규모의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가구지원금이므로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수급자로 보고 가구지원액 총액을 균등화한 금액을 수급액으로 보고하였다. 전체 평균 52.3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소득계층별 차이는 없다. 다음으로 수급률이 높은 제도는 긴급복지지원제인데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긴급생계자금, 의류,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를 계기로 확대되었다. 전체 12.2%가 수급하였고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수급하였으며, 수급액은 평균 40.8만 원이다.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은 15.6% 수급률도 2~3분위에서 상대적으로 수급률이 높아 미취학아동의 분포를 가늠할 수 있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제도 설계상 아동돌봄쿠폰보다 포괄성은 높고 지원액은 약간 낮다. 수급률 분포는 미취학 아동에 초등자녀가 더해졌지만 2~3분위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수급률을 보인다. 중학생 등 만13~15세 대상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2, 4분위 수급률이 9.4%로 높은 편이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은 수급률이 높지 않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개인긴급재난지원금의 수급률은 6%대로 지원액은 22.3만 원이며 보편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소득구간별 차이는 없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에서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근로자, 영세자영자를 대상으로, 2차부터는 5천만 원 이하의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50만 원(기수급자)~150만 원(신규) 현금지원으로, 여기서는 1~3차까지의 수급여부와 수급액을 질문하였다. 수급률은 0.3%로 매우 낮지만 수급액은 119.6만 원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연령층에게 비중있는 소득지원이었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소득지원이라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집합금지에 속하는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 영업제한 200만 원, 일반업종 100만 원을 지급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있다.

코로나19 지원금의 소득구간별 지급 결과를 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제외하고는 저소득가구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없고 대부분 보편 지급되었거나, 아동의 연령에 따른 지급, 특고·프리랜서 및 소상공인 취업형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런 분포로 인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재난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 역진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남재현, 이레혁, 2021).

〈표 6-5〉 2020년 코로나19 정부지원금 수급률과 수급액

(단위: %, 만 원/년)

구분	긴급 재난 지원금	긴급복 지지원 제도	아동 돌봄 쿠폰	아동특 별돌봄 지원금	비대면 학습 지원금	기타 지원	개인긴 급재난 지원금	긴급고 용안정 지원금	소상공 인버텐 목자금	기타 개인 지원
수급률										
1분위	95.8	19.3	13.9	14.5	7.4	2.3	6.2	0.3	0.6	0.1
2분위	96.7	13.1	17.1	20.3	9.4	3.6	6.5	0.3	0.6	0.3
3분위	95.2	10.3	15.4	17.7	7.4	2.3	6.2	0.4	0.7	0.2
4분위	95.3	9.9	10.5	14.7	9.4	3.3	6.7	0.2	0.7	0.3
5분위	96.8	8.3	9.1	11.0	5.8	1.8	6.1	0.3	0.6	0.4
전체	96.0	12.2	13.2	15.6	7.9	2.7	6.3	0.3	0.7	0.3
수급액										
1분위	52.8	38.7	28.4	15.0	8.0	7.7	22.3	110.9	178.1	15.7
2분위	51.6	41.4	27.1	14.7	8.8	7.4	22.6	123.7	164.3	16.8
3분위	52.2	41.3	26.8	14.4	8.8	7.3	22.0	127.8	182.6	4.0
4분위	51.3	42.1	26.5	13.7	8.5	6.8	21.6	118.3	172.6	11.1
5분위	53.7	42.7	25.5	13.1	8.7	6.5	23.1	113.0	184.7	3.5
전체	52.3	40.8	27.0	14.3	8.6	7.2	22.3	119.6	176.3	9.5

주: 가구지원금은 균등화 및 2020년 가격실질화, 개인지원금은 2020년 가격 실질화하였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가구유형별 공적이전소득 수급자 평균 수급액, 수급률, 평균 수급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이 한부모가족 등 그 외 아동가구가 15.2%로 가장 높고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가구, 1인 가구가 각각 6.7%, 5.3%로 저소득의 위험을 보여준다. 또한 저소득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수급률 역시 15.7%, 16.5%로 가장 높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의 수급률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감소 추이와 유사한데, 근로장려금 수급액과 자격을 결정하는 항

목에서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없어 이 변화의 해석에 어려움이 따른다. 자녀장려금은 아동 있는 가구유형에서 수급률이 높고, 근로장려금은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동거로 한 가구로 분류되지만 개별세대로 단독가구로 대폭 확대한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2019년 전체 공적이전소득을 하나라도 받는 수급률은 부부 아닌 아동가구, 배우자 없는 동거가구, 8세 미만 아동 부부 순서이다. 2020년에도 코로나19 지원을 거의 대다수가 수급한다는 차이 외에 가구유형별 다른 추이는 2019년과 동일하다. 가구유형별 공적이전소득 평균수급액을 보면 2019년 기타 아동가구가 109만 원,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가구가 65만 원, 1인 가구가 40만 원 순이다. 하지만 2020년에는 기타 아동가구 171만 원으로 코로나지원금이 크게 증가했지만 기타 정부보조금 지원이 사라졌다. 그리고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가구 144만 원, 8세 미만 아동 있는 부부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 전체적으로 지원액이 상향되었으나 공적이전소득의 격차가 감소하여 공적이전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2020년 코로나19 정부지원금에서는 8세 미만 아동 있는 부부가구원의 86.3%가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돌봄쿠폰을 수급했으며, 초등학생을 더한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52.8% 수급했다. 8-17세 미만 아동 있는 부부가 아동특별돌봄지원금 36.4% 수급, 비대면 학습지원금 30.7% 수급으로 각 제도의 지원대상이 명확하게 가구유형을 통해 드러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동일하게 보편적 성격을 띠었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낮은 평균 수급률에도 상대적으로 1인 가구의 높은 수급률이 눈에 띈다.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가구, 1인 가구, 기타 아동가구 순으로 수급률이 감소하는데 1인 가구와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가구의 취업률 감소가 노동패널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5장에서는 부부 아닌 아동가구의 취업률 감소는 동일하지만 배우자 없는 독거 및 동거가구의 경우 하락세가 크지 않고 기복이 있는 반면 아동이 있는 가구 유형의 취업률 감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 분석결과와 더불어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표 6-6〉 가구유형별 공적이전소득 수급자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년)

구분	기초 생활 보장	기초 연금	사회 단체 보조금	코로나 지원금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기타 정부 보조금	합계
2019년								
1인 가구	594	332	312	.	88	77	10	451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가구	833	300	226	.	119	55	63	292
아동 없는 부부	651	317	1115	.	144	68	12	211
8세 미만 아동 있는 부부	1214	192	338	.	128	96	17	109
8-17세 아동 있는 부부	1158	332	.	.	106	83	2	124
그외 아동가구(한부모가족)	590	379	120	.	126	72	479	303
전체	712	283	746	.	125	83	35	211
2020년								
1인 가구	611	323	1349	63	86	89	49	105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가구	906	349	693	118	110	60	11	146
아동 없는 부부	547	354	760	133	113	80	21	87
8세 미만 아동 있는 부부	751	200	126	184	130	90	11	111
8-17세 아동 있는 부부	1012	331	296	157	150	107	0	89
그외 아동가구(한부모가족)	1013	354	.	147	153	88	0	171
전체	746	317	409	138	123	92	15	9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표 6-7〉 가구유형별 공적이전소득 평균 수급률

(단위: %)

구분	기초 생활 보장	기초 연금	사회 단체 보조금	코로나 지원금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기타 정부 보조금	합계
2019년								
1인 가구	5.3	1.6	0.1	0.0	2.2	0.1	0.1	8.8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가구	6.7	9.1	0.5	0.0	6.7	2.8	1.9	22.3
아동 없는 부부	0.8	4.4	0.4	0.0	2.1	0.5	0.3	7.3
8세 미만 아동 있는 부부	0.3	10.0	0.7	0.0	3.5	6.8	0.8	17.5
8-17세 아동 있는 부부	0.4	2.1	0.0	0.0	2.5	4.5	0.1	6.9
그외 아동가구(한부모가족)	15.2	8.9	0.4	0.0	15.7	16.5	3.1	36.0
전체	1.7	4.8	0.3	0.0	2.9	2.6	0.5	10.3
2020년								
1인 가구	4.9	1.7	0.1	98.1	3.5	0.6	0.2	98.1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가구	7.6	10.5	0.3	98.7	5.6	2.2	0.7	99.0
아동 없는 부부	1.1	4.4	0.3	99.1	1.6	0.9	0.5	99.2
8세 미만 아동 있는 부부	0.5	8.0	1.7	99.5	3.9	5.9	0.5	99.6
8-17세 아동 있는 부부	0.5	2.5	0.1	99.4	2.7	3.8	0.0	99.5
그외 아동가구(한부모가족)	10.4	8.8	0.0	100.0	10.4	14.8	0.0	100.0
전체	1.9	4.7	0.4	99.1	2.7	2.4	0.4	99.2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표 6-8〉 가구유형별 공적이전소득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년)

구분	기초 생활 보장	기초 연금	사회 단체 보조금	코로나 지원금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기타 정부 보조금	합계
2019년								
1인 가구	32	5	0	0	2	0	0	40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가구	38	17	1	0	5	1	3	65
아동 없는 부부	3	7	3	0	2	0	0	15
8세 미만 아동 있는 부부	2	10	1	0	2	3	1	19
8-17세 아동 있는 부부	2	3	0	0	1	2	0	9
그외 아동가구(한부모가족)	49	18	0	0	11	7	23	109
전체	9	7	2	0	2	1	1	22

204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근로연령층 사회적 위험의 경험과 대응의 격차

2020년								
1인 가구	30	5	2	61	3	1	1	103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가구	44	22	2	72	4	1	1	144
아동 없는 부부	4	8	1	72	1	0	1	86
8세 미만 아동 있는 부부	2	8	1	94	3	3	0	111
8-17세 아동 있는 부부	3	4	0	78	2	2	0	88
그외 아동가구(한부모가족)	59	14	0	81	10	7	0	171
전체	9	8	1	75	2	1	0	97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표 6-9〉 2020년 코로나19 정부지원금 수급률과 수급액

(단위: %, 만 원/년)

구분	긴급 재난 지원금	긴급복 지지원 제도	아동 돌봄 쿠폰	아동특 별돌봄 지원금	비대면 학습 지원금	기타 지원	개인긴 급재난 지원금	긴급고 용안정 지원금	소상공 인버텨 목자금	기타 개인 지원
수급률										
1인 가구	97.5	17.3	2.6	1.6	0.1	0.1	5.0	0.5	0.8	0.2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가구	94.9	20.2	0.4	0.0	1.1	0.5	6.6	0.3	0.3	0.2
아동없는부부	95.6	11.6	1.9	1.0	0.4	0.7	6.5	0.3	0.8	0.4
8세 미만 아동 있는 부부	96.8	8.3	86.3	52.8	3.5	3.2	6.7	0.2	0.5	0.2
8-17세 아동 있는 부부	95.8	10.9	4.1	36.4	30.7	8.3	6.3	0.3	0.6	0.2
그외 아동가구 (한부모가족)	97.8	13.5	16.3	26.7	30.0	3.1	6.6	0.2	0.8	0.3
수급액										
1인 가구	48.9	44.3	47.0	30.8	15.0	3.0	18.7	119.5	168.7	40.4
아동과 배우자 없는 다인가구	51.0	37.5	26.2	.	7.5	6.2	19.8	111.8	179.1	8.6
아동없는부부	53.2	38.9	30.2	16.7	6.7	4.8	22.5	124.2	182.2	7.9
8세 미만 아동 있는 부부	50.6	43.4	26.6	15.0	7.7	5.9	24.2	109.0	166.6	12.5
8-17세 아동 있는 부부	53.1	43.3	21.8	13.2	8.6	8.0	23.2	114.8	174.3	5.3
그외 아동가구 (한부모가족)	54.1	45.3	28.6	15.1	9.5	7.7	16.6	182.3	117.6	2.0

주: 가구지원금은 균등화 및 2020년 가격실질화, 개인지원금은 2020년 가격 실질화하였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집단의 가구특성을 파악하고자 소득 기준과 가구유형 구분을 교차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공적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장 취약한 가구유형은 1인 가구와 한부모가족 등(조손가족 포함)임을 알 수 있다. 이 가구유형은 코로나19 이전에도 그 취약성을 드러냈고 한부모가족은 오래전부터 정책지원의 대상이었던 반면 1인 가구의 취약성은 최근 그 정책적 중요도가 크게 증가하며 주목받고 있다. 또한 가구유형으로 접근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아동과 배우자가 없는 다인 가구 역시 취약한 편이다. 이 가구유형은 모두 부부 가구에 비해 가구주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자리를 그만둘 확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인해 노동시장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큰 집단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 고용안전망에서 이들이 보호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1, 2차 고용안전망 강화와 위기 시의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이나 중소기업인 지원과 같은 대응으로 근로·사업소득의 감소를 방어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에 더해 한부모가족과 같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 가구유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충분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충격과 이로부터 이어지는 소득감소의 충격이 아동 있는 부부가구와 한부모가족에게 나타났는데 이는 1인 취업자 가구와 달리 자녀돌봄이라는 공급측 요인이 있었음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돌봄시설과 학교의 봉쇄로 가구내에서 돌봄부담은 커졌다. 이 가구들에서 아동돌봄쿠폰, 아동특별돌봄지원금, 비대면학습지원금 등 코로나19 지원금은 수급률과 수급액을 통해 목적한 대로 작동했음

을 확인하였고, 8-17세 아동 있는 부부 가구와 한부모가족 등에서 코로나19의 시장소득 충격을 크게 완화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돌봄부담이라는 노동공급측 어려움을 완화할 수 사회적 돌봄에 대한 해답은 없는 상황에서 현금만 지원되었다는 한계가 명백하다. 현금성 지원은 이 가구들의 소득증가를 통해 아동 가구의 식료품 등 필수재 소비 증가 요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지만, 그 이전에 발생하는 노동시장 위험을 막아줄 정책적 대응이 부재했다. 미래의 감염병 위기를 대비할 때 유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부모가족과 같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 강도가 약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신속지원을 위해 보편적 지원을 시도하고 중상위소득층에서도 사회정책의 기제가 작동함을 경험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도와 경험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위기로 인해 더욱 취약해진 집단을 지속 관찰하고 이 집단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는 과정이 더욱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한부모가족 등 기타 아동가구와 같이 위기에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며 노동시장 위험과 돌봄의 부담이라는 이중의 위험에 동시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동가구의 경우 주로 소득지원을 위한 쿠폰 발행에 그쳤는데 위기 상황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 교육격차 완화 등을 위한 사회적 목적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고용이 가구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는 위험 확산의 경로를 살펴보고, 코로나19 대응이 누구에게 어떤 제도를 통해 작동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기초적 분석에 그친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지원금이 소득과 소비에 가구소득계층별로, 가구유형별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활화(smoothing) 효과로 충격을 완화하는

성과를 보였는지 더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를 전기와 후기와 나누어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회복 경로를 그리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요약

이 연구는 코로나19가 근로연령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근로연령층은 근로활동을 바탕으로 생활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코로나19가 근로연령층의 경제활동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근로연령층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개입의 방식과 시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감염병 위기가 2020년 이후 우리의 삶을 강타했고 이 새로운 위기와 가져온 변화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는 이전의 경제위기와 다른 모습을 가졌다. 이전의 경제위기가 주로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업종에 영향을 미쳤다면, 감염병 위기는 대면접촉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 업종과 직종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한 사람들의 활동 감소는 추가적인 경제활동의 위축과 수요의 감소를 낳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교나 돌봄시설에 가지 못하는 자녀를 돌보는 부담 또한 이전의 경제위기가 낳지 않았던 새로운 과제였다. 따라서 돌봄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에 따라 가구의 노동공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위기가 근로연령층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산업과 직업의 특성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 미치는지 새로운 지표를 개

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수의 선행연구가 이미 원격근무가능지수 또는 재택근무가능지수, 대면접촉도, 필수직 여부 등의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코로나19의 영향을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 또한 2장에서 가계동향조사의 소비 변화를 이용해 한국의 수요충격지수를 개발하였고, Dingel and Neiman(2020)의 재택근무지수 등의 방법론을 한국의 KNOW 데이터에 적용하여 한국의 재택근무가능도 지수 개발을 시도하였다. 재택근무가능도는 의견조사 등 추가적인 검증을 필요로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향후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는 고유의 지수로 개발할 가능성을 남겼다. 수요충격지수는 4장에서 개인의 노동시장 위험 확률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측 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3장과 4장에서는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해 2019년에 비해 2020년과 2021년 어떤 고용변화가 나타났는지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직무와 산업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 일자리 특성에 따른 재택근무 가능성, 사람들과의 대면 정도, 필수직 일자리 정보를 활용해 전염병 취약일자리 특성 및 변화를 파악하였다. 새로운 위험의 지표로 등장한 이 지수들이 종사상지위와 저임금과 같은 기존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조건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면접촉도가 높고 재택근무 가능성이 낮은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고 저임금 비율도 높았다. 또한 여성이 재택근무 가능한 일자리와의 관련이 높음과 동시에 고대면접촉 지수가 높은 일자리와의 관련성도 높았다. 따라서 코로나 전후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업자 수 감소의 대부분이 비필수직 일자리, 그리고 재택이 어려운 일자리, 고대면접촉 일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

운 지수들이 코로나19의 충격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4장에서는 3장의 분석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재택근무가능도, 대면접촉도, 필수직 여부를 수요측 요인으로 고려하고 코로나19 위기에서 새롭게 등장한 돌봄의 부담으로 인한 노동공급측 요인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수요측 요인으로 2장에서 개발한 산업소분류별, 직업소분류별 수요충격 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면접촉도와 필수직 여부를 사용한 수요측 요인은 주로 근로시간 감소라는 고용변화에 영향을 미쳤고, 수요충격지수는 이직위험과 유급휴가휴직 사용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지표들이 코로나19의 영향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하다는 점이 3장에서와 같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중요하게 자녀가 있는 부모, 특히 여성의 경우 이직위험과 유급휴가휴직 사용률을 높여서 감염병 위기가 유자녀 여성의 노동공급을 감소시켜 고용을 감소시켰다는 결과를 얻었다. 여성, 청년, 임시·일용직, 영세사업장 종사자가 다양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점은 기존의 이중노동시장의 주변부 여건들이 감염병 위기에서도 그 취약성을 더 증폭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5장에서는 가계동향조사로 가구유형별 고용, 소득, 소비 변화를 탐색하였다. 가구 소득계층 역시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저소득 분위 취업자 수 감소가 크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고용충격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취학연령의 아동이 있는 부부가구의 경우 취업자 수의 감소와 취업소득의 감소가 큰 폭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회복되지 못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소비의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비스 지출이 감소하고 재화 지출이 증가하는 등 감염병 위험에 따른 새로운 생활상을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소득의 변화 역시 반영하고 있었다. 고용-소득-소비를 통해 코로나19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집단은 모자가구와 같은 한부모가족으로 나타나 정책적 대응을 요한다.

6장은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해 가구유형별·소득계층별 고용, 소득, 소득과 소비의 차이(gap) 변화를 요약하고 공적이전소득과 코로나19 지원금의 수급률과 수급액 등 성과를 분석하였다. 저소득층에서 고용감소는 더욱 컸고, 특히 가구 내 취업자가 단독인 경우 고용충격은 더욱 커서 취약성이 큰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5장에서 취약연령 자녀가 있는 부부가구의 취업자 수 감소가 컸음을 결과로 제시했으나 가구 내 취업자가 단독인 경우 취업자 수의 감소 폭은 작을지라도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기 때문에 그 취약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영향이 취약연령 아동 있는 가구와 한부모가족 등에 게 컸고, 코로나19에 대응한 아동 있는 가구 대상 현금 지원금이 이 충격 완화에 기능했음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보편적 지원은 신속 지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했으나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가구에 대한 공적 지원의 강화로는 이어지지 못했던 아쉬움을 남겼다.

제2절 정책적 제언

노동시장정책, 돌봄정책, 기업의 인력정책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감염병 확산으로 자녀의 돌봄부담이 커져 주로 돌봄의 책임을 지는 유자녀 여성이 일자리를 그만두는 위험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졌다. 다른 경제위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그 원인이 전염병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돌봄쿠폰 등의 현금성 지원에 그쳐 사실상 부모를 대신해 자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주체, 사회적 돌봄의 대안이 부족했다. 따라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돌봄 체계를 작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돌봄제공자의 자녀를 사회가 우선적으로 돌봄으로써 사회적 돌봄이 기능하도록 하고, 거리두기에 있어서 돌봄시설을 폐쇄하기 보다는 시설을 가동하되 효과적인 방역이 가능하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하다. 감염병 확산을 피하기 위한 방역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망을 가동하는 정책이 균형감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부모가족과 같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신속지원을 위해 보편적 지원을 시도하고 중상위소득층에서도 사회정책의 기제가 작동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도와 경험이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위기로 인해 더욱 취약해진 집단을 지속 관찰하고 이 집단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는 과정은 더욱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한부모가족 등 부부 아닌 아동가구와 같이 노동시장 위험과 돌봄의 부담이라는 이중의 위험에 동시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아동가구의 경우 주로 소득지원을 위한 쿠폰 발행에 그쳤는데 위기 상황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 교육격차 완화 등을 위한 사회적 목적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감염병 위기에서 노동시장의 고용감소는 대면접촉도가 큰 서비스업과 대면직에서 크게 발생했다. 이는 팬데믹에 대한 방역대책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부 업종을 제한하거나 거리두기를 시행한 결과로 산업적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 수요충격은 소비를 통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 부정적인 수요충격이 클수록 이직을 경험할 확률과 유급휴가 및 휴직 사용률이 높아졌고, 근로시간이 감소했음을 회귀분석 결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보상하는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제한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으나 실제 발생한 손실에 비해 이 대응의 크기는 부족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넷째, 노동시장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우선적인 안전망이 되는 것은 고용유지정책이다. 이는 수요충격이나 공급측 요인이 발생했을 때 실직이라는 위험상황까지 가지 않고 약간의 소득감소를 기업과 노동자가 감수하면서 빠른 회복의 경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감염병 위기에서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나라를 중심으로 역점을 두고 전개한 정책이다. 한국 역시 고용유지정책이 있지만 여전히 고용주 부담이 커서 활발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신속성 측면에서 다소 발빠르지 못하게 대응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다음의 위기에는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둘 필요가 있다.

유급휴가 및 유급휴직이 고용과 소득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코로나19 위기 때 사업체 조건에 따라 또는 개인이 가진 일자리 지위에 따라 이를 보장받지 못할 경우 무급휴가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소득보장을 하는 보완적 방식을 취했다. 유급휴직휴가를 사용한 집단의 경우 소득이 감소한 비율도 소득감소율도 충격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무급휴가휴직을 사용한 집단의 경우 소득감소율은 큰 반면 일자리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일용직, 중년, 무배우자 독거가구,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와 같이 가장 큰 고용취약성을 드러내는 집단이 이들인데 이들은 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임시적 소득지원 정책을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이 포괄하고 소득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유연한 근무방식에 대한 선택지는 일자리를 그만두는 위험의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 직무특성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기술변화로 인해 점차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이 가능해지는 것은 추세적 변화이다. 각 사업체가 선택권을 갖고 있지만 정부가 유연한 근무형태가 확산됨에 따른 다양한 이슈에 선제적으로 법·제도 등의 환경을 마련하여 다시금 찾아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에서 재택근무가 다른 하나의 완충장치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택근무가능도는 임시·일용직, 저임금 조건 등 노동시장의 취약한 지위와도 높은 상관성을 가지므로¹⁶⁾ 유연한 근무방식의 확산은 전통적인 취약성 조건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6) Cetrulo et al.(2022)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도 재택근무가능성은 여성, 낮은 지위 등 과도 중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 권혁진, 김성희, 신우진, 황선웅. (2022). 위기 대응과 노동시장 전략. 국정과제 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18. 서울: 경인문화사.
- 국가통계포털(KOSIS). (2022). 가구특성별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B01&conn_path=I2에서 2022.10.19. 인출
- 국세청. (2019). 2019년 귀속 업종분류코드. 국세청
- 김수현. (2021.3.16.). 작년 서울 초등학교 42일만 학교갔다... 전남의 1/3수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5158700530>에서 2022.12.21. 추출
- 김철주, 박보영. (2006).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도래와 복지국가의 현대화. 사회복지정책, 24, 315-334.
- 김태완, 이주미. (2020). 코로나 시대의 소득불균형 심화와 정책적 대응.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20(12), 20-33.
- 김태일, 이영빈. (2019). 노인가구와 근로연령가구의 소비 수요 비교: 정책적 빈곤선에 대한 함의. 한국사회정책 26(2). 178-203.
- 김현경. (2022). 일자리 특성과 사회적 위험.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남재현, 이래혁. (2021).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 소득 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8(1), 63-95.
- 문혜진, 구인회, 김진석, 손병돈, 우석진, 함선유, 양다연. (202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성과평가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박창현, 유민정 (2020),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수요·공급 충격 측정 및 평가”, B OK 이슈노트 제 2020-11호.
- 손연정. (2018). “사회적 위험이 소득감소와 빈곤진입에 미치는 영향”. 장지연 외. 사회적 위험과 격차 심화. 제7장. 113-137.
- 여유진, 오선정, 송경희, 류재린, 김상현, 김을식, ...이지완. (2021). 코로나19의

-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37-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2021). 최근 분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 ISSUE&FOCUS 제 41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삼일, 이상아. (2020).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측정 및 평가. BOK 이슈 노트 제2020-9호.
- 이승호, 홍민기. (2020). 코로나19 확산과 가계 지출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정책 보고서.
- 이원진, 김현경, 함선유, 성재민, 하은솔, 한겨레. (2022). 소득분배 변화와 원인 분석 연구.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성미, 김종숙, 심혜빈, 김현경. (2021).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여성노동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성미, 오은진, 노우리. (2020). 숙련변화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정세정, 김태완, 김기태, 최한수, 이주미. (2020).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분배 동향과 정책대응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데이터파일]. https://mdis.kostat.go.kr/remote/remoteRequestList.do?curMenuNo=UI_POR_P9014에서 2022. 10. 31. 인출.
-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데이터파일]. 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에서 2022.6.22. 인출.
-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고용조사[데이터파일]. https://mdis.kostat.go.kr/remote/remoteRequestList.do?curMenuNo=UI_POR_P9014에서 2022. 8.25. 인출.
- 한국고용정보원 제공자료(직업정보시스템(KNOW) 조사 문항)

- 한국노동연구원. (2022a). 한국노동패널 조사표
- 한국노동연구원. (2022b). 한국노동패널 1-24차년도 조사자료 유저가이드
- 한국노동연구원. (각 연도). 한국노동패널조사[데이터파일]. <https://www.kli.re.kr/klips/selectBbsNttList.do?bbsNo=50&key=163>에서 2022.9.26. 인출
- 황선웅. (2020). 코로나19 충격의 고용형태별 차별적 영향. 산업노동연구, 26(3), 5-34.
- Beck, U. (윤김 홍성태). (2019).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출판사.
- Albanesi, S. & Kim, J. (2021). Effects of the COVID-19 Recessions on the US Labor Market: Occupation, Family, and Gender.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5(3), 3-24.
- Anuradha, P. (2022), Measuring Demand and Supply Shocks From COVID-19: An Industry-Level Analysis for India. *The Journal of Applied Economics Research* 16(1), 76-105.
- Baker, S. R., Farrokhnia, R. A., Meyer, S., Pagel, M. & Yannelis, C. (2020). How Does Household Spending Respond to an Epidemic? Consumption During the 2020 COVID-19 Pandemic.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o. w26949*. 1-34.
- Beutels, P., Edmunds, W. J. & Smith, R. D. (2008). Partially wrong? Partial equilibrium and the economic analysis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of international concern. *Health Econ.* 17(11). 1317-22.
- Brinca, P., Joao B. D. & Faria-e-Castro, M. (2021), Measuring Labor Supply and Demand Shocks during COVID-19. *European Economic Review*, Volume 139.
- Cetrulo, A., Guarascio, D. & Virgillito, M.E. (2022). Working from home and the explosion of enduring divides: income, employment a

- nd safety risks. *Econ Polit* 39, 345-402.
- Chetty, R., Friedman, J. N., Hendren, N., Stepner, M. & The Opportunity Insights Team. (2020), How Did COVID-19 and Stabilization Policies Affect Spending and Employment? A New Real-Time Economic Tracker Based on Private Sector Data. NBER Working Paper No. 27431.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06), Potential Influenza Pandemic: Possible Macroeconomic Effects and Policy Issues. <https://www.cbo.gov/sites/default/files/109th-congress-2005-2006/reports/12-08-birdflu.pdf>
- del Rio-Chanona, R. M., Mealy, P., Pichler, A., Lafond, F., & Farmer, J. D. (2020). Supply and demand shocks in the COVID-19 pandemic: an industry and occupation perspective, *Oxford Review of Economics Policy*, Vol. 36, No. S1, pp. S94-S137.
- Dingel, J. I., & Neiman, B. (2020). How many jobs can be done at hom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89, 104235.
- Duca, J. and Muellbauer, J. (2013), Tobin LIVES: Integrating Evolving Credit Market Architecture into Flow of Funds Based Macro-Models. ECB Working Paper No. 1581, European Central Bank. Also in B Winkler, A van Riet, and P Bull (eds), *A Flow-of-Funds Perspective on the Financial Crisis Volume II—Macroeconomic Imbalances and Risks to Financial Stability*, Palgrave Macmillan 2014.
-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2020). *Living, Working and COVID-19—First Findings—April 2020*.
- Glover, A., Heathcote, J., Krueger, D., & Ríos-Rull, J. V. (2020). Health versus wealth: On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controlling a pandemic (No. w2704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Huber, E. & Stephens, J. D. (2004). Combating Old and New Social Risks.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uropeanists.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0). ILO Monitor: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Int Labour Organ.
- Keogh-Brown, M. R., Wren-Lewis, S., Edmunds, W. J., Beutels, P. & Smith, R. D. (2010). The Possible Macroeconomic Impact on the UK of an Influenza Pandemic. *Health Economics*, 19(11), 1345-60.
- Kim, S., K. Koh, and W. Lyou. (2020). Spending Impact of COVID-19 Stimulus Payment: Evidence from Card Transaction Data in South Korea.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Discussion Paper Series, No. 13567, 1-16.
- Kubota, S., Onishi, K., and Toyama, Y. (2020), Consumption responses to COVID-19 payments :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and bank account data. *Covid Economics* 62.
- María J. Luengo-Prado. (2021). COVID-19 and the Labor Market Outcomes for Prime-Aged Women. 2021 Series Current Policy Perspectives,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 Miller, J. M., & Blumstein, A. (2020). Crime, justice & the COVID-19 pandemic: Toward a national research agenda.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5(4), 515-524.
- Mongey, S., Pilossoph, L., & Weinberg, A. (2021). Which workers bear the burden of social distancing?. *The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19(3), 509-526.
- Muellbauer, J. (2020),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US Consumption. VoxEU.org, 11 April, <https://cepr.org/voxeu/columns/coronavirus-pandemic-and-us-consumption>.
- O*NET 홈페이지. (2022). Browse by Work Activities. <https://www.onet.org>

- nline.org/find/descriptor/browse/4.A/4.A.1,에서 2022. 9. 10. 인출
- O'Keefe, P., Westgate, K., & Wisner, B. (1976). Taking the naturalness out of natural disasters. *Nature*(London), 260, 566-567.
- OECD, (2020), Evaluating the Initial Impact of COVID-19 Containment Measures on Economic Activity. Tackling Coronavirus Series, OECD Publishing, Paris.
- Piyapromdee, S. & Spittal, P. (2020). The Income and Consumption Effects of COVID-19 and the Role of Public Policy. *Fiscal Studies*, 41(4), 805-827.
- Reich, R. (2020. 4. 28). The Remotes. The Essentials. The Unpaid. The Forgotten: Divided, but intertwined. <https://blogs.berkeley.edu/2020/04/28/the-remotes-the-essentials-the-unpaid-the-forgotten-divided-but-intertwined/>에서 2022.3.15. 인출.
- Sanchez, D. G., Parra, N. G., Ozden, C. & Rijkers, B. (2020). Which jobs are most vulnerable to COVID-19?. *World Bank Research & Policy Briefs* No. 34.
- Thomas, D. S., Phillips, B. D., Fothergill, A. & Blinn-Pike, L. (2009). *Social vulnerability to disasters*. CRC Press.
- Wisner, B., Blaikie, P., Cannon, T. & Davis, I. (2014). *At risk: natural hazards, people's vulnerability and disasters*. Routledge.



〈부표 1〉 소비자출과 산업연계표

소비지출항목	코드1	산업명1	코드2	산업명2	코드3	산업명3
01. 식료품 · 비주류음료						
곡물	011	작물 재배업				
곡물가공품	106	곡물가공품, 진분 및 진분제품 제조업				
빵 및떡류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육류	012	축산업				
육류가공품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신선수산물	03	어업				
염건수산물	03	어업				
기타수산물가공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유제품 및 알	10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유지류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과일 및 과일가공품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011	작물 재배업		
채소 및 채소가공품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011	작물 재배업		
해조 및 해조가공품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03	어업		
당류 및 과자류	106	곡물가공품, 진분 및 진분제품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소비지출항목	코드1	산업명1	코드2	산업명2	코드3	산업명3
조미식품	107	기타 식품 제조업				
기타식품	107	기타 식품 제조업				
커피 및 차	107	기타 식품 제조업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쥬스 및 기타음료	112	비알코올음료 및 얼음 제조업				
02. 주류 · 담배						
주류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111	알코올음료 제조업		
담배	472	음 · 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20	담배 제조업		
03. 의료 · 신발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직물 및 외의						
내의						
기타의복						
의복관련서비스						
신발						
신발서비스						
04. 주거 · 수도 · 광열						
실제주거비	68	부동산업				
주택유지 및 수신	424	실내건축 및 건축사무리 공사업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 ~ 39)				

소비지출항목	코드1	산업명1	코드2	산업명2	코드3	산업명3
기타주거관련서비스	68	부동산업				
연료비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77	연료 소매업		
05. 가정용품 · 가사서비스						
가구 및 조명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실내장식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가정용 섬유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가전 및 가정용기기	473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가전관련서비스	953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가사용품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가정용공구 및 기타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가사소모품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가사서비스	75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06. 보건						
의약품	211	기초 의약품질 및 생물학적	212	의약품 제조업		

소비지출항목	코드1	산업명1	코드2	산업명2	코드3	산업명3
		제제 제조업				
의료용소모품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 관련제품 제조업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 관련제품 제조업				
외래의료서비스	86	보건업				
치과서비스	86	보건업				
기타의료서비스	86	보건업				
임원서비스	86	보건업				
07. 교통						
자동차구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51	자동차 판매업		
기타운송기구구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51	자동차 판매업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452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3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운송기구 연료비	477	연료 소매업				
기타개인교통서비스	492	육상 여객 운송업				
철도운송	491	철도 운송업				
육상운송	492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운송	50	수상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기타교통관련서비스	494	소화물 전문 운송업				
08. 통신						

소비지출항목	코드1	산업명1	코드2	산업명2	코드3	산업명3
우편서비스	611	공영 우편업				
통신장비	264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473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통신서비스	612	전기 통신업				
09. 오락·문화						
영상음향기기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473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사진광학장비	266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473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정보처리장치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473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기록매체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473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951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오락문화 내구재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악기기구	332	악기 제조업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오락문화내구재 유지 및 수리	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장난감 및 취미용품	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소비지출항목	코드1	산업명1	코드2	산업명2	코드3	산업명3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화훼관련용품	339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애완동물관련용품	339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	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운동 및 오락서비스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문화서비스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복권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서적	902	도서판,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기타인쇄물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문구	475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단체여행비	902	도서판,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10. 교육						
정규교육						
초등교육	851	초등 교육기관				
중등교육	852	중등 교육기관				

소비지출항목	코드1	산업명1	코드2	산업명2	코드3	산업명3
고등교육	853	고등 교육기관				
학원 및 보습교육						
학생학원교육	855	일반 교습 학원				
성인학원교육	856	일반 교습 학원				
기타교육	856	기타 교육기관				
11. 음식·숙박						
식사비	56	음식점 및 주점업				
숙박비	55	숙박업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이미용서비스	961	미용, 욕량 및 유사 서비스업				
이미용 기기	475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위생 및 이미용용품	475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시계 및 장신구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274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475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기타개인용품	339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475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복지시설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험	65	보험 및 연금업				
기타금융	64	금융업				
기타서비스	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주: 1자리 산업코드는 산업대분류, 2자리 산업코드는 산업중분류, 3자리 산업코드는 산업소분류임
 자료: 국제청. (2019). 2019년 귀속 업종분류코드.

〈부표 2〉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항목과 품목별 항목 구분

소비지출	필수재	서비스	내구재
01. 식료품 · 비주류음료	-	-	-
곡물	○	x	x
곡물가공품	○	x	x
빵 및 떡류	○	x	x
육류	○	x	x
육류가공품	○	x	x
신선수산물	○	x	x
염건수산물	○	x	x
기타수산물가공	○	x	x
유제품 및 알	○	x	x
유지류	○	x	x
과일 및 과일가공품	○	x	x
채소 및 채소가공품	○	x	x
해조 및 해조가공품	○	x	x
당류 및 과자류	○	x	x
조미식품	○	x	x
기타식품	○	x	x
커피 및 차	x	x	x
쥬스 및 기타음료	x	x	x
02. 주류 · 담배	-	-	-
주류	x	x	x
담배	x	x	x
03. 의류 · 신발	-	-	-
직물 및 외의	○	x	○
내의	○	x	○
기타의복	○	x	○
의복관련서비스	x	○	x
신발	○	x	○
신발서비스	x	○	x
04. 주거 · 수도 · 광열	-	-	-
실제주거비	○	x	x
주택유지 및 수선	○	x	x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	x	x
기타주거관련서비스	○	x	x
연료비	○	x	x
05. 가정용품 · 가사서비스	-	-	-

소비지출	필수재	서비스	내구재
가구 및 조명	x	x	○
실내장식	x	x	○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x	x	○
가정용 섬유	x	x	○
가전 및 가정용기기	x	x	○
가전관련서비스	x	x	○
가사용품	x	x	○
가정용공구 및 기타	x	x	○
가사소모품	○	x	x
가사서비스	x	○	x
06. 보건	-	-	-
의약품	○	x	x
의료용소모품	○	x	x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	x	x
외래의료서비스	○	○	x
치과서비스	○	○	x
기타의료서비스	○	○	x
입원서비스	○	○	x
07. 교통	-	-	-
자동차구입	x	x	○
기타운송기구구입	x	x	○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x	x	x
운송기구 연료비	○	x	x
기타개인교통서비스	x	○	x
철도운송	○	○	x
육상운송	○	○	x
기타운송	○	○	x
기타교통관련서비스	x	○	x
08. 통신	-	-	-
우편서비스	○	○	x
통신장비	x	x	x
통신서비스	○	○	x
09. 오락·문화	-	-	-
영상음향기기	x	x	○
사진광학장비	x	x	○
정보처리장치	x	x	○
기록매체	x	x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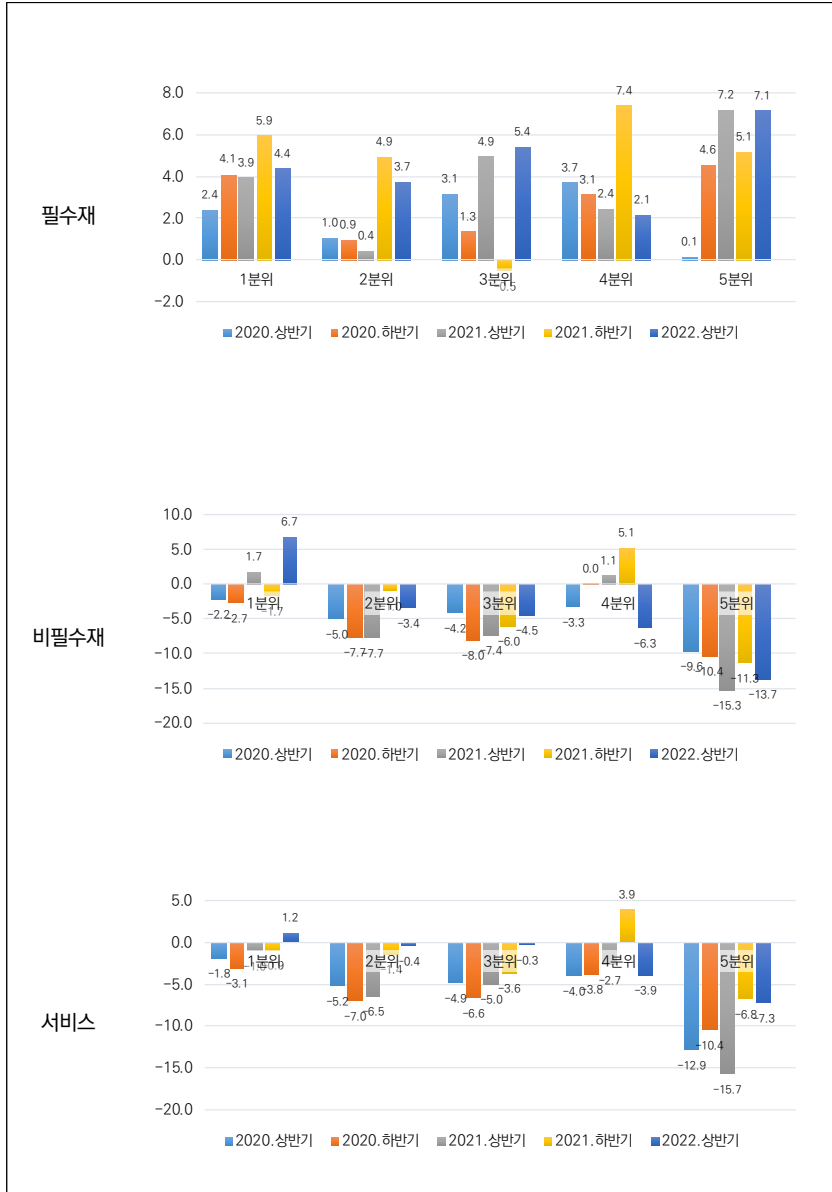
234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근로연령층 사회적 위험의 경험과 대응의 격차

소비지출	필수재	서비스	내구재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x	○	x
오락문화 내구재	x	x	○
악기기구	x	x	○
오락문화내구재 유지 및 수리	x	○	x
장난감 및 취미용품	x	x	○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x	x	○
화훼관련용품	x	x	x
애완동물관련물품	x	x	x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	x	○	x
운동 및 오락서비스	x	○	x
문화서비스	x	○	x
복권	x	x	x
서적	x	x	x
기타인쇄물	x	x	x
문구	x	x	x
단체여행비	x	x	x
10. 교육	-	-	-
정규교육	x	○	x
학원 및 보습교육	x	○	x
기타교육	x	○	x
11. 음식·숙박	-	-	-
식사비	x	○	x
숙박비	x	○	x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	-	-
이미용서비스	x	○	x
이미용 기기	x	x	○
위생 및 이미용용품	x	x	x
시계 및 장신구	x	x	○
기타개인용품	x	x	x
복지시설	x	○	x
보험	x	x	x
기타금융	x	x	x
기타서비스	x	○	x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부그림 1] 가구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만원)



236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근로연령층 사회적 위험의 경험과 대응의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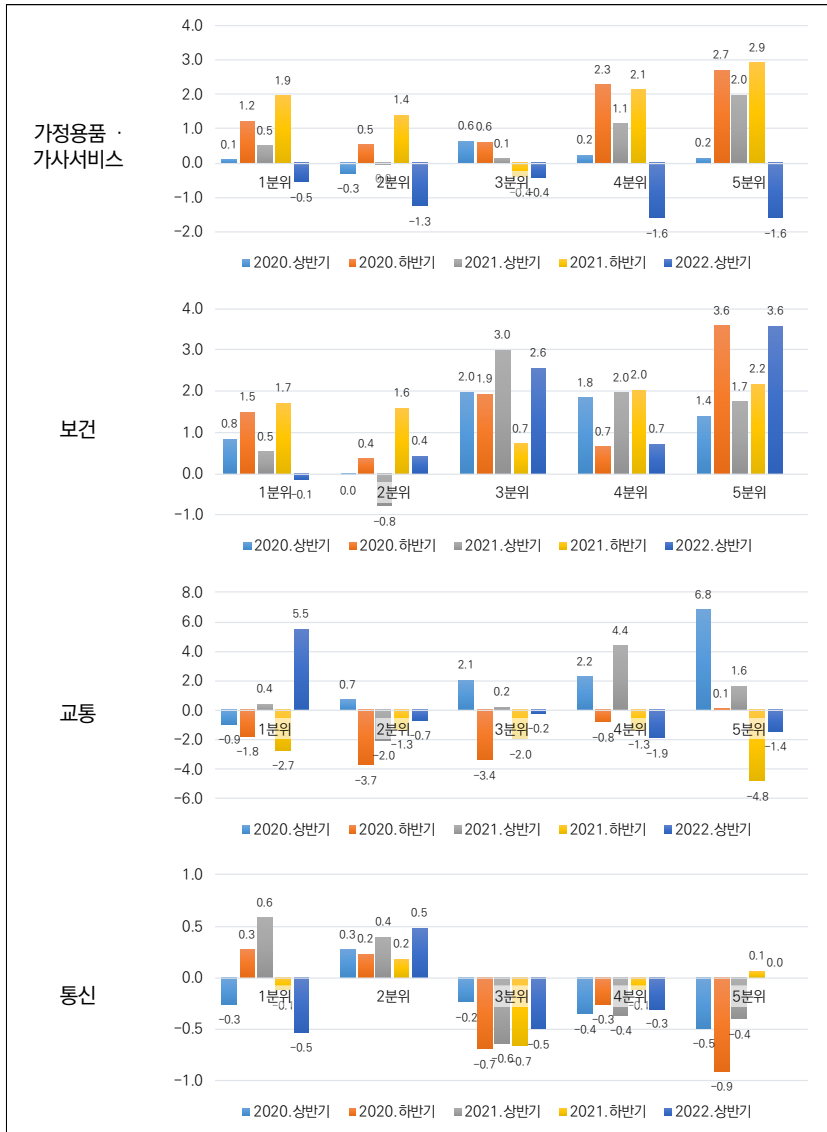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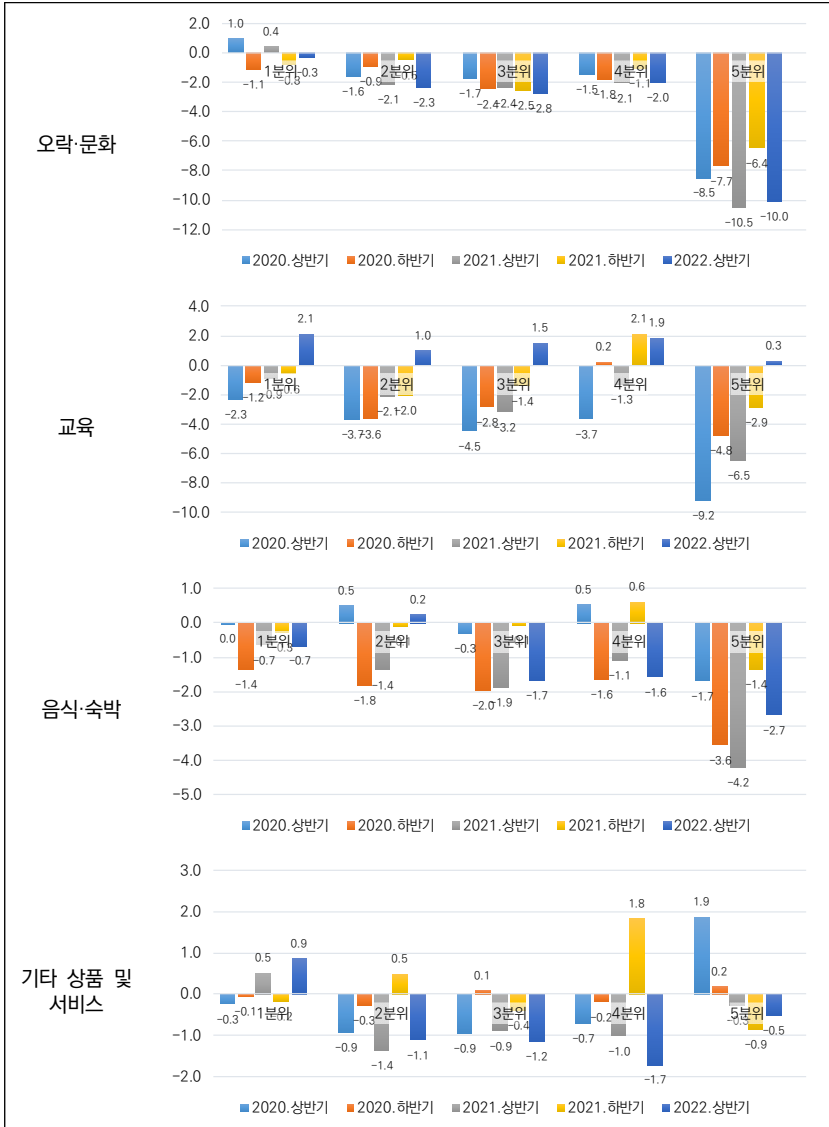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부그림 2] 가구형태별 소비지출 변화(2019년 동기 대비)

(단위: 만원)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